

2

주체103(2014)

문학예술출판사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3(2014)년 제2호

(루계 제796호)



《〈승리의 신심 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  
자!〉, 이것이 올해에 우리 당과 인민이 들고나  
가야 할 전투적구호입니다.》

김 정 은

## 차 례

불세출의 탄생(시) .....	차 승 수(4)
그이는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가사) .....	김 광 성(4)
그리움의 송가(시) .....	황 명 성(5)
강철의 선군정장(시) .....	리 명 근(6)
<b>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b> .....	(6)
{ 영원한 미소 .....	김 철(7)
{ 장군님 보시였더라면 .....	리 일 섭(7)
{ 연이 날은다 .....	최 희 정(8)
{ 적사의 그날에 .....	리 맥(9)
<b>단편소설</b> 비 날 론 .....	한 철 순(10)
<b>주체문학의 대강</b> .....	(20)
영원한 정(수필) .....	김 혜 영(21)
불러만 보아도(시) .....	장 혜 명(22)
인민은 봄을 노래한다(서사시) .....	차 영 도(23)
사생결단의 선군길(혁명일화) .....	(53)

## ◇ 평 론 ◇

위인이 지닌 인간적 품모의 위대함에 대한 빛나는 형상 .....	고 철 훈(30)
위대한 계승의 발자취 오성산에 빛받힌다 .....	강 정 심(47)
노박하고 진실한 형상이 낳은 시대의 우렁찬 메아리 .....	권 선 철(51)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와  
들끓는 현실에 발맞추어 사상예술성이 높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시대적명작들을 많이  
창작하여야 합니다.》

김 정 은



진주 아버지 .....	박 성 진(34)
새들이 날아든다 .....	리 정 옥(54)
불 빛 .....	오 광 천(60)

여름밤의 이야기 (실화문학) .....	리 경 명(69)
별 (수필) .....	편 재 순(67)
한편의 가사에 비친 시인의 인생관 (자료) .....	류 민 호(59)

◇ 시 ◇

우리의 배낭 외 1편 .....	박 웅 전(33)
아름다운 미래를 펼쳐주셨네 .....	백 하(46)
오직 그이만을 따라 .....	홍 성 두(50)
태양의 별들(시초) .....	리 찬 호(65)
가을이 보이는 겨울이다 .....	우 광 복(49)
우리 생활은 아름다워라(시초) .....	박 철(76)
내 사랑 대동강아(가사) .....	류 동 호(75)
들의 서정시 .....	리 진 협(75)

소 《조선문학》축전상 시상결과 .....	(4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5돐기념	
식 전국문학축전 입선결과 .....	(79)
상 식 .....	(64), (80)

표지2면: 《혁명무력은 원수님령도만 받든다》(노래)  
3면: 《우리의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선전화)

# 불세출의 탄생

차 승 수

이 순간을 기다려 반만년  
백두는 머리가 희도록 고르고 또 골랐으리  
1942년 2월 16일  
새시대의 새벽을

그 요람을 마련하러 백만년  
지구는 끓이고 또 끓인 용암을  
세상밖으로 분출시켰으리  
백두의 주춧돌에  
고향집기둥을 세우려고

하늘땅이 열리어  
억만년  
태어난 명인들은 별처럼 많아도  
이런 탄생 이런 요람 그 어디에 있었는가

그이 호흡하신 첫 공기는  
천년밀림이 뿜어낸 정기였고  
그이 목을 추기신 첫 샘물은  
하늘높이 떠올린 천지물이었어라

그이의 자장가는 천지를 진동하는  
항일전의 총포성  
그이의 놀이감은 지구우의 모든 원수들을  
눈앞에 당겨놓고 겨냥한  
한자루의 권총과 망원경

그이는 성장하시었어라  
신화속의 장수마냥  
빨찌산대장 아버님과 함께  
격전장을 달리시는 어머니의 말안장우에서  
폭풍의 세월을 헤쳐나가며  
뜻도 마음도 나래펼치며

백두의 정기를 피와 살로 체현하시고  
백두의 정신을 닮으려 불태우시며  
백두의 기상을 안팎에 담으시어  
백두산을 닮으신 우리 장군님

그 지성에서 빛발쳐올라  
말씀의 마디마디 혁명의 등대로  
세기를 밝히시어라  
그 담력에서 용솟아  
한마디 음성에 천만대적이 기절초풍하여라  
그 기상 뻗치어  
한번 손길에 산악이 옮겨지고 바다가 메워지어라

오, 위대한 김정일동지  
흘러가는 세월과  
마중오는 세월이 손을 잡고  
하늘과 땅이 열썩안고  
인류의 태양을 받들어올린 력사의 날이여

주체95(2006)년 2월 17일

가 사

## 그이는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김 광 성

설날을 맞으시며 원아들을 찾으신  
그이의 모습은 수령님모습 장군님모습  
온 하루 귀중한 시간을 바치시어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셨네  
아 수령님과 장군님사랑 다 합쳐 안겨주시는  
사랑의 태양 우리의 김정은동지

병사들과 손을 잡고 기념사진 찍으신  
그이의 모습은 수령님모습 장군님모습  
선군의 영원한 전우가 되자 하시며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네  
아 수령님과 장군님믿음 다 합쳐 안겨주시는  
사랑의 태양 우리의 김정은동지

그 언제나 충정이 넘쳐나는  
그 모습 우러르면 수령님모습 장군님모습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을  
우리의 일편단심 영원하리라  
아 수령님과 장군님께 못다한 충정 다하리  
사랑의 태양 우리의 김정은동지

# 그리움의 송가

황명성

해빛 찬란히  
서리꽃 아름다운 설경을 펼치며  
이 강산에 2월의 아침이 밝아오니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지는 그리움

사무치는 그 그리움을 안고  
우리 마음 달려가는 곳은  
저 멀리 흰구름위에 솟은 정일봉  
백두산밀영고향집드락

정든 프락을 감돌아 내리는  
용용한 소백수 맑은 물소리도  
정일봉의 봄우뢰가 안고온 봄빛아래  
파릇이 움트는 버들꽃의 속삭임도  
그리움의 노래로 가슴을 적셔주는가

끝없이 무한대한 그리움의 백설우에 눈부신  
백두산밀영의 고향집  
이 땅의 천만아들딸들을 한품에 불러  
우리 장군님  
인민의 태양으로 영생한다고  
영원불멸의 진리를 새겨주나니

철석의 그 믿음 불변의 그 신념으로  
피눈물의 12월의 그날  
우리 땅을 박차고 하늘을 떠이고  
경애하는 원수님따라 오직 한맘  
장군님유훈 관철에 산악같이 펼쳐나서지 않았던가

못 잊어라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장군님 걸으신 선군의 그 길을 이어  
애국애민의 사랑과 정으로  
우리 원수님 바치시는 헌신의 자욱

산세험한 줄기줄기 마식령이라  
바람세찬 철령아래 고산팡이라

한여름 대동강기슭 문수물놀이장건설장도 찾으시며  
깊은 밤 새로 건설하는  
미림승마구락부주로도 밟으시며

금수강산 내 조국땅우에  
장군님 설계하신 사회주의락원을 펼쳐  
위대한 그 리상 그 념원 꽃피우자고  
그리움의 불타는 일심의 심장마다에  
비약의 불을 지펴주시고 기적의 나래를 달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내 나라 가는 곳마다 약동하는 젊음의 기상을 안고  
선군시대의 기념비들이 솟아날 때마다  
대원수님들의 영상을 그리시며  
눈물겹도록 외우시는 말씀

만복의 웃음소리 그칠새없이 넘쳐나는  
은하과학자거리 불밝은 창문에도 울린다  
무진막강한 군력을 펼치며 솟구쳐오른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 진렬대에도 빛발친다  
—장군님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얼마나 그 얼마나 기뻐하시랴!

너 세계여 무심히 듣지 말라  
유구한 력사의 갈피에 자자구구 새겨넣으라  
백옥같은 충정을 다해 일편단심  
태양을 길이 받들어모시는 마음  
그것은 간절한 그리움의 소원  
그것은 무궁할 그리움의 송가

시인인 나도 격조높이 부르며 웨치노라  
정일봉의 장엄한 봄우뢰에 실려  
이 세상 끝에서 끝까지 울려가는  
백두산대국의 그리움의 메아리  
내 삶과 운명의 숨결로 줄기찬 그리움의 송가는  
오, 강성조선의 최후승리 영광을 구가하며  
천세만세 김정은시대의 세월로 영원하리라!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의 유년시절은 군복을 입은 사람들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그는 집안어른들한테서 받지 못한 사랑을 나의 전우들한테서 받았습니다. 김정일은 내 사랑보다도 빨찌산대원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며 성장하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혁명의 새로운 세대가 항일의 불길속에서 래어나 백두산의 이갈처럼 싱싱하게 자라나고있는 모습을 보면서 조선혁명의 양양한 전도를 확신하게 되었으며 천백배의 힘과 용기와 투지를 가다듬고 조국해방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더 억세게 싸워나가게 되었습니다.》

김정일의 출생을 공동의 경사로 받아들이고 그를 사심없이 보살펴주는 전우들의 진실한 모습을 통하여 나는 우리 일가를 위해 바치는 그들의 사랑이 대를 이어가며 계속되는 참다운 사랑이라는 것을 가슴뜨겁게 느끼였습니다.》

## 강철의 선군령장

### 리 명 근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세계를 쥐락펴락하신  
강철의 선군령장 김정일장군  
광명성절 이 아침  
우리르는 우리 가슴에  
선군대양의 광휘로운 빛을 뿌리며  
위대한 그 영상이 안겨온다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때려부신  
우리 수령님 잡으셨던 총검  
그대로 보검으로 틀어쥔신 장군님  
그것으로 포성없는 전쟁을 이겼다  
그것을 정의와 진리로 새겨놓았다

더듬어 그이의 어린시절은  
항일의 총성과 더불어 흘렀고  
유년시절 선군의 억센 뜻은  
최고사령부 작전탁옆에서 키웠다  
그이는 총대와 인연을  
운명의 필연으로 새겨안았다

미제의 무장간첩선을 나포했을 때도  
침략자들을 공포에 떨게 한  
장군의 결심은 단호했다  
판문점 도끼사건때에도  
원썬들의 목줄을 거머쥔  
장군의 명령엔 서리발이 일었다

혁명의 준엄한 날과 날들에  
순간도 늦춘적 없는 우리의 총대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가슴아픈 상실을 안으시고도  
억척같이 더 높이 추켜든 총대

그것으로 민족의 자존을 지키고  
그것으로 조국의 운명을 구원했다  
평화의 담보가 가장 강대한 총대임을  
인민의 심장에 새겨주었고  
가장 위력한 조국수호도 총대임을  
세계의 하늘에 새겨놓았다

무진막강한 자기의 힘으로  
조선을 지키고 민족을 살려낸  
불세출의 선군령장 김정일장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절절히 새겨안은  
위대한 선군위업  
불멸의 선군업적이어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그대로 이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우리의 선군조국은  
오늘도 그 위용 누리에 펼쳐가나니  
빛발친다 백두산총대  
빛발친다 선군의 보검

변함없는 그 총대를 억세게 틀어쥔신  
선군령장 김정운동지  
그이께서 계시기에  
장군님은 오늘도 거언히  
선군령도의 진두에 서계신다

원수님따라 도도히 나가는  
천만군민의 대오에 힘이 되시여  
최후승리를 축복하시며  
강철의 선군령장 김정일장군  
오늘도 우리앞에 서계신다!

# 영원한 미소

김 철

거리에  
가로수들에  
하얀 눈이 내리었던만  
사람들을 어서 오라 부르는  
따뜻한 바다 문수물놀이장

해당화향기 풍기고  
갈매기 너울너울 춤추는  
명사십리백사장 여기에 펼쳐진듯  
해풍에 가슴젖어 들어서는 물놀이장에  
아버이장군님 계시다

여름바다  
금모래 반짝이는 백사장에서  
기쁨에 넘치시여  
만시름 잊으신듯  
환히 웃고계시는 장군님

웃으며 들어서는 사람들  
어찌하여 눈물에 젖어 흐느끼는것인가  
내 조국엔 바다가 넓고  
넓은 바다엔 명승지도 많건만  
장군님께선 휴식의 하루가 있었던가

언제나 험한 길 걸으시여  
락원의 넓은 길 펼쳐주시고  
삼복철강행군의 쉬임없는 나날  
땀에 젖으신 야전복이 어려와  
백사장의 해당화도 고개를 숙였구나

꿈결에도 못 잊으시던

백두산밀영의 고향집앞에서  
수행원들 사진을 남기시기를 아뢰었던만  
인민들이 더 잘살 그날에  
사진을 찍겠다시며  
끝내 한상의 사진도 남기지 않으신 장군님

삼복철바다가도  
인민을 위해 펼쳐주시고  
묘향산의 덩불길도 앞장서 헤치여  
절승의 등산길 열어주신 그 길에  
그이를 모시고싶은것이  
소원으로 된 우리 인민이거니

여기 백사장에  
별처럼 많은 행복의 자욱들이 찍혀있어도  
한자욱 장군님의 자욱은 없었다  
금강의 단풍 묘향산의 두봉화도  
기다림에 피고 그리움에 지며  
그이를 모시고싶은것이 소원이 된 산천

아,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원원수님  
인민들의 소원 산천의 소원을 헤아리시여  
물놀이장에 모셔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태양의 모습이어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바다여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물놀이장의 해당화는 영원히 붉으리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장군님 백사장에 남기신 미소는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빛나리

## 장군님 보시였더라면

리 일 섭

내 오늘도 못 잊어  
꿈결에도 못 잊어  
새 거리를 하나 일떠세워도  
새 유원지를 하나 건설해도  
장군님 모시고싶은 간절한 생각

얼마나 기뻐하셨으랴  
그이 창전거리 새집들을 보셨더라면  
친정아버지 마음안고 찾아오셨으리  
새집들이도 축복해주시며

인민모두를 이런 집에서 살게 하자는것이  
나의 소원이라 절절히 말씀하셨으리

그 얼마나 환하게 웃으셨으랴  
그이 대동강반의 새 유원지를 보셨더라면  
하늘땅에 넘쳐나는 웃음소리 들으시며  
전선길에 겹쌓인 피로 다 풀리시는듯  
인민들에게 더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라 하셨으리



진정 이 땅우에 사과꽃 만발해도  
 탐스런 황금의 이삭 물결쳐도  
 인민의 행복을 위해  
 이 땅의 찬눈비 다 맞으시며 헤쳐오신  
 장군님의 천만로고 눈물겹게 어려와  
 더더욱 그리움에 가슴젖는 마음

얼마나 뜨거운 정과 열을 바쳐오셨던가  
 이 땅우에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한가슴에 품어안고 끓는 피로 더웁혀오신  
 절세의 애국자의 그 한생이  
 오늘도 천만가슴 뜨겁게 달구어주나니

그처럼 애써 가꾸어오신  
 저 파원의 주렁진 열매들이

그처럼 품들여 세워주신  
 저 발전소의 휘황찬란한 불빛들이  
 그이의 영원한 사랑의 노래되어  
 세월의 끝까지 울려퍼지는 이 땅

나날이 커만 가는 우리 행복  
 수풀처럼 일떠서는 성공의 기념비들엔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뿌리가 되고 밑거름되어 바쳐오신  
 우리 장군님 애국의 한생이 력력히 어려있거니

오, 장군님 보시였더라면  
 그처럼 뵈고싶고 그처럼 모시고싶은  
 그 소원 그 념원 변함없이 안고사는  
 천만군민의 간절한 그리움속에  
 장군님은 천년만년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 연이 날은다

### 최 희 정

연이 뻗다  
 연이 난다  
 광명성절 이 아침  
 내 나라의 푸른 하늘에  
 연이 뻗다  
 연이 난다

하늘이 무너지듯  
 쏟아져내리던 그때 폭설속에  
 아버지장군님을 부르며  
 목메여울던  
 이 나라의 아이들  
 하늘높이 연을 띄운다

쏟아지는 피눈물에 젖어  
 하늘마저 잃었던 그 연  
 줄마저 끊어졌던 바로 그 연이  
 광명성절 이 아침 우리의 원수님  
 내 나라의 푸른 하늘에  
 참매마냥 날게 하여주신 연

손에손에 연줄을 감아쥐고  
 뛰어달리는 아이들  
 그 가슴젖는 모습들앞에  
 사람들 가던 길을 멈추고  
 눈굽을 훔치며  
 연이 나는 하늘을 우러르나니

이 땅을 열구는 추위가 아닌  
 설움에 얼었던 작은 그 가슴들에  
 가없이 맑고 푸른 하늘아래  
 움트는 봄싹같은 푸른 희망의 싹이  
 키돋움하며 솟구치는  
 해빛넘친 광명성절

그 여린 가슴들에  
 그 가슴 그 머리우에  
 가없는 맑고 푸른 하늘을 펼쳐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고마움에 눈물젖는 사람들아  
 하늘을 다시 찾은 행복의 연아

날으라  
 장군님의 환하신 태양의 그 미소  
 태양으로 눈부신 저 푸른 하늘  
 높이 날으라 더 높이 날으라  
 세상을 굽어보며 모든 꿈 이루어질  
 찬란한 래일의 하늘가를 향하여

오! 연이 날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계시여  
 천만년 무궁할 조선의 역센 기상이 닿은  
 해빛 찬란한 만리창공에  
 원수님의 사랑 연이 날은다!  
 조선의 꿈 연이 날은다!

# 혁사의 그날에

리 맥

그날도 여느때처럼  
아침은 레사로이 밝아왔다  
대동강 여울물이  
수정같이 반짝이기 시작하던 그날  
그해의 2월 19일은

변함없이 하늘은 들리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행복의 고고성을 터쳤다  
어머니의 부드러운 가슴에 안겨

그날도 그무렵  
어김없는 그 시각에  
수도를 떠난 열차는  
긴 철다리를 지나며  
교향악을 울리었다

봄비며 설레이는 출근길은  
철의 지붕과  
깊은 갭도속으로 흘러갔다  
눈석임물이 골짜기에서 소리치다  
마침내 큰 강을 따라 흐르듯이

그 누가 예감이라도 하였던가  
때이른 봄이  
마음속에 먼저 깃들던 그 시절  
동녘하늘에  
유난히도 빛나던 그 새별을 두고

누구도 알길이 없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그이께서만은 어찌하여 날마다  
온밤을 불빛아래 계셨고  
지구의에 시선을 보내고계셨는지

그이께서 그날  
우리앞으로 걸어오시었다  
예나 다름없이  
자애에 넘친 미소를 보내시며

허나 그날 그이께서  
다시 또 걸으시고 오시었다  
얼음의 산악 불의 언덕  
《트.ㄷ》로부터 시작된  
우리 혁명의 천만리길을

피에 젖은 기발  
아직은 해방전의 총포성을 울리고있는 세계  
사막의 불모태우에 삶의 꽃을 피우며  
자주의 뚝으로 래일을 그리는 인민

멈출수 없는 이 시대의  
발걸음소리를 들으시며

오, 그이께서 높이 드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영생불멸의 주체의 기치를!  
그이께서 밝히시었다  
우리 당의 최고강령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의화!

그것은 글로 된 문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태양의 빛발과도 같은 선언이었다  
그이께서  
인류의 미래를 향하여 손을 드시었다  
그것은 전진하는 대오우에 솟은 기발이었다

사람들이여  
그대는 그날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눈동자에  
비쳐주어야 할  
또 하나의 광원을 받아안은것 아니던가

무엇때문에  
그대 땅우에 태어났고  
무엇때문에 그대  
사랑하는 조국을  
가슴에 그러안고 살아야 하는가를

그날에 우리는 두번다시  
영원한 삶의 노래를 가슴에 소중히 지녔다  
누리에 이룩하여야 할 그 모든것  
권리와 운명도 축복받은 미래도

그해 2월 19일은  
세월과 비바람으로는  
지울수도 허물수도 없는 금문자로  
새 세기의 력사우에 새겼다

그날에 인류는  
새 세기의 향도성을 바라보았다  
억만의 별들이 따르며 받드는  
주체의 태양계우에  
류달리 빛나는 향도의 별을

오, 력사의 그날에  
새 세계우에 도도히 필력이며 솟아올랐다  
영생불멸의 혁명기치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의화의 강령이!

주체73(1984).



# 비날론

한 철 순  
그림 김 광 석

## 1

밤! 깊은 밤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집무실안에는 바늘떨어지는 소리도 들릴듯싶은 고요한 정적이 흐르고있었다.

넓은 집무탁우의 한쪽옆에는 이미 보신 문건들이 수북이 쌓여있고 가운데에는 두툼한 문건이 펼쳐진채 놓여있었다.

문건의 무수한 글자들속에서 《비날론》이라는 세글자가 커다랗게 확대되어왔다.

집무탁우에 두손을 올려놓으신채 《비날론》이라는 글자만을 줄곧 내려다보시며 김정일동지께서는 끝없는 사색의 심연속에 드시어 주위세계를 감감 잊고계시었다.

《수령님! 이 비날론이 어찌 일개 과학자의것이겠습니까? 수령님께서 이름없는 과학자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생사를 판가리하는 전쟁판에서도 실험기구와 시약, 실험조건들까지 다 보장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람세찬 룡홍벌의 갈대숲을 헤치시며 몸소 공장터전을 잡아주시고 이런 훌륭한 공장을 꾸려주시고... 수령님! 이 비날론이야말로 아버지수령님의 비날론입니다!...》...

뜨거운 환희와 끝없는 감격에 목이 짹 메인 갈린 목소리... 그때, 리승기선생의 말이었지... 그때 리승기박사의 말을 들으시며 우리 인민에게 좋은 옷을 해입히시려고 바쳐오신 수령님의 로고를 집약한 웅은 말이라고 눈물겹게 긍정하신 김정일동지이시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일꾼들이 그 공장이 전망이 없으면서 축소하려 하고있다. 10년나마 공장이 생산을 못한다든 설비들도 다 낡았다는것이다. 전망이 없다는데 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문건우에 장명호의 갸웃한 얼굴이 떠올랐다. 리승기박사가 생전에 아끼고 사랑하던 제자들중의 한 사람, 로동계급출신으로 화학공업대학을 다니다가 미제가 도발한 판문점사건때에 용약 최전연초소에 달려나갔던 그는 제대된 후 비날론을 발전시키겠다면서 고향 평양에도 가지 않고 2.8비날론연합기업소에 달려갔다. 로동자로 일을 시작한 그는 사포공업대학(공장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대학교원으로 일하면서 해박한 지식과 끝없는 정열로 하여 화학공업분야에서 한다 하는 교수, 박사들의 인정을 받았고 그후 실력가형의 지배인으로 자라났다.

지난해 화학공업대학을 돌아보실 때 비날론공업과 화학공업발전추세에 대하여 사관을 가리키며 정열적으로 하던 그의 해설을 주의깊게 들으시며 다방면적인 학식과 능숙한 경영관리능력을 파악하신 김정일동지이시었다. 그때 그이께서는 이런 실력가들을 수많이 키워낸 리승기선생에게 마음속의 감사를 보내시었다.

그런 장명호가 이런 공장축소안에 동의했다는것이 잘 믿어지지 않으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문건에서 《비날론》이라는 세글자에 붉은색연필로 동그라미를 친하계 그리시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한동수로인의 길쭉한 얼굴이 떠오르시었다.

《장군님! 이젠 됐습니다. 우리 <2.8> 이 이젠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작을사한 두눈이 아예 불을 정도로 기뻐서 울며웃던 로인! 키도 얼마 크지 않고 목소리도 가는 그를 두고 《공장의 살아있는 력사》라고 불렀다. 근 50년간을 설비관리원으로 일해온 그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화학공장설비들에 대해 모르는것이 없어 로동자들과 일꾼들의 존경을

받고있다고 했다.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불수강배관 한토막, 불트 한개라도 잃어버릴세라 정히 관리해서 그대로 보존한 애국자이기도 하였다. 한때 리승기박사의 조수로도 일하면서 남다른 인연을 맺어온 한동수로인이 이 축소문건을 어떻게 생각하고있을가?

김정일동지께서는 움쭉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창문가로 다가가시였다. 창문을 활짝 열어제끼자 맑은 공기가 확 안겨들었다. 그러나 가슴은 여전히 답답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저 멀리 금수산기념궁전(당시)쪽으로 눈길을 보내시였다.

《장군! 무슨 일이요? 신색이 밝지 못하구만…》

아득한 우주공간을 타고 조용히 울려오는 음성에 그이께서는 웃음을 여미시였다.

《수령님!… 제가 지난 2월에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돌아보면서 공장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해보라고 과업을 주었는데… 실태료해조가 공장축소안을 제기하였습시다.》

《공장축소안올?!…》

무척 놀라시는 수령님의 음성…

《음— 그러니 공장이 전망이 없다는건가?》

《그렇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 나라가 흥하였을 때를 보면 〈2.8〉이 용을 쓸 때였소. 〈2.8〉은 전국의 중화학공장들에 원료를 보장했고 수백가지 인민소비품을 생산해냈거던.… 〈2.8〉! 〈2.8〉이 중요해!…》

김정일동지께서 수령님의 말씀에 심취되어 귀를 기울이시였으나 우렁우렁하신 그 음성은 더 들려오지 않았다. 그제서야 그이께서는 어느새 수령님과 마음속의 대화를 나누시였다는것을 느끼시였다.

어느덧 동견하늘에 려명이 깃들기 시작하였다.

짧은 여름밤이 벌써 다 지나가버렸다. 그리고보면 이밤도 꼬바기 지새운셈이다. 정원의 갓가지 나무잎들에 이슬이 함뿍 돋은것을 보니 오늘도 폭양을 쏟아부을것 같았다. 탁상일력을 보시니 8월 5일이라는 수자가 안겨왔다. 아직 새날의 탁상일력을 번져놓지 않았신것이다.

오늘은 8월 6일!…

삼복중에서도 제일 무더운 중복과 말복사이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무리 날씨가 무덥고 피곤하더라도 당장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 내려가 정말 축소하지 않으면 안되는지 돌아보아야겠다고 결심하시였다.

## 2

장명호는 요즘 차도 타지 않고 머리도 몇몇이 쳐들지 못하고 다녔다.

마주오는 노동자들과 눈길이 부딪칠가봐 아니, 그들이 머리숙여 하는 인사를 어떻게 받을가싶어 그는 머리를 깃수긋한채 비날론합성직장으로 스틱스틱 걸고있었다. 갑자기 시켜면 그림자가 앞을 띄 막아섰다. 장명호는 주춤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뜻밖에 한동수아바이가 뻗치고 서있었다. 년로보 장나이를 썩 넘겨 이제는 일흔을 눈앞에 두고있지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일같이 공장에 나와 젊은 이들의 일손을 거들어주면서 잔소리하고있었다.

성미가 누긋누긋하고 체소하지만 일단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무섭게 성을 내기때문에 기업소 일꾼들도 몹시 조심스레 대하는 아바이였다.

장명호와 한동수는 함께 리승기박사의 사랑을 많이 받아온 제자들인것으로 하여 남달리 가깝게 지내왔다. 고향이 평양인 장명호가 이 공장에 빨리 정을 붙이게 된것도 한동수애의 각근한 보살핌이 작용하였기때문이었다. 한동수는 년장자로서 장명호의 총명과 지식을 사랑하였고 장명호는 만형같은 한동수의 뜨거운 인정미와 너그러움과 근면한 성실성을 존경하였다.

장명호를 바라보는 한동수의 눈귀가 경련이 인듯 푸들푸들 떨었다. 흥분을 애써 자제할 때마다 나타나군 하는 얼굴특징이다. 장명호가 죄의식으로 하여 머리를 돌리는데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가 울렸다.

《공장을 축소하겠다는 문건이 정말 올라갔소?》

《예… 올라갔습니다.》

《사실이구만. 떠도는 소문이… 그럼 그 문건을… 우리 장군님께서 보시게 되오?》

가야금현처럼 떨리는 조심스러운 목소리…

《아마… 그럴겁니다.》

《으—음—》

그의 입에서 꺼져내리는듯 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주머니에서 담배쌈지를 꺼내 앞담배를 마는 손이 경풍을 만난듯 후들후들 떨렸다.

《인주십시오. 제가 말어드리…》

장명호의 친절은 가까스로 억제하던 한동수의 격정을 폭발시키였다.

《지배인동무! 이게 어떤 공장이요? 우리 수령님께서 몸소 물웅덩이를 밟으며 갈밭가운데까지 들어가셔서 터전을 잡아주신 공장인데… 어떻게 그런 보고를 장군님께 드리오? 가슴떨리지 않습데?…》

한동수는 아스팔트도로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거울친 주먹으로 가슴을 텅텅 두드렸다. 갹빔한 얼굴에서 주름살고랑을 타고 진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아바이!》

장명호는 만류할 말을 더 찾지 못하였다.



《공장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축소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으니… 우리가 더는 장군님을 뵈을 체면이 없게 됐지. 리승기선생이 알면 땅속에서도 가슴을 칠거네.》

피타는 그 소리에 장명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제판엔 그래도 공장을 살려보겠다고 뛰어다녔지만 어찌는 수가 없기에 주저앉았던 것이다.

장명호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며 합성직장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장군님께서 문건을 보시고 무슨 결론을 주셨을가?…

장군님께 크나큰 걱정을 드렸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줄어드는것만 같았다. 문득 그의 눈앞에는 실타로해조가 조직했던 모임이 떠올랐다.

…《〈2.8〉은 이젠 낡았습니다. 리승기박사 아니, 리승기원사선생이 돌에서 비날론을 뽑아 세상을 들썩이게 한것은 우리의 자랑이지만 그건 오래전의 일이고… 공장이 조업한지도 50년이 되어웁니다. 그런데다가 15년나마 댔었으니 설비들도 이젠 낡을대로 낡았습니다.…》

로해성원의 말에 기사장이 일어섰다.

《웁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담하게 공장을 축소하고 그에 맞게 설비들도 전부 갱신…》

《기사장동무!》

장명호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번 기회에 설비들을 새로 갱신하자는 기사장의 의도는 이해되었으나(기사장은 이미전부터 그것을 주장하였었다.) 세계적인 학자였던 리승기선생의 공적을 회의적으로 대하는것 같아 몹시 언짢았던 것이다.

아니, 그보다도 실타로해조의 실무적이며 객관적인 태도에 대한 반발심이 부각부각 괴여올랐지만 어찌지 못하고 수긍해야 하는 자기의 피로운 심정이 기사장에 대한 타대로 번져졌는지도 모른다.

격동된 방안의 분위기를 해소시키려는듯 로해조의 책임일군이 온건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지배인동무!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우리 이성적으로 사고합시다. 실리적인 원칙에서 말이요.

지배인동무도 알겠지만 저런 낡은 카바이드생산공정은 현대화에로, 최첨단으로 나가는 오늘의 추세에 너무 뒤떨어졌거든. 솔직히 말해서 저런 카바이드로를 가지고서야 어떻게 〈2.8〉이 세계를 향해 나간다고 할수 있겠는가 말이요.》

장명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제 생각에는 카바이드로를 밀폐식으로 개조하면…》

책임일군이 통통한 손가락으로 책상우를 다독이며 그의 말을 막았다.

《밀폐식? 물론 개조는 해야 하오. 다른 설비들도 갱신해야 하고… 그러나… 국가적인 립장에서 생각해봅시다. 기술적문제는 둘째치고 설비와 자재, 로력과 시간… 지금 국가에서 벌려놓은 대상건

설이 얼마나 많소? 강성국가건설에 총돌격을 하고 있는 때인데… 이런 다 낡은 공정과 설비들을 놓고 제 공장만 생각해서야 되겠소?》

장명호는 그만 말문이 막히고말았다. 지금의 카바이드로를 밀폐식으로 개조하자면 얼마나 힘든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다. 그래서 개조하는것보다 새로 건설하는것이 낫다고 하는지도 모른다. 책임일군의 동정어린 목소리가 아프게 고막을 두드렸다.

《누구보다도 지배인동무의 마음이 아프겠지. 그래서 일군이 아니요?… 하지만 마음을 크게 먹읍시다. 공장을 살리지 못해 땀날 추궁을 받느니 차라리 작은 범위에서라도 비날론을 생산하는것이 나라에 리익이 되지 않겠소?》…

장명호는 그때의 울분이 또다시 꾸역꾸역 치밀어 오르는것을 느끼며 한동수의 팔을 부족해 일으켜세웠다. 이제는 어찌는 방도가 없었다.

한동수도 꺼지게 한숨을 뿜더니 도리머리를 하며 손등으로 눈곱을 훔쳤다. 잠시후 두사람은 알데히드공정열에 있는 초산공정에 들어섰다. 순간 방금전에 생산한듯 빙초산냄새가 물씬 코를 찌르며 폐부에 짙 차들었다. 비날론은 생산 못해도 식초와 소다, 니스와 염화비닐제품들은 그런대로 종합공정에서 생산하였다.

《아바이! 어떻습니까? 이달 식초생산계획은 할수 있겠지요?》

장명호의 물음에 한동수가 언짢은 어조로 대꾸했다.

《식초만 자꾸 생산해선 뭘하겠소? 비날론공장이야 섬유를 생산해야지… 식초도 래달부턴 빠듯할것 같소. 아세틸렌이 따라서지 못하거든…》

장명호는 초산공정을 돌아보고나서 밖으로 나왔다. 뜨거운 폭양이 기다리고있었던듯 정수리를 뜨겁게 내려지지도였다. 도로바닥에서 올라오는 열풍에 숨이 꺾겨 막혔다. 그는 얼굴로 흘러내리는 줄땀을 손수건으로 훔쳐내며 저 멀리 바라보이는 아세틸렌 탱크에 시선을 주었다. 겉보기에는 몹시 웅장해보여도 내장은 다 녹았다.

수천립방의 가스를 저장하게 된 탱크인데 지난 시기처럼 만기압으로 채웠다가는 언제 폭발이 일어날지 모른다. 새 탱크로 교체해야겠는데 자재가 없다. 하긴 새 탱크로 교체한다 해도 당장은 거기에 가득 채울만 한 아세틸렌가스가 없다. 뭐니뭐니 해도 아세틸렌이 많아야 폴리초산비닐을 더 많이 생산할수 있는것이다. 비닐그릇, 장화, 비옷, 니스 등도 더 생산하지 못하고있는것이 그때문이다.

문제는 카바이드이다. 카바이드가 많이 생산될수록 아세틸렌도 많아지게 된다.

그래서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카바이드로에서 두시간에 한번씩 뽑던 돌물을 30분에 한번씩 뽑으며 로동자들의 고열로동을 없애기 위해 로를 밀

폐식으로 개조하라고 가르쳐주시지 않았던가!

그런데 지배인인 자기가 일을 쓰게 하지 못하다보니 아직 밀폐식으로 개조하지 못하고있는것이다.

장명호는 후— 하고 긴숨을 내뿜으며 돌아섰다.

바로 그때 공장정문에서 곧추 뻗어와 합성직장쪽으로 꺾어드는 도로에 여러대의 승용차들이 불쑥 나타났다. 장명호는 심장이 후두두 뛰는 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에 굳어졌다. 혹시 어버이장군님께서?... 아니, 장군님께서 6개월전에 오셨었는데 설마?...

그는 승용차가 멎어서고 장군님께서 내리실 때에야 정신을 차리고 황황히 달려가 인사를 드렸다. 장군님께서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장명호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었다. 장명호는 순간에 코마루가 시큰해지고 목이 짹 메여올랐다.

삼복의 무더위를 헤쳐오시느라 수수한 반소매옷을 입으신 그이의 존안에서 땀이 흐르고있었다.

장명호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시며 도의 책임일군을 돌아보시었다.

《날씨가 보통이 아니구만.》

《장군님! 오늘 낮 최고기온이 34도라고 했습니다.》

도의 책임일군이 채양이 넓은 양산을 펼쳐드리려하자 그이께서는 손을 들어 사양하시며 그의 말에 공정을 표시하시었다.

《그런것 같소. 이 가로수들이 데쳐낸것처럼 축 처진걸 좀 보오.》

장군님께서서는 합성직장주변에 심어놓은 꽃나무들에 얼핏 시선을 주시었다가 장명호에게 눈길을 돌리시었다.

《지배인동무! 가성소다와 염화비닐생산공정을 새로 꾸렸는지?》

《예.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새로 일떠세웁니다. 지금 생산을 하고있습니다.》

《수고했소. 정말 큰일을 했소.》

장군님께서서는 장명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주시었다.

장명호는 죄스러운 표정으로 입술을 짹 깨물었다. 장군님께서 실태료해조가 올린 공장축소안을 보셨겠는데 그에 대한 내색은 없으시고 오히려 이렇듯 치하해주시니 황송스럽기 그지없었다.

장군님께서서는 그에게 지금 공장운영에서 걸린 문제가 무엇인가고 물으시었다.

《장군님! 가성소다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일떠세우고보니 소금이 제일 애로됩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생산력이 큰 가성소다공정을 새로 꾸리면 반드시 소금문제가 제기되리라는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도의 책임일군에게 대책안을 세워보라고 이리시였던것이다.

도의 책임일군이 한걸음 나섰다.

《장군님! 모자라는 소금을 해결하자면 아무래도 식용소금을 좀 조절하는것이...》

《식용소금을?...》

김정일동지께서 반문하시자 그는 자기의 대답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얼굴을 붉혔다.

장군님께서서는 무거운 안색을 지으시었다. 식용소금을 조절한다고?... 아니! 지금 인민들에게 공급하는 소금도 많은 량이라고 볼수 없는데 그것마저 조절하면 인민들이 식생활에서 고통을 겪지 않겠는가! 이 공장을 되살리자는것도 인민들의 생활을 더 높이 향상시키자는것인데 기초식품인 소금을 조절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시 장명호에게 눈길을 주시었다.

《지배인동무, 지금 염화비닐을 생산한다지?》

《예. 생산하고있습니다.》

그러자 장군님께서서는 웃으시며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됐소. 그러면 해결방도가 있소. 〈2.8〉에서 생산하는 염화비닐이 질 좋다고 평가되는데 그걸 소금과 바꿔오면 되지 않겠소?》

장군님의 말씀에 일군들은 서로 마주보며 눈들을 빙네었다. 도의 책임일군과 눈길이 마주쳤던 장명호의 얼굴에도 화색이 피어났다. 그는 한걸음 나서며 환희에 찬 어조로 말씀드리었다.

《장군님, 그렇게 되면 소금문제는 저절로 풀립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어린애처럼 좋아하는 그를 보시자 저르기 마음이 놓이시었다. 순진한 그의 모습을 보니 공장축소안을 놓고 피로와했을 마음이 헤아려지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두손으로 허리를 짚으시며 카바이드로쪽으로 돌아서시여 하늘공중으로 치솟은 굴뚝들에 시선을 주시었다.

《저 굴뚝들을 보니 카바이드를 생산하는 모양이구만.》

장군님의 말씀에 장명호는 고개를 숙였다.

《장군님, 카바이드로 세개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팔려 생산을 많이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음... 전기라... 밀폐되지 못한 카바이드로...》

장군님께서서는 혼자소리로 뇌이시며 천천히 구내를 거니시었다. 정오를 가까이 한 하늘에서는 뜨거운 태양이 불멸을 사정없이 퍼붓고있었다. 나무그늘이라 해도 별로 차이가 없는 찌는듯 한 무더위는 한중탕에 들어선것처럼 숨을 가쁘게 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또다시 연기가 솟구쳐오르는 카바이드로를 바라보시었다. 설비가 낡은것이 첫눈에도 알린다. 그래서 실태료해조도 공장축소안을 제기했을것이다. 문제는 그들이 《2.8》을 살릴

방도가 더는 없는것으로 보고있는것이다. 정말 가  
망이 없는가?...

김정일동지께서는 실태료해조에서 올린 문건의  
구절구절들을 다시 더듬으시며 공장구내를 둘러보  
시였다. 녹슨 배관들과 멋없이 서있는 합성탑들...

실태가 한심한것은 사실이였다. 마음이 무거우  
시였다. 장명호도 그래서 그 축소안에 동의했을것  
이다. 하지만... 아니! 그럴수 없다. 살릴 가망이  
없다면 다시 살릴 가망이 있게 가능성을 창조해야  
한다. 왜? 그것은 바로 이 비날론이 우리의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2.8》을 다시 살리는 문제는  
단순히 공장 하나의 운영에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수령님께서 한생 바라신 소원을 풀어드리는가, 못  
하는가 하는 문제이며 경제건설에서 주체를 세우  
는가 못 세우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수십년  
전 비날론공장이 준공되던 그날 이젠 우리 인민  
들의 입은 문제가 풀리게 되었다고, 한생의 시름  
이 놓인다고 그토록 만족해하신 아버지수령님이 아  
니시던가... 인민들의 입은 문제를 푸는것을 중  
대사로 여기시고 그리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오신  
수령님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스스로 격해지는 감정을 누르  
시며 장명호에게 물으시였다.

《지배인동무! 실태료해조가 공장이 전망이 없  
다고 했다면서?...》

《예...》

장명호는 기여들어가는듯 한 목소리로 겨우 말  
쉴름했다. 아버지수령님의 간곡한 유훈을 관철하지  
못한 자책감으로 얼굴을 들수 없었던것이다.

《그래, 지배인동무의 견해는 어땠소?》

《예, 우리도 지금의 가정소다와 염화비닐의 앞공  
정만 약간 개조하면 세계적추세인 원유에 의한 생산  
공법으로 이행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그렇단 말이지...》

김정일동지께서는 생각깊은 눈길로 그를 바라보  
시였다. 밀폐식카바이드로가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  
라고 하면서 원유에 의한 공법에 고개를 기웃거리  
는것이 유감스러우시였다. 로동계급출신으로서 군  
사복무도 하였고 대학교 나온 능력있는 일군인데  
왜 이렇게 되였는가... 공장을 살릴 가망이 없어  
신심을 잃었는가?... 그럴수도 있다. 하지만... 세  
계적추세라 해서 무턱대고 남들이 하는 식을 받아  
들일수는 없다.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우리의것을  
발전시켜야 한다. 주체를 살려야 한다. 주체... 비  
날론!...

장군님께서 문득 장명호에게 물으시였다.

《지배인동무 지금도 한동수로인네 집에 종종 가  
군 합니까?》

《예?...》

장명호는 장군님의 뜻밖의 물으심에 한순간 어  
정정해지기까지 했다. 한동수와 자기의 관계를 잘

알고계시는 그이께서 왜 갑자기 그걸 물으시는지  
알수가 없었던것이다.

《지금도 카바이드술을 놓고 자주 마주앉는가  
말입니다.》

장명호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저... 기업소일이 바빠서 최근에는... 시간  
도...》

《음... 시간이 없어 못 간단 말이지... 시간이  
없다?...》

장명호는 그만에야 머리를 떨구고야말았다. 사실  
그는 최근에 와서 자기가 따르고 존경하던 한동수  
와 점점 멀어져간다는것을 어렴풋이 느끼고있었다.  
물론 사업이 바쁜것만은 사실이었지만 어제 보면  
《잔소리》를 듣기 싫어졌기때문이라고도 할수 있  
었다. 장명호는 한달전 한동수의 생일날에 찾아갔  
던 일을 장군님께 말씀드렸다.

...문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온 한동수의 안해  
박순실의 얼굴에 반색이 떠올랐다.

《지배인이구만. 어서 들어가자구.》

한때는 비날론방직장에서 기능공으로, 혁신자  
로 소문이 자자했던 박순실이였으나 이제는 어느덧  
귀멸머리뿐아니라 온 머리카락이 하얗게 은발이 되  
고말았다. 장명호가 방안에 들어서자 한동수가 반  
갑게 맞아주었다.

《어서 오게. 임자가 올것 같아 기다리던중일  
세.》

장명호는 고개를 숙여보이며 진심으로 사죄의 말  
을 했다.

《작년에 못 와봐서 정말 미안합니다.》

《무슨 소릴... 지배인사업이 오죽 바쁠텐가? 힘  
들게야...》

한동수의 말에 장명호는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지난 기간 장명호는 그의 생일날이  
면 꼭꼭 찾아와 축하를 해주곤 하였다. 그러나 공  
장이 술을 죽인 다음부터는 다시 일어날 방도가 묘  
연해지자 일에 다몰리워 무사분주하게 뛰어다니느  
라 그의 생일날도 넘어가는 때가 많았다.

상은 소박하고 간소했다. 상앞에 마주앉으며 들  
고간 가방안에서 술병을 꺼내려던 장명호는 갑자기  
몸을 خم치하며 두눈을 크게 떴다. 갱핏하나 지성이  
흐르는 얼굴, 테가 굵은 도수높은 안경, 입가에 어  
린 선한 미소... 리승기선생의 사진이였다. 선생의  
옆에는 한동수가 서서 행복에 겨워 웃고있었는데  
젊었을 때 함께 찍은 사진이였다.

사진은 세월의 류수속에 누렇게 퇴색하였지만 테  
두리에 꽃종이를 곱게 붙인것이 첫눈에도 몹시 애  
지중지하는 사진이라는것을 느끼게 한다. 한동수가  
음식그릇을 밀어놓으며 말했다.

《오늘은 웬일인지 리승기선생의 생각이 간절해  
서... 내 생일을 잊지 않고 꼭꼭 상을 차려주던 선

생인데... 내 그래서 선생과 마주앉아 한잔 부으려던 참일세... 지배인은 리승기선생의 제일 젊은 제자였지?》

한동수의 두서없는 말에 장명호는 가슴이 찢어졌다. 리승기선생을 못 잊어하는 한동수를 보며 고결한 의리의 거울앞에 도리를 지키지 못한 자기의 모습이 비친것 같아 그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얼굴이 달아오르는것을 느끼며 그는 가방안에서 술병을 꺼냈다.

약간 불그스레한 액체안에 새끼손가락만큼 붉은 인삼이 서있는 진귀한 술이었다. 그가 술을 따르려고 하자 한동수가 만류하였다.

《흔치 않은 술이구만. 그렇지만 그건 뒤두고 오늘은 이걸 마시자구. 리승기선생이 생전에 좋아하던 우리 공장 카바이드술일세.》

한동수는 옆에 놓인 술병을 쳐들었다.

《난 언제봐야 이 카바이드술맛이 제일 좋거든.》

장명호는 술잔에 떨어지는 맑은 액체에서 물씬 풍겨오는 술냄새에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렸다.

향긋한 냄새속에 카바이드의 특유한 냄새가 연하게 섞여있었던것이다.

《허허. 자네도 이제 카바이드냄새에 얼굴을 찡그리는구만... 그제 싫으면 이걸 마시게.》

한동수는 장명호가 들고온 술병을 밀어놓았다.

《아, 아니, 괜찮습니다.》

장명호는 당황해하며 서둘러 술잔을 들었다.

《자, 리승기선생을 생각하며 들자구.》

한동수는 이렇게 말하더니 숨 한번 들이쉬지 않고 단숨에 잔을 비웠다. 잔을 내려놓는 그의 입에서는 《어-》 하는 만족스러운 소리가 길게 새어나왔다.

《언제봐야 변함없는건 이 카바이드술맛이거든. 정신이 번쩍 드는게 가슴이 막 불붙는것 같지 않나?... 허허. 자네도 이걸 많이 마셨지? 하루일이 끝나면 영양제식당에 가 피곤을 풀면서 이걸 한고뿌씩 하고 퇴근길에 오르는 재미란 참... 그런데 공장이 멎으니 이 술맛도 다 잊은것 같애...》

장명호는 가슴이 찢어졌다. 어떻게 잊을수가 있으랴! 영양제식당에서 로보용술을 앞에 놓고 동무들과 함께 열띤 논쟁을 벌리던 일들을...

그때 알데히드공정의 오동무가 알콜을 화학식으로 쓴것이 틀려 별주를 마셨지... 달아오른 가슴을 식히며 성천강유보도를 활개치며 걸던 일...

...못 견디게 그리웠다. 아무리 일을 해도 힘들지 않고 자꾸만 일하고싶었던 젊은 시절이었다...

지나간 일들을 가슴뜨겁게 추억할수록 카바이드술맛을 잊지 못해하는 한동수의 변함없는 공장애가 가슴후덥게 안겨왔다. 그랬다. 카바이드술은 단순히 로보용이기 전에 비날론생산이었고 생산의 성과는 그대로 기쁨이고 노래이고 행복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카바이드술이기 전에 공장과 운명을 같이해온 노동자들의 정이었고 열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한갓 추억으로만 남아하는가... 장명호는 자기 손으로 카바이드술을 잔에 가득 부어 지그시 내려다보다가 단숨에 쪽 마셔버렸다...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다 들어주신 장군님께서는 낮으나 심중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로동자들이 왜 그 로보용카바이드술을 그리워하는가? 그것이 바로 자기의것이기때문이요. 그들은 그 어떤 화려하고 값진것보다 소박하지만 자기의 창조물을 더 귀중히 여기거든.》

김정일동지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셨다가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힘있게 말씀하시었다.

《우리가 세계에로 나간다고 해서 남의 장단에 춤을 추어선 안됩니다. 남의 원료에 의한 비날론생산이 아니라 우리의 무진장한 원료로 공업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돌에서 비날론을 뽑는것! 바로 이것이 주체입니다. 주체이자 비날론이고 비날론이자 주체입니다. 수령님께서 비날론에 대해 그리도 만족해하시고 애정을 기울이신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 식으로 돌에서 뽑아낸 섬유이기때문입니다.》

장명호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부지런히 수첩우에서 움직이던 원주필도 멎었다. 장군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얼굴에도 흠모의 정이 한가득 어렸다.

《수령님의 전사, 수령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원유가 아니라 돌에서 비날론을 뽑고 콧수가 아니라 석탄으로 주체철을 뽑아야 합니다.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식의 비날론을 살리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장명호와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확신성있는 어조로 힘있게 말씀하시었다.

《동무들! 강성국가를 건설하는데서 <2.8>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나의 의도는 <2.8>을 원상대로가 아니라 CNC기술을 도입한 현대적인 몇쟁이공장으로 만들자는것입니다.》

《예?!》

장명호는 너무 놀라 입이 항 벌려지는줄도 몰랐다. 수행일군들도 놀란 눈길로 그이를 우러렸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경제건설은 욕망만 가지고서는 안되는 일이다. 력사가 있어야 공업이 발전한다는것은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사실이다.

더우기 십년나마 벗어섰던 공장을 원상복구만 하자 해도 막대한 품파 시간이 들게 된다.

오죽하면 제노라하는 전문가들이 공장축소안을 제기했겠는가!...

그러나 김정일동지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안목으로,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공장을 현대화하실 구상을 펼치시었다. 수행일군들중의 한 일군이



장군님께 말씀드리었다.

《장군님! 전력생산과 공급사업을 짜고들어 〈2.8〉에 전기를 충분히 보장하겠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믿음어린 눈길로 그를 바라보시었다.

《〈2.8〉을 도와줍시다. 그래서 〈2.8〉의 현대화를 짧은 기간에 끝냅시다.》

《장군님!...》

장명호뿐아니라 일군들모두가 격동된 심정으로 그이를 우려했다.

《장군님! 이젠 신심이 생깁니다. 카바이드로 밀폐식으로 개건하고 비날론을 기어이 뽑아내겠습니다.》

장명호는 흥분에 넘쳐 장군님께 말씀드렸다.

《허허. 지배인동무가 자신있어하는걸 보니 나도 기쁘오. 자, 그럼 이젠 초산공정에 들어가봅시다.》

장군님께서 앞장서 걸으시자 다급해난 장명호는 황황히 말씀드리었다.

《장군님! 거긴 안됩니다. 빙초산냄새가 짝 차서...》

《빙초산냄새가 난다? 허, 식초냄새가 얼마나 좋소. 오늘같은 날 식초를 친 시원한 농마국수를 한 그릇씩 먹으면 더위가 싹 달아날거요. 자— 여기 모인 동무들속에 식초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소?》

김정일동지께서 수행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웃음 띤 어조로 물으시자 일군들은 모두 식초를 좋아한다고 대답올렸다.

《그것 보란 말이요. 식초를 싫어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소. 자, 우리 시원한 국수를 먹으러 국수집에 들어가는 기분으로 초산공정에 들어가봅시다.》

장군님의 말씀에 수행일군들속에서 가벼운 웃음소리가 울렸다. 장군님을 안내해드리는 장명호의 얼굴에도 웃음이 어렸으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고있었다. 빙초산냄새가 짝 찼다는 일군들의 걱정은 아랑곳 없으시고 유쾌한 말씀으로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시는 한없이 소탈한 인정세계에 눈곱이 젖어들었다.

김정일동지께서 초산공정에 들어서시자 빙초산탕크옆에서 발브를 손질하고있던 한동수가 당황한 기색으로 인사드렸다.

《장군님! 이 무더운 삼복철에... 여기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장군님께서는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끝을 채 잊지 못하는 그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정겹게 말씀하시었다.

《아, 한동수동무가 아닙니까? 전번 2월에 왔다가 여섯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무척 보고싶었습니다. 이젠 나이도 많은데 일이 힘들지 않습니까?》

장군님의 다정한 물으심에 한동수는 무릎을 꿇고 앉으며 걱정을 터뜨렸다.

《장군님! 저희들을 용서해주시시오.

어버이수령님께서 세워주신 공장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이제는 공장축소안까지 장군님께 드렸으니 우리가 무슨 〈2.8〉로동계급이겠습니까?...》

한동수의 팔을 다정히 잡아 일으켜주시는 김정일동지의 가슴은 찢어지게 시었다. 자신께서 왔다는것을 알면서도 나서지 못하고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의 진심에 감동되시었다. 역시 로동계급의 목소리가 다르다는 생각이 드시었다.

장군님께서는 이 순간 웬일인지 자신의 무거웠던 심정을 이들에게 토틈놓고싶은 충동을 느끼시었다.

《문건을 보았습니다. 사실 〈2.8〉로동계급이 그 의견에 동의했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았습시다.》

장군님의 말씀에 주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장명호는 그만에야 머리를 푹 떨구고말았다.

《장군님! 죄송합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준공테프를 끌어주신 공장인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지만 공장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우리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한동수의 주름진 얼굴로 자책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을 보시는 장군님의 가슴속에 뜨거운 격정이 이시었다. 그래! 바로 이것이 당을 따라 고난과 시련을 이겨온 우리 로동계급의 목소리이다.

《난 〈2.8〉의 로동계급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문건을 보고 비준하지 않았고 공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방도를 토론하려고 이렇게 온것입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공장을 번듯하게 일떠세워 비날론을 다시 뽑읍시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장군님의 그 믿음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한동수는 허리굽혀 절을 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리었다.

장군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으시고 직장밖으로 나오시며 물으시었다.

《그래 아주머니랑 다 잘 있습니까? 젊었을 땐 한다 하는 방사기능공이었다지요?》

장군님께서 가족의 안부를 물으시자 한동수는 손등으로 눈곱을 훔치고나서 말씀드렸다.

《이젠 성쌍고 남은 돌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돼지도 기르고 손자에도 돌보면서 세월을 보내고있습니다. 로친이 절 보고 공장에 나가 젊은이들에게 자꾸 잔소리 해서 미움사지 말고 편안히 집에 있다고 지청구를 합니다.》

《허허, 그래요? 하긴 한동수동무도 이젠 나이가 그렇게 되었지요? 건강을 돌보면서 쉬엄쉬엄 일하십시오. 젊은 사람들은 오랜 로동계급이 곁에 있어만 주어도 힘이 된다고 합니다.》

장군님께서는 철계단을 내려서시며 한동수를 돌아보시었다.

《한동무가 지금도 생일날엔 리승기선생을 추억

해서 술을 붓군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군님의 말씀에 한동수는 일순 굳어졌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고통같은 피로운것이 스쳐지나갔다. 장군님의 사려깊은 시선은 그것을 놓치지 않으시었다. 한동수는 눈을 내리깔았다.

《요즘 어떤 사람들이 세계적 추세요 뭐요 하면서 별난 말들을 한다가에 마음이 뒤숭숭하고 작고한 선생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져서...》

장군님께서서는 심중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나도 들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리승기시대 가 이제 지나갔다.〉고 한다는데...》

장군님께서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힘주어 계속하시었다.

《아닙니다. 리승기선생은 비록 우리결을 떠난 지 오래지만 그가 남긴 공적은 우리 민족사에, 세계과학사에 남아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돌에서 섬유를 뽑아낸 이음있는 과학자이며 우리 수령님께서 아끼시던 귀중한 인재였습니다. 그는 가지 않았습시다. 우리 당의 품속에 있는 한 리승기선생의 공적은 비날론과 더불어 영원히 남아있을것이며 조국의 부강번영에 바쳐진 모든 과학자들의 공적과 삶을 조국은 영원히 기억할것입니다.》

《흐-음...》

한동수는 마침내 참고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다. 일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저미는듯 한 아픔을 느끼곤 하던 그였다.

《장군님! 정말 고맙습시다. 장군님의 그 말씀을 리승기선생이 들었다면...》

한동수는 목이 메어 더 말을 잊지 못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한동수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고 나서 장명호에게로 돌아서시었다.

《자, 그럼 다시 만납시다. 동무들을 믿고 가겠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 승용차에로 다가가시자 뒤켤에서있던 한동수가 허겁지겁 앞으로 나섰다.

《장군님! 이 불별에 어떻게 떠나시겠습니까? 장군님께서 이렇게 삼복철 한낮에 강행군을 하신것을 알게 되면 온 나라 인민들이 읍니다.... 잠깐만이라도 쉬시고 해가 기운 다음에 떠나주십시오.》

김정일동지께서는 팬찮다고, 자신의 걱정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승용차에 오르시었다.

잠시후 어버이장군님께서 타신 승용차는 흥남으로 내려가는 넓은 도로를 따라 촌살같이 달리기 시작하였다. 달아오른 포장도로우에서는 뜨거운 열이 지글지글 끓고있었다.

### 3

대지에는 흰눈이 소복이 쌓여있었다. 2월의 날씨는 여전히 쌀쌀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타신 차는 2.8비날론연합기업소에 달리고있다. 장군님께서서는 차창밖으로 언뜻언뜻 지나가는 공업도시의 전경을 부감하시며 사색에 잠기시었다. 이제 비날론공장을 비롯한 합흥 시내 5개 공장들을 먼저 현대화하고 이 도시의 개건도 진행해야 한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생전에 로동계급이 많이 살고 나라의 경제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이 공업도시를 매우 중시하지 않으셨던가!...

지금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가 활기에 들어섰다. 성강의 로동계급은 수령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주체철을 완성하기 위한 총공격을 벌리고있고 명하기계에서는 CNC기술의 패권을 쥔수 있는 열쇠를 마련하였다.

인민생활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2.8》에서 비날론생산을 시작하였다는 보고가 올라온것은 어제 오후였다. 장군님께서서는 파업을 준지 2년도 되나 마나한 기간에 공장을 새롭게 일떠세우고 비날론생산시운전에 들어간 《2.8》의 로동계급이 대견하여 만사를 제쳐놓고 이렇게 떠나신 길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에 도착하시자 마중나온 지배인에게 다정히 물으시었다.

《비날론생산을 시작했는지?》

《예! 그렇습니다.》

《수고했소, 수고했소.》

장군님께서서는 장명호의 손을 꼭 잡아주시며 미더운 시선으로 그를 여겨보시었다. 10년이 아니라 2년안으로 현대화해야 한다고 파업을 주실 때까지만 하여도 못내 마음이 무거우시였었다.

그러나 완강하고 이악한 이 사람은 끝내 해냈다.

《그래 지금 비날론이 어디까지 왔소?》

《예, 방사노출에 거의 이르렀습시다.》

《그래? 그럼 우리 마중잡시다. 빨리 가서 비날론이 나오는걸 보자구.》

장군님께서서는 한시가 급하싯듯 앞장서서 걸으시었다. 장명호는 한걸음 나서며 말씀드렸다.

《저... 장군님! 거기 가보셔도 비날론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화학공장은 기계공장과 달라 제품생산이 배관과 탱크안에서 진행된다는걸 알면서 도... 허허허.》

김정일동지께서는 방사직장의 열처리와 유제공정까지 돌아보시며 설비들을 살펴보시었다. 그때 도의 책임일군이 장군님께 말씀드렸다.

《장군님! 비날론이 나오자면 아직 시간이 좀 걸려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숙소로 돌아가셨다가...》

《기다립시다. 로동자들은 비날론을 뽑느라고 밤을 새우는데 우리도 함께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아예 작업장을 떠나지 않으시려는데 방사공정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시었다.

한 일군이 장군님께 다가와 조심히 말씀드렸다. 이

웃나라에서 온 손님을 만나실 시간이 다된것이다.

장군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으시였다.

《난 아무리 바빠도 비날론이 쏟아지는걸 꼭 보아야겠소. 그러니 부부장동무! 외국손님을 여기에 데려오도록 하오. 먼길을 온 손님을 평양에서 맞이해야 례의겠는데 어찌겠소? 시간이 허락치 않아 그러니 손님을 잘 리해시키시오.》

《알았습니다.》

일꾼이 활기있게 대답울리고 급히 돌아섰다. 그 광경을 우러르던 장명호는 가슴속에 솟구쳐오르는 격정을 누를길 없었다. 비날론이 나오기를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시는 아버지장군님의 그 심정이 가슴 저리게 안겨와 저절로 눈물이 나왔다. 당장이라도 비날론을 보여드릴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싶었다. 하지만 비날론중합물이 노즐구멍으로 솟아오르자면 몇시간이 지나야겠는데 어떻게 그때까지...

김정일동지께서는 안절부절하는 장명호를 보시자 가볍게 웃으시며 결심을 바꾸시였다.

《허허, 내가 너무 조급했나보오. 그럼 우리 오늘은 돌아갑시다. 지배인동무! 래일은 볼수 있을가?》

《예! 장군님! 래일은 꼭 됩니다.》

《그래, 그래... 하지만 너무 덤비지는 말라구. 16년만에 다시 비날론을 생산하자니 여러가지 난점들이 생길수 있소... 자, 그럼 우린 가겠소.》

김정일동지께서는 장명호의 등을 다정히 두드리고 무해주시고나서 승용차에로 다가가시였다.

#### 4

이밤 김정일동지께서는 숙소에서 집무를 보시며 비날론이 나왔다는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러나 아직은 소식이 없었다. 문건을 보시던 그이께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시였다.

저 멀리 평양쪽하늘을 바라보시였다. 오늘따라 수령님이 못 견디게 그리우시였다.

아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새롭게 일떠선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 함께 가시여 비날론이 쏟아지는 광경을 보여드렸으면 얼마나 좋으랴... 그런데 《2.8》에서는 왜 아직 소식이 없는가...

그이께서는 벌써 몇번째나 전화기를 바라보시였다. 그 전화기위로 장명호의 여윈 얼굴이 떠오른다. 며칠동안이나 잠을 못 자 판자뼉가 솟아오르고 두눈이 푹 꺼져들어간 모습이 가슴저리게 안겨온다. 지금도 비날론을 뽑느라 뛰여다니고있을것이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건 아닌가?... 내가 기다리겠다고 했으니 더욱 조급해서 속을 태울것이다... 그를 도와주고싶으시였다. 이제 비날론을 뽑아내고는 그를 료양소에 보내서 푹 쉬워야 하겠다고 생각

하시며 그이께서는 송수화기를 드시였다.

《〈2.8〉 지배인동무를 찾으시오.》

잠시후 현장에서 급히 달려온듯 장명호의 흥분된 목소리가 수화기에서 울려나왔다.

《장군님!...》

《아! 지배인동무요? 새벽 두시가 지났는데 잠을 못 자는구만.》

《장군님! 초저녁에 눈을 좀 붙였겠습니다. 저희들의 걱정은 말아주십시오. 그런데 장군님께서... 또 밤을 새우시면...》

격정에 끓는 장명호의 목소리가 도간도간 끊어졌다. 장군님께서 가슴이 뜨거워지시였다. 자기들은 현장에서 밤을 새면서도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걱정해주는 그 마음이 무척 고마우시였다. 그이께서는 인차 화제를 돌리시였다.

《그래 지금 비날론이 어디까지 왔소?》

《장군님! 노즐통에 이르킨 했는데... 중합물이 노즐로 올려쪼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노즐에서 나온 실도 방사공들이 미처 잡아쥐지 못합니다.》

《원인이 뭐요?》

《여러가지가 있지만 기본은 방사공들의 기능이 어긋났습니다.》

《기능이라... 음... 그럴수 있지. 그들의 나이가 보통 스물서넛이라니 일여덟살때부터 비날론을 못 뽑았는데 구경도 못한 섬유를 다룰수 없지...》

장군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 예로부터 눈에 익고 손에 선것이 일이라고 했는데 리론으로만 견습받은 방사공들이 섬유 나오는것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것은 리해할만 한 일이다. 그러면...

장군님의 눈앞에는 느닷없이 한동수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이제는 성 쌓고 남은 돌이 되었다고, 로친이 자기더러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편히 쉬라고 한다고 하던 말이 생각나시였다.

《지배인동무! 한동수로인의 부인도 한때 방사공으로 이름 떨쳤는지?》

《예, 고급기능공이였습니다.》

《그때 일하던 사람들이 지금 무얼 하고있소?》

《저... 일부는 집에서 젊은이들 시중이나 하고 일부는 시장에...》

장명호의 목소리가 낮아지더니 푹 끊어졌다.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지 못한 자책감에 잠겨있을 그를 생각하며 그이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지배인동무! 그 기능공들에게 호소하면 되지 않을까?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그들도 좋아할것이고 또 이 기회에 어린 방사공들에게 기술기능을 전습시킬수 있지 않겠소? 그들도 〈2.8〉 사람들인데 아마 가만있지 않을것ियो.》

《장군님! 제가 그 생각을 미처... 알겠습니다.》

전화는 끝났다. 그이께서는 《2.8》의 미더운 로

동계급을 그려보시며 송수화기를 놓지 못하고계시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새벽 5시! 겨울날은 아직 한두시간 더 지나야 밝게 되지만 때아닌 이른새벽에 방송선전차가 비날론도시를 누비고있었다. 차안에는 장명호지배인이 타고있었다.

《여러분! 지금 어버이장군님께서 비날론이 나온다는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비날론노즐이... 기능공들... 생산을 도와...》

네 방향으로 향한 확성기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는 토막토막 끊어졌으나 온 도시에 찌렁찌렁 울려 퍼졌다. 방송선전차가 지나가자 아파트창문들이 벌컥벌컥 열리었다.

《여보, 이자 뭐라고 했소?》

《원, 령감두... 새벽잠이 없다는 령감이 못 들었소? 지금 장군님께서 비날론이 나오길 기다리신데요.》

《뭐? 그런데 왜 꾸물거려? 빨리 나가지 았구, 혁신자방사공이였다는게...》

아파트복도에 사람들이 쏟아져나왔다.

《이보 <카바이드집>, 어서 나가자구. 임자두 옛날 1급방사공이였지?》

《아니? <알콜>은 왜 찾지 았나? 어느땐 잘 찾다가도 이런 중요한 때 빼놓다니?...》

비날론생산공정들의 이름이 지난 시기 직장들에서 일하던 기능공들의 대명사이기도 하였다.

그들이 앞을 다투어 공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뒤로 젊은 축들도 따라서고 아이들까지 달려나왔다. 녀인들의 머리우에는 음식들을 담은 버치들이 이어져있었다.

삼삼오오 떼를 지어 앞서거니뒤서거니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장명호는 눈을 슴벅거렸다. 언제나 어렵고 힘들 때면 인민들속에 들어가라!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 언제나 인민들속으로...

장군님께서는 늘 이렇게 강조하시고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을 안아오신다! 눈보라강행군, 쪽잠, 삼복철강행군, 췌기밥... 그 모 든것이 우리 인민군전사들과 인민들을 찾아가시는 길에 태어난 눈물겨운 일화들이다. 하기에 우리 인민들이 그리도 장군님을 그리워하며 그이를 따라 억척같이 강성국가건설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이 아닌가!... 장명호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무슨 일이 생기면 대중속이 아니라 우를 먼저 쳐다보곤 했고 자기의것보다 남의것에 더 신경을 썼던 지난날이 가슴을 찌르며 안겨왔다. 어려울수록 복잡하고 힘들수록 대중속에 들어가는것이 바로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일하는 일군들의 자세임을 심장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이였다....

2010년 2월 9일 아침!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 수직방사직장에서 쉬임없이 쏟아지는 비날론의 장쾌한 광경을 바라보고계시었다. 고르로운 동음... 폭포처럼 쏟아지는 비날론띠섬유...

장군님의 가슴속에서는 무엇이라고 형언하기 어려운 환희와 걱정이 소용돌이쳤다. 이게 얼마만에 나오는 비날론인가!... 어버이수령님! 이 광경을 보십니까? 비날론이... 어버이수령님의 비날론이 다시 탄생하여 소리치며 쏟아지고있습니다....

그러자 저 멀리 평양하늘에서 어버이수령님의 기쁨에 넘치신 음성이 들려오는듯싶다.

《나도 보고있소. 오늘은 정말 기쁘구만. 리승기 선생이 이걸 알면 땅속에서도 눈물을 흘릴거요.》

비날론이 다시 나온것도 경사이지만 남의 원료가 아니라 우리의 둘에서 뽑은 비날론을 보는것이 더 만족스럽소. 장군! 비날론대경사를 안아오느라 정말 수고했소, 수고했소....

《어버이수령님!...》

김정일동지께서는 목이 꼭 메여오르고 눈앞이 흐려오시였다. 비날론의 새로운 탄생을 위해 헤쳐오신 삼복철강행군길과 지새우신 무수한 낮과 밤들이 떠오르시였다. 이제는 됐다! 이 비날론에 힘을 넣어 인민들의 생활을 더 높이 향상시키자... 그이께서 비날론숨을 만져보시며 생각에 잠기시는데 지배인 장명호가 다가왔다.

《장군님!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피곤에 몰려 뻔하게 충혈진 그의 두눈에 물기가 번뜩거렸다. 그의 걱정이 그대로 옮겨온듯 김정일동지께서는 흥분어린 음성으로 물으시였다.

《지배인! 이게 우리 비날론이 맞지?》

《예, 장군님! 맞습니다.》

《분명 둘에서 뽑은거겠지?》

《예!... 그렇습니다. 장군님! 우리의 무진장한 둘에서 뽑은...》

장명호는 그만에야 걱정을 터뜨리며 들고있던 비날론숨에 와락 얼굴을 묻었다. 장군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으면... 얼마나 만족하셨으면...

김정일동지께서는 장명호의 두어깨를 와락 부여잡으시였다.

《지배인! 머리를 들라구, 땀땀이! 온 세상에 비날론의 새 탄생을 궁지높이 자랑해야지. ...》

그이께서는 흥분된 심정을 누르지 못하시며 수직방사직장에 모여선 로동자들에게로 돌아서시였다.

《동무들! 수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인민을 위해 큰일을 한 동무들에게 감사를 줍니다.》

《만세!-》

막혔던 물목이 터진듯, 요란한 우뢰소리인듯 우렁찬 함성이 방사직장안을 드렁드렁 울리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맨앞에 서서 두손을 높이 들고 울며웃는 한동수에게로 다가가시여 그의 두손을 잡



##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으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물을 그리는데서 힘을 넣어야 할 첫째가는 대상은 주인공이다. 주인공은 작품의 인물형상 집단을 대표하는것만큼 그의 성격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하는데 따라 성격형상의 전반적인 질이 좌우된다. 구성을 아무리 인간성격의 발전과정에 따라 엮으려 하여도 주인공선을 뚫구지 않을 때에는 성격들이 전반적으로 사건선에 놀리울수 있다.

구성에서 주인공은 여러 인물을 련결시키고 끌고나가는 중심에 서있어야 한다. 주인공선을 뚫구려면 작품의 기본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주인공이 주동적인 역할을 놀게 하며 다른 인물과의 관계에서도 중심에 서게 하여 그가 움직이는데 따라 다른 인물이 움직이게 하여야 한다.

성격을 위주로 하여 구성을 엮는 문제는 소설을 비롯하여 서사적요소가 많은 작품일수록 절실하게 제기된다.》

오시며 말씀하시였다.

《이젠 한동수동무도 리승기선생앞에 뽕뽕하게 댔습니다. 참, 이번에 아주머니가 큰일을 했더군요. 나의 인사를 전해주시오.》

《장군님, 고맙습니다. 이젠 로친네도 직장에 나가 기능공들을 키우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좋은 일입니다.》

장군님께서 못내 만족해하시자 주위에 선 사람들의 얼굴에 행복한 웃음이 피여났다.

장군님께서 한동수에게 다정히 말씀하시였다.

《그런데 량주가 다 직장에 나가면 생활이 일없겠습니까?》

《장군님! 나라살림이 풍성하면 집살림은 저절로 흥해질것이 아닙니까? 이제 머지않아 강성국가의 때문에 들어서겠는데 그때 오늘을 추억하면서 똥똥거리며 살아보겠습니다.》

《똥똥거리냐? 그것 참 귀맛당기는 소리입니다, 하하하!》

김정일동지의 청청한 웃음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이윽고 밖으로 나가시던 장군님께서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였다.

《동무들! 우리 이 비날론을 금수산기념궁전에 계시는 아버지수령님께 가지고 갑시다. 수령님께 우리의 주체원료에 의해 다시 탄생된 비날론을 보여드립니다.》

장군님의 말씀에 주위에 모여섰던 사람들모두가 숨을 죽이고 서있었다. 정적!... 고요!... 침묵!... 기계소리마저 소음을 멈춘듯싶었다.

《흑!-》

누군가의 흐느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이 신호라도 된듯 흐느낌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리더니 그 만에야 울음바다가 되고말았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얼마

나 기뻐...》

김정일동지께서는 눈곱이 뜨거워움을 느끼시며 정겨운 시선으로 로동자들을 바라보시였다. 언제나 수령님을 못 잊어하며 당을 따라 천만리를 함께 걸어온 그들이다. 비날론을 뽑느라 휴식도 변변히 못한 이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주겠는가....

이제 평양에 데려다 큰 연회도 차려주고 견학도 시키면서 온 나라에 내세워주어야겠다.... 당에 끝없이 충정다하는 이들에게 이 세상의 진귀한 모든 것을 통채로 안겨주고싶은것이 지금 그이의 심정 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돌아서시여 공장일군들에게 말씀하시였다.

《자, 동무들! 다시 만납시다. 공장정문을 활짝 열어놓으시오. 내가 앞으로 지나가다가도 아무때나 들릴수 있게 말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환하신 미소를 공장구내에 남겨두고 떠나시였다.

장명호는 한동수와 함께 멀어져가는 승용차행렬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아버이장군님! 리승기선생은 이 비날론을 아버지수령님의 비날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숨졌던 공장을 다시 살려 현대적으로 꾸려주시고 주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가르쳐주신 장군님의 비날론이기도 합니다. 돌에서 섬유를 뽑아 인민생활을 향상시켜주신 아버지수령님의 업적과 더불어 경제건설에서의 자주와 자립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주시여 주체섬유를 다시 탄생시켜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은덕과 헌신의 애국을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입니다!...

장명호는 아버지장군님께서 비날론을 신고가시는 평양쪽하늘가를 오래동안 바라보며 서있었다. 비날론대경사를 축복하는듯 소담한 눈송이가 2월의 명절을 앞두고 송이송이 소담하게 내리고있었다.

## 영원한 정

김혜영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사랑중에 절대적인 사랑은 부모자식간의 사랑이라고 하였다.

주고받는 정이 피줄을 타고 흐르는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혈육의 정이기때문이다.

그러나 혈육의 정도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한해 두해 세월이 흐르면 점차 식어지기마련이다.

하다면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뜨거워지고 열렬해지는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변함없이 심장속에 간직한 정도자와 우리 인민의 정은 과연 어떤것인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생활의 매 순간마다 공기처럼 호흡할수 있는 이 감정을 나는 이번 평양출장길에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

드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려관에 돌아온 그날 저녁 나는 호실에서 울려나오는 웃음소리, 말소리에 한순간 어리둥절해졌다.

무슨 재미있는 일이라도 있는게지...

며칠간 함께 생활하며 친숙해진 호실사람들속에는 어느 연구기관의 나이지숙한 연구사도 있었고 서해안의 어느 협동농장 관리위원장도 있었으며 북방도시의 예술단 극작가도 있었다.

정작 문을 열고보니 뜻밖의 광경이 나를 놀라게 하였다.

여러가지 멋진 상품들과 화려한 옷들을 저마다 몸에 대어보며 웃어대는것이 호실에서 무슨 상품전시회라도 열었는가싶었다.

《아니! 어디서 이런 상품들을 샀어요?》

내가 이렇게 묻자 그들은 평양제1백화점에서 샀다고 이구동성으로 자랑하는것이였다.

나는 색깔도 모양도 질도 좋은 섬유제품들과 특히는 녀성으로서 우리 나라 상표가 붙은 화장품들에 더욱 시선이 가 저도 모르게 경탄의 말을 했다.

《정말 멋있구만요..》

《작가선생도 래일 시간을 내서 평양제1백화점엘 꼭 가보세요... 정말 우리 장군님의 사랑이 짝 차넘치는게 이 가슴이 다 뜨거워지더군요..》

《알겠어요, 꼭 가겠어요..》

다음날 평양제1백화점으로 가는 나의 머리속에는 우리 장군님의 사랑이 짝 차넘쳐 가슴이 뜨거워만졌다는 호실사람들의 말이 떠날줄 몰랐고 백화점이 일떠선 그해에 수도의 대학생이 되어 공부를 하면서 동무들과 함께 백화점을 찾곤 하던 지난 나날들

이 감회깊이 돌이켜졌다.

하지만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우리 공화국에 대한 경제봉쇄책동으로 하여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우리 인민은 일시적인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 선군혁명령도 아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제국주의자들과의 전면대결전에서 승리만을 떨치며 전진해왔고 인민을 위한 사랑과정이 넘쳐나는 수많은 기념비적건축물들은 끝없이 일떠섰다.

이런 생각속에 어느덧 나는 평양제1백화점앞에 이르렀다.

추억의 환영을 깨뜨리며 낮익은 유리문으로 상품들을 사들고 기쁨에 넘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며 백화점에 들어선 나는 후끈한 열기와 함께 풍겨오는 상쾌한 향기속에 식료매대부터 가보았다.

홍성이는 사람들의 물결에 실려 각종 빵과 당과류, 청량음료들이 가득찬 매대앞에서 평양곡산공장, 평양밀가루가공공장, 선홍식료공장 등 공장명칭들을 하나하나 볼수록 우리 인민을 위해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걸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목이 짹 메이고 눈곱이 뜨겁게 젖어들며 생각은 더욱 깊어졌다.

애오라지 우리 인민에게 천만복을 안겨주시기 위해 달리는 야전승용차에서 쪽잠에 드시며 불편하신 몸으로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헤쳐오신 우리 장군님의 천만고생이 오늘의 이 행복을 꽃피운것이 아닌가.

우리 장군님께서 오늘의 이 현실을 보시며 기쁨에 넘쳐 환하게 웃으실 그 태양의 미소가 삼삼히 어려온다.

아, 사무치는 그리움! 달래일길 없는 이 그리움이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간대도 잊혀질수 있으랴.

여기 평양제1백화점만이 아닌 조국땅 방방곡곡 인민의 행복이 꽃피는 곳마다에서 우리는 목메여 장군님을 그린다. 인민을 위하여 일떠세우신 그 모든 창조물들마다에 아버지장군님의 영상이 어려오고 해빛같은 미소가 안겨오며 뜨거운 정이 사무쳐온다.

불현듯 우리 장군님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찾으셨던 광복지구상업중심이 떠오른다.

이 세상 좋은것은 다 우리 인민들이 쓰도록 하자는것이 자신의 구상이라시며 인민들에게 더 많은 상품이 차례지도록 하시려 평양제1백화점과 경쟁을



서사시

## 인민은 봄을 노래한다

차영도

화창한 봄기운이  
한껏 내어뿜친 이 땅에서  
새삶이  
숨결높이 약동하는 조국과 인민앞에  
내 오늘  
끓어오르는 가슴속 걱정을 못이겨  
이 봄을 들었다!

이 나라의 도시와 마을들에  
활기찬 거리와 두메산촌 곳곳에  
마치 뭉개쳐 피어나는  
봄날의 하얀 구름떼와도 같이  
감돌며 굴닐며 사뭇치는 인민의 마음이  
한마음 그처럼 경모하는 김정은동지

아, 그이는 하늘이 낸  
해쫄는 조선의 령도자!  
이 희세의 위인을 삼가 우러러  
티끌만 한 거짓도 없이  
주저도 없이 서슴도 없이  
내스스로의 량심앞에  
이 봄을 들었다!

격한 가슴에서  
쏟아지는 불  
이것이 굴이라면 시라 하겠고  
이것이 경의라면 노래라 하련만  
나는 다만 내어뿜는 이 불을  
그대로 인민의 심장마다에 뿌리련다!  
강토 삼천리에 뿌리련다!

1

하늘이 무너져내린  
이 땅에서  
아, 그 절망의 천길나락에서  
피젖은 가슴 쥐고 쓰러진 인민을  
뜨거이 손잡아 일으키시고  
때아닌 청천벽력에 기절해버린 나라를  
앞장에서 불러일으킨  
위대한 성인 김정은동지!

그이는 가장 엄혹한 피눈물의 언덕에서  
시련에 찬 조국의 무게를  
강철의 어깨에 떠메고

인민앞에 혁명앞에  
결연히 나서신 젊으신 장군  
그 거룩하신 모습이 태양이시다!

(어쩌면...  
아, 어쩌면... 우리 수령님?!)  
(어쩌면...  
아, 어쩌면... 그리도 우리 장군님?!)  
너무도 놀라움과 반가움에  
꼭 숨이 막히던 경탄!

아직은 한번도  
만나뵈지 않았건만  
인민은 첫눈에 대뜸  
—비범하시다!  
그이를 알아보았고

그이는 순간에 벌써  
뜨거운 애민의 열기  
높뛰는 애국의 숨결로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자신의 피줄을  
뿌리깊이 내리시였다

더 말해 무엇하리  
억세고도 강의한 이 나라 인민이  
자기의 심장속에  
운명의 령도자로 모신 그이

어찌 보면 그이는  
이미 일찌기도  
평범한 인민의 아들이 되시여  
인민의 마음속으로 심장속으로  
쉬임없이 걸음 다우쳐오신분!

정말로 수령복 장군복은  
우리가 타고난 복이던가  
따르리다 따르리다  
누구나의 피줄속에 노도치는  
끓는 피의 메아리...

만민이 우러르는 그 모습은  
분명히 태양  
보내시는 미소는 눈부신 해빛  
우리는 환생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그이는 인민의 마음속에  
틀립없는 수령님!  
분명히 그이는 우리 장군님!

아마도 세상에  
인민의 심장의 문을 열기만큼  
어렵고 힘겨운 일은 없으리라  
봉쇄에 끄떡없고  
강요에 불응하며  
위선엔 침을 뱉고  
불의엔 노호하는  
그렇듯 강 의하고 정의로운 인민의 심장

오직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열어드렸던  
그 심장의 문의 열쇠를 틀어쥐신분은  
이 세상에 오직 한분  
우리의 김정은동지뿐

그렇다  
그 신비로운 열쇠앞에  
인민이  
심장을 맡겨드린것이다  
가장 뜨겁고도 순결한  
정과 사랑의 대문을  
그이께 기꺼이 열어드린것이다

한번 웃으시면  
아침의 햇빛을 누리에 뿌리시듯  
온 천하가 금시 밝아지고  
삼라만상이 생기로 끓는 그 미소  
조국이며 인민이며  
삼가 그이의 미소앞에  
머리를 숙이시라

그 미소속에  
얼마나 크나큰 상실의 아픔과  
무거운 비애가 실려있는지  
이 나라 인민이 아니고서야  
그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수 있으랴

그이는 세상에서 오직  
장군님밖에 모르는분  
장군님이 힘이셨고  
장군님이 기쁨이었으며  
삶의 전부였던 그이께서  
이 모든것을 줄이에 잃으셨으니  
그이의 미소 어찌  
인민의 가슴 허비지 않을수 있으랴

아, 정녕

가슴이 저려들어 못 견디겠노라  
태양을 잃고  
기가 질려 얼어붙은 하늘도  
만리대공에 봄빛을 뿌려 다 녹이시고  
인민의 가슴도 따뜻이 안아  
봄눈처럼 다 녹여주시였건만  
자신의 가슴속 그 피눈물의 웅어리만은  
아직도 녹이지 못하시는분!

삼가 우러르라!  
그이께서 오늘  
우리 혁명앞에 혼연히 웃고계신다  
사랑하는 만경대원아들앞에서  
초도의 군인가족들앞에서  
그리고 강성원의 녀인들앞에서  
병사들앞에서 인민들앞에서  
그이는 웃고계신다

웃고계신다  
봄물이 한창 오른 통라인민유원지에서  
삽날이 번개치는  
건설장마다에서  
격전장마다에서  
그이는 웃고계신다

창공에 치솟은  
창전거리 초고층살림집앞에서  
번영하는 평양의  
천지개벽앞에서 위대한 변혁앞에서  
시각마다 걸음마다  
못 견디게 그리운 장군님 생각  
애써 내색없이 웃고계신다

하지만 그이의 사무치신 그리움은  
지심깊이 뚫어번지는  
용암과도 같으시려니  
그 용암의 지압을 누르시며  
만수대언덕 새로 모신 대원수님들의 동상앞에서  
입술을 깨무실제  
아, 발밑에 딛고서신 지구가  
오열에 떠는것을  
인민이며 보았느냐!

우리는 아직  
조국과 혁명앞에서  
이런 피눈물을  
미소로 감추신 령도자를 모른다  
삭이시기엔 너무도 응혈진 그 아픔  
잊으시기엔  
처절히도 상처깊은 인민의 가슴...

력사앞에서 한번  
피눈물을 흘리신 장군은

인민을 아신다!  
그 눈물을 속깊이 안으신 장군은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깨어져도  
절대로 품에서  
인민을 놓지 않으신다!

이것을 인민이 안다  
지금 이 시각도 막장에서  
땀젖은 착암기를 틀어쥔 탄부가 알고  
올해엔 기어이  
나라의 쌀독을 가득히 채우리라  
성실하게 땅을 가꾸는 농민들이 안다  
탐구의 밤을 지새는 기사가 안다

오, 그이와 피줄을 잇고 사는  
이 나라 천만군민의 심장속 깊은 곳에  
때없이 메아리치는 회성이여  
—인민을 위해 내가 있다!  
어깨를 걸자 팔을 끼자!  
장군님께서 말기ोग가신 인민  
그 인민을 위해 김정은이 있다!  
병사들을 위하여 최고사령관이 있다!

이렇게 인민과  
그리도 겹쳐히  
그리도 불같이  
첫상봉의 인사를 나누신분  
이렇게 병사들과  
심장을 맞대이고 통성하신 장군!

인민의 가슴에  
신념의 산악이 일어섰다  
이 열혈의 젊으신 장군  
우리의 김정은동지!  
—모시리다 모시리다  
목숨다해 모시리다!  
무궁세월이 모자라는 그 한끝까지  
정을 다해 모시리다

오, 이 나라의 집집에서  
그날부터  
밤마다 밤마다  
소리없이 베개잇을 적시며  
그처럼 뜨거웁게  
마음 베풀며  
이 백옥의 절개 인민의 절개

조선아!  
이 억척의 절개  
이 땅에 뿌리깊은  
백두의 산악과도 같은줄  
그대 억만년의 세월을 두고

가슴에 새겨두라!

## 2

인민!  
이 한마디 말속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과 사랑과 삶의 전부가 있다

우리 혁명이  
유서깊은 만경대교향집에서  
그리도 소중히 품안고  
피어린 첫걸음 내디딘  
인민!

이 나라 반만년력사에  
길가의 막돌처럼  
뚫히고 채우고 덩굴며 수모받던  
이 빛없던 날말이  
백두산위인들의  
인민사랑의 그 한평생속에서  
보석도 무색할 채광을 찾았으니

아, 마침내 수령님의 품에서  
하늘이 된 인민  
장군님의 사랑속에  
일심의 바다가 된 인민  
이 인민에게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  
자신의 전우라는  
가장 값진 믿음을 주시였다

전우!  
이 말을 우리 혁명은  
가볍게 하지 않는다  
일찌기 우리 수령님  
백두의 피젖은 기발아래서  
너무도 짜디짴 피눈물을 맛보시며  
세상고초 다 겪으실제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던 이 말

이 말은  
비발치는 탄우속에서  
동지의 죽음까지도  
주저없이 자기가 대신할수 있을 때  
비로소 심장의 교백과도 같이  
서로가  
피로써 나눌수 있는 말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  
아버이장군님과  
마지막으로 영결하시던 그날

장장 피눈물의 연도에서  
다름아닌  
전우들을 보시였다

슬픔도 같이하고  
아픔도 같이하며  
주체혁명의 준엄한 길을  
억만리라도 따라나설  
이 나라 천만군민의 대오  
혁명의 전우들을  
눈물겹도록 껴안으셨다

—생사를 같이하리라  
아무리 어려움이 절벽같고  
시련이 칠혹같이 캄캄해도  
오늘의 이 잊지 못할 전우들과  
끝까지 생사를 같이하리라  
굳은 결심  
으스스하게 깨무신 그이

그날부터 그이는  
인민과  
한치의 간격도 허용치 않는다  
그날부터 그이는  
우리의 생활속에 계신다

우리가 앓은  
소박한 극장관람석에도  
그이는 허물없이  
같이 앉아계시고  
우리가 돌리는 기대결에도  
먼지 날리는 건설장에도  
그이는 늘 곁에 계신다

바람부는  
간석지에도 눈덮인 벌목장에도  
비내리는 전호가에도 혼련장에도  
가장 어려운 곳마다에 힘겨운 곳곳에  
그처럼 친근하고 자애로우신  
동지가 되시여 전우가 되시여  
그이가 계신다

내색없는 인민의 어려운 생활도  
바닥까지 아시려고  
아직은 넉넉치 못한  
집집의 소박한 식탁에도  
그이는 항상  
가슴아파 마주 앉아주신다

인정과 사랑이 다함없이 깊으신  
령도자의 인민은  
왜서 이리도 눈물이 많은지...  
어찌 눈물이 없으랴

우리가 조여맨 허리띠를  
그리도 아파하시는 그이앞에  
생뻘가 저려드는 인민이여

그이께서 늘  
자신의 마음 다잡으시는 채찍은  
—장군님처럼 인민을 사랑하라!  
때로는 밤깊은 야전차의 쪽잡에서조차  
소스라쳐 깨실 때면  
—장군님처럼 조국을 사랑하라!  
자신을 엄정히 타이르시며  
다시금 조여매시는 신들메...

아, 그이께서 이날까지  
언제한번 장군님꼴을  
잠시나마 떠나계신적 있었던가  
떠나시여 순간이나마  
혁명의 려장을 푸신적 있었던가

야전차에 오르셔도 장군님과 함께  
전선길을 달리셔도 장군님과 함께  
그 길이 다름아닌  
인민에 대한 사랑의 길이였고  
그 길이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생을 깡그리 불태우신  
김정일애국주의의 길이였으니

그 뜻에 격하여  
그 정에 목이 메여  
김정은동지 그이를 뵈옵기만 하여도  
하늘같이 끌리는 그이 품에  
와락 얼굴 묻고  
인민이 흐느끼는것이다  
병사들이 심장을 비틀며  
불덩이같은 눈물을 떨구는것이다

오, 눈물이여  
이 나라 천만군민의  
소리없는 심장의 언어여  
자기 령도자와 피를 나눈 사람들이  
이 땅우에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일심단결의 강철덩어리를 부어낸  
기적의 눈물이여

이 눈물로 부어낸  
결사옹위의 철갑은  
그 어떤 핵탄으로도 뚫지 못한다  
그 어떤 잡된 모략으로도  
간교한 심리전의  
보이지 않는 독침으로도  
이 심장의 성벽은 뚫지 못한다

그렇다! 인간세상에  
이 눈물의 힘을 당할 힘은 없다  
그처럼 진실하고  
그처럼 열렬하고  
그처럼 아름다운 이 눈물의 의미를  
무슨 말로 대신하며  
무슨 힘으로 당해내라

우리는 지금  
가장 경모하여 따르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거룩한 모습에서  
무궁번영할 이 나라의  
눈부신 아침의 태양을 본다!  
은혜론 봄날의 태양을 본다!

조국이며 반만년력사국이며  
저기 바로 저기!  
가없이 푸른 하늘과 맞닿은  
신기루와 같은 살림집지붕들에서  
해빛에 번쩍이며  
보란듯이 열리는 창문들을 보라  
인민의 기쁨을 보라! 행복을 보라!

싱싱한 삶의 푸르름이  
한껏 내어뿜친  
이 나라의 숨결높은 이해의 봄기운은  
아지랑이 피어나는 대지가 아니라  
피끓는 인민의 심장속에 뿔뿔고있다!  
의지속에 숨쉬고있다!

오, 경애하는 그이에 대한  
한없는 매혹의 열기로  
위대한 봄을 맞은 인민  
이 땅에 해일같이 격랑치는  
민심의 파도우에  
인민의 태양으로 높이도 솟아오르신  
우리의 김정은동지!  
그이의 품에서  
그 열기높은 태양의 품에서  
누구도 인민을 떼어내지 못한다  
그 무엇으로도 인민을  
단 한사람도 빼앗지 못한다!

### 3

봄의 숨결은 드높다  
봄의 힘은 무한타  
그 숨결 그 힘을  
이해의 봄  
조선의 봄이  
온 누리에 펼친다

거대한 지구가  
통채로 뒤흔들리는 봄!  
그 진원은 동방조선의 평양  
때아닌 봄우뢰가  
무한대한 우주공간에 메아리쳐간  
여기 김일성광장이었거니

인류가 눈길 모은  
력사의 연단에서  
이 나라의 곡절많은 100년사를  
사연깊이 총화짓고  
새로운 주체혁명 100년대의 출발선을  
김일성민족사앞에 력력히도 그으신  
위대한 김정은동지!

그 엄숙한 출발선에  
야심만만한 신심을 버려안고  
세계를 향해 백승의 질주로를 향해  
두주먹 부르짖고 나선 인민에게  
그이는 명령하시었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인류의 심장을 찌르시듯  
광장을 찌렁찌렁 울리신  
그이의 강철의 음성  
기다린듯 뒤이어  
령을 받은 조선이  
큰숨을 들이키며  
폭발적으로 내달리는 소리...

그렇다!  
새봄을 맞이한 조선이  
주체혁명의 만년초석 백두를 딛고  
다시 한번 힘차게  
박차를 가하는 소리다  
수백만 총검의 대오가 나아가는  
멸적의 발구름소리 만세소리  
수령결사옹위의 우뢰소리...

보라!  
번쩍이는 포신들과  
발사대에 탑재한 로켓트들은  
어느놈이나 나서라!  
우리의 목숨이 된 이 제도를  
끝끝내 교살하려  
악을 쓰는 원수를 찾아  
머리높이 추켜들었다

무쇠이발을 옥물고  
으르렁대며 나아가는 땅크들은  
력사의 반동들의 온갖 잡소리를



우뢰와 같은 동음으로 짓눌러버리며  
이 땅우에 주체혁명의 한길을  
배심종계 열어나간다

이 정의의 힘 무적의 힘!  
이 사회주의의 힘을 위해서라면  
우리 열백번도 더 허리띠를 조이리니  
광장을 무섭게 진감하며  
금지높이 자부높이 끝없이 나아가는  
철의 흐름 불의 흐름이  
왜 인민을 이다지도 울리느냐

힘은 피속에서 솟음친다  
저도 모르게 움켜쥐는 주먹에  
피줄이 일어서는 인민이여  
이것을 위해 우리  
풀뿌리도 달게 씹어오지 않았더냐  
이것을 위해  
배고파 우는 어린것들에게  
보이지 못할 눈물도 흘리지 않았더냐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  
그 허리띠가 너무도 마음 걸리시여  
이 좋은 날 이처럼 힘이 솟는 날  
대하처럼 굽이치는 철갑의 대오앞에  
그리도 눈곱뜨거이  
오래도록 경의를 표하신것이다  
장군님 혜쳐오신 그 길에 목이 메여  
말없이 손길 높이 들어  
이윽도록 답례를 보내신것이다

사람들이여  
굳이 마음 버려먹으시라  
인민의 아픔을  
이리도 못 잊어하시는 장군을 위해  
우리 무엇을 서슴으랴  
인민을 위함이라면  
이처럼 정을 다하시는 정도자를 위해  
아낄것 무엇이며 주저할것 무엇이랴

결사의 의지가  
칼날같이 일어서는  
이 나라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피줄처럼 싱싱히도 살아오르는  
이해의 기상푸른 봄기운이여  
세계앞에 큰결을 내어디던 조선이여

보라 이 땅의 봄 조선의 봄  
인민의 봄을 보라  
소리치며 솟구쳐일어서는 평양!  
새로 선 희한한 인민극장이  
두팔벌려  
어서 오라 인민을 부르고

경애하는 그이의 미소가  
해빛처럼 함북 어린  
창전거리 해맞이식당에선  
벌써부터 들려오는  
그칠줄 모르는  
인민의 웃음소리  
생활이 춤을 추는 소리...

간곳마다  
새힘이 용솟음치는 봄!  
곳곳마다 인민의 벅찬 기쁨이  
거리거리에 굽이치고  
생활에 충만된 봄!

아, 이 좋은 봄날에  
도시에서 거리에서  
골깊은 두메에서  
파도이는 해변에서  
내 조국의 그늘없는 아이들이  
위대한 이 봄세계의 한복판으로  
와 소리치며 달려나온다

사품치는 대하가  
격랑치며 바다로 흘러들듯이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애젊은 주인들이  
경애하는 그이의 품에  
기운차게 뛰어든다  
조선의 창창한 미래의 찬란한 무지개가  
세월의 한끝까지 다리를 놓는다

—미래를 사랑하라!  
혁명은 미래를 위한것이다  
부르라 평양으로  
부르라 아이들을!

그이의 열띠신 음성  
인민의 심장속에  
불같이 뜨거이 날아든다  
날아들어 깊이도 들이박힌다  
—부르라 탄부의 아들 용해공의 아들을  
앞세우라 농민의 딸  
근로인민의 자식들을

봄 푸른 하늘밑에  
붉은넥타이를 날리며  
두고두고 한생을 잊지 못할  
그 정겨우신 그이의 부르심소리  
가슴깊이 새겨안은 나 어린 마음속에도  
눈부신 아침해님이  
눈물겹도록 솟아오르는 이 봄!

내 조용히 마음 그려보노라  
어디선가 저 멀리

이름모를 산간오지 발머리에서  
그 어느 마음어진 녀인이  
사랑하는 어린것을  
젖은 눈길 들어 바래워줄것이나

떠나보내기에 앞서 어린 자식을  
와락 껴안고  
목이 껍 메여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단정히 다시금 단정히  
고쳐매주고 또 고쳐매주었을  
아, 그 붉은넥타이가  
왜 이리도 인민의 가슴 젖게 하느냐

가는 곳이 어딘줄  
안길 품이 어딘줄  
너무도 잘 아는 인민이  
그이 계신 평양으로 그이 품으로  
달리는 마음이 산을 넘는 봄  
날으는 기쁨이 구름을 넘는 봄...

오, 이 봄을  
피끓는 심장에 끌어안은 인민이  
목숨처럼 끌어안은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한마음 따라나섰다!  
주체혁명의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조선이 따라나섰다  
앞으로! 앞으로!  
오직 앞으로 무섭게 돌진해나아간다!

×

독자들이여 내 자부하노니  
어릴적 소학교시절  
우리 말책에서 내가 배운  
용감한 내 조국의 글  
거짓과 비굴을 모르는  
정의로운 나라의 말과 글로  
나는 이 시를 썼다

아득한 옛 추억속의  
잊지 못할 단발머리선생님이  
나의 작은 가슴속에  
박달같은 속대를 심어준

그 어린 소년앞에조차 부끄럽지 않게  
내 오늘 이 시를 썼다

하물며 조국과 인민앞에  
티끌만 한 거짓과 분식도  
허용치 않은 이 시를  
내 여기서 마감하며  
아직 채 마르지 않은 붓을  
세계의 면전에  
높이 추켜들고 웨치나니

세계의 량심이여 정의여 진리여  
이렇듯 봄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나라  
이렇듯 정의롭고 깨끗한 인민의 나라  
자기 령도자와  
그처럼 허물없이 간격도 없이  
일심단결의 하나가 된  
이토록 정깊고 화목한 나라를  
감히 헐뜯는 저 파렴치한 위선자  
미제의 낮쪽에 침을 뱉으라!

그리고 조소하라 경멸하라  
이 나라 인민이 그처럼 사랑하며  
목숨처럼 껴안고사는  
우리의 이 사회주의제도앞에서  
아직도 그 어떤 《변화》의  
개꿈을 꾸고있는자들을  
인간세상 지경밖으로 내어던지라  
오물썩처럼 집어던지라!

이것이 봄날처럼 삶이 싱싱한 나라  
위대한 젊으신 장군을 모시여  
앞날이 무궁창창한 나라  
백두산무적강군의 총대로  
강성국가의 억년대들보를 엮은  
해쫄는 동방조선의 웨침이다!

온갖 원수들과 반동들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  
오, 최후의 승리를 향해 돌진하는  
김정은장군의 군대와 인민  
결사의 각오를 안고  
세계를 향해 폭풍쳐내달리는  
이 나라 천만군민의 정의의 웨침이다!



# 위인이 지닌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에 대한 빛나는 형상

고철훈

《조선문학》잡지를 펼칠 때마다 독자들은 기쁨에 설레이고있다.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다 맡기고 우러러 따르는 친근한 그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형상한 소설들이 매호마다에 실리고있기때문이다.

나 역시 소설을 즐겨읽는 독자의 한사람으로서, 문학을 전공하는 평론가의 한사람으로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른다.

지난해 단편소설들인 《우리의 계승》(윤정길, 《조선문학》2013년 제9호), 《감사》(윤정찬, 《조선문학》2013년 제10호), 《12월의 그이》(황용남, 《조선문학》2013년 제12호) 등 경애하는 원수님을 형상한 소설들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강성국가건설을 힘차게 다그쳐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해주고있다.

## 위인의 눈물은 뜨겁다

《…

마침내 머리를 든 리희호는 자기를 할머니라 불러주신 그 젊으신 부위원장님의 림름한 안광에도 맑은 눈물이 맺혀있는것을 보았다.

눈물을 안고계시는분! 눈물을 아껴주시는분!

아, 역시 이분의 심중에도 민족을 위해 사품치는 눈물이 한가득 고였구나.

김정일국방위원장님과 꼭같이…》

이것은 단편소설 《12월의 그이》의 한 대목이다.

민족의 대국상에 대한 비보에 접하여 분계선을 넘어온 남조선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리희호녀사가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뵈온 첫인상이다.

12월의 그날, 생각만 해도 절로 눈물이 앞서지만 제일 뜨거운 눈물을 품으신분, 가장 많은 눈물을 안으신분은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였다. 눈물의 떨기가 한차례 또 한차례 그이를 향해 사정없이 밀려드는 속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인민들이 가슴에 웅어리가 지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남녘인민들의 눈물까지 지켜주시였으니 위인은 눈물을 안다. 아니, 위인의 눈물은 뜨겁다.

이처럼 위인의 안광에 맺힌 눈물, 위인이 안은 눈물의 뜨거움을 발견하고 생활적으로 파고든 바로 여기에 이 작품을 성공시킨 비결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주체문학건설의 기본의 기본이다. 우리의 문학에서는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탁월한 령도자로서의 수령의 위대한 품모와 위인으로서의 인간적품모를 다같이 생동하게 그려내는것이다. 이 량자를 어느 하나에 편중함이 없이 훌륭히 형상하는것이 수령형상작품의 생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유한 생리에 맞지 않게 일부 작품들에서 탁월한 수령의 령도적품모를 그리는데만 치중하는 편향이 발로되는것은 작가가 위인의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에 대한 문학적인 발견이 없이 생활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소설을 쓰기때문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아무리 감동적인 이야기거리를 잡았다고 하여도 사실자료의 라렬에 그칠 수밖에 없으니 회상실기를 읽는것보다 감동을 주지 못하게 된다.

단편소설 《12월의 그이》는 수령형상소설창작에서 일부 나타났던 이러한 격식을 깨고 위인이 지니고있는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문학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였기에 독자들의 호감을 사고있다.

사실 눈물만큼 인간의 사상감정을 다정다감하게 드러내는것은 없다. 기쁠 때도 흘리고 슬플 때도 흘리는것이 인간의 눈물이지만 그 눈물의 진가를 누구나가 아는것은 아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눈물의 진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대국상의 나날 미여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어버이장군님의 태양상을 우러르며 흘리는 인민들의 눈물을 보시며 이렇게 결의다지시는 것이다.

《…장군님께서 이처럼 훌륭한 인민을 맡겨주고 가시였는데 두려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저 눈물을 안고 혁명을 할것이며 저 눈물로 한평생 가슴을 적시며 장군님께서 걸으신 길을 이룰것입니다.》

위대한 인간일수록 눈물을 알고 뜨거운 눈물을 안고산다. 사랑으로 맺어지고 눈물로 굳어진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의 이 모습, 소설은 눈

물의 철학으로 생활을 엮어나가고 위인이 안고있는 뜨거운 눈물의 세계를 펼쳐놓았기에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감명깊이 형상할수 있었다.

## 그리움의 정

그리움의 정은 사람들에게서 제나름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감정이다.

고향에 대한 향수도 그리움이고 혈육을 잊지 못하는 감정도 그리움이며 애인에 대한 사랑도 그리움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우리 인민들에게 있어서 그리움의 정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으며 그 정이 아무리 간절하고 사무치다 해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그리움의 정에는 비할바 못되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자나깨나 아버지장군님을 잊지 못해하시며 인민들을 따듯한 잠자리에 재우신 깊은 밤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말기고가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두고 잠 못이루시며 새날을 맞는 때가 더 많은분이다.

단편소설 《감사》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에서 수백리 떨어져있는 북성기계공장을 찾아가시는것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가고싶어하시던 그 공장을 찾아가보지 않고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으시였기때문이다. 이러한 원수님이시기에 달리는 차칸에서도 몇해전 그날처럼 장군님과 함께 이 길을 달린다면 얼마나 좋으라는 절절한 생각을 하시는것이다. 이 감정은 수령에 대한 충정이나 의무감에 앞서 뜨거운 피와 열을 지니신 참인간에게서만이 우러나올수 있는 극히 자연스럽고 가식이 없는 진심이다.

우리 원수님께서서는 바로 이러한분이기기에 감격에 어쩔바를 몰라하는 일군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동무들에게 빨리 가보라고 말씀하시는것만 같아 이렇게 왔습니다. 동무들에게 위대한 장군님의 인사도 전해 주고 새로 만든 기계도 보고싶어 왔습니다.》

참으로 아버지장군님이시자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고 원수님께서서는 그리움의 정을 안고 언제나 영원히 장군님과 함께 계시기에 우리 인민의 마음은 든든하고 조국의 미래는 창창하다.

단편소설 《우리의 계승》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북부고산지대에서 현지도의 길을 재촉하시던 김정원수님께서는 군사과학교육기관에서 일하는 로병들인 오성권과 심광진소장이 북부내륙지대의 산지를 편답하고있다는 소식을 들으시자 차머리를 돌리게 하시고 그들과 만나 눈덮인 허허등판에서 감자구이로 아침야전식사를 하신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 원수님께서서는 오성권에게 눈판에서 감자구

이를 해보니 무슨 생각되는것이 없는가고 물으신다. 오성권은 그이의 각근한 물으심에 마음이 흥그러워져서 고향생각이 났다고, 감자수확철이 오면 이런 감자구이를 재미로 했다고 기꺼이 말씀드리었다. 그러나 원수님의 생각은 다르시였다.

《장군님을 모시고 전선과 후방의 많은 곳을 다니면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런 때에 나는 구운 감자 몇알이면 한끼를 넉근히 치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수령님 생각, 장군님 생각, 항일빨찌산들 생각...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 생각으로 날과 달을 보내시였으며 수령님을 따라 백두의 설한봉속에서 싸운 항일선열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어떻게 하면 후대들에게 대를 이어 물려줄것인가를 생각하셨던것이다.

위인의 세계는 그 깊이를 가량할수 없이 심원하고 위대하다. 소설들은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생각으로 그리움의 정을 떠나가시며 사색하고 또 사색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내부적 체형세계를 깊이 펼쳐보여줌으로써 위인의 위대한 인간적품모를 감동깊이 형상하고있다.

## 일심단결의 위대한 힘

수령의 위대한 인간적품모를 보여주기 위하여서는 수령과 전사, 수령과 인민사이의 혈연적인 관계를 풍만한 생활로 펼쳐야 한다. 단편소설 《12월의 그이》와 《감사》는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구심점이 되시여 전사와 인민들속에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거룩하신 인간적품모를 격이 있으면서도 풍만한 생활을 통하여 잘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소식이 전해지자 리명박 역도놈은 《급변사태대응책》을 내돌리면서 별의 별 못된짓을 다하였으며 놈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그때처럼 또다시 《붕괴설》을 떠들었다.

놈들은 제도의 기초에 혈연의 정이 깔려있고 사회의 중심에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이라는 위대한 힘이 있어 우리 나라가 그처럼 강하고 그처럼 아름다운것을 너무나도 모르고있다. 그 위대한 힘의 중심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였고 오늘날은 천만군민스스로가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일심단결의 중심으로 받들어모시고있는것이다.

소설은 대국상의 나날 위대한 장군님을 추모하는 우리 인민들을 위해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고 분계선을 넘어온 리희호녀사를 친혈육사이에만 통하는 육친의 정으로 포근히 감싸안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간적품모를 눈물의 이야기로 잘 보여주고있다.

리희호녀사의 시점으로 텔레비죤화면에 펼쳐지는 영결식장면...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사람도 우는 평양의 거



리를 누비는 령구차행렬, 그 길을 막아나서는 인민들... 령구차는 눈길을 지나 힘겹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리희호는 길이 막힌 그 령구차의 뒤차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타고계신줄을 알수 없었다.

그 시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리지는 오열을 삼키시며 말씀하신다.

《이런 훌륭한 인민들을 위하여 나는 신발창이 닳도록 뛰고 또 땀것입니다.》

소설은 이 장면을 통하여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제도의 불패성을 힘있게 보여주고있으며 일심단결의 중심에 거연히 서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위인상을 빛나게 형상하고있다.

단편소설 《12월의 그이》가 실재한 력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간적품도의 위대성을 격이 높게 그렸다면 단편소설 《감사》는 풍부한 생활을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과 전사 그리고 인민들사이의 혈연적인 관계를 생동하게 잘 보여주고있다.

작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느 한 기계공장에 창광원과 같은 봉사시설인 강성원을 지어주신 실재한 사실을 빌어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군민대단결의 위대한 전통과 그 생활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있다.

소설에서 독자들의 호감을 사는것은 최고사령관동지의 슬하에서 자라난 인민군대지휘관들의 성격형상이다.

최한성, 그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특별히 아끼고 신임하시는 공병부대 부대장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어렵고 중요한 일이 제기될 때마다 최한성부대장을 찾으시였으며 그래서 강성원건설도 그의 부대가 맡게 되었다.

강철호중대장, 그는 또한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중대장은 청진기 신대원이 고열로 입맛을 잃어 식사도 제대로 못하기에 멸치식혜 한잔지를 원호받았지만 그 일이 사달이가 나서 결국 직무정지처벌을 받게 된다. 이들의 성격에서 좋은 점은 최고사령관동지의 뜻을 진정으로 받드는 순결한 마음이다. 최한성이 공장지배인, 당비서가 중대장의 억울한 처벌을 벗겨줄것을 간청하지만 무작정 거절하는것은 사언이 어떻게 강철호가 최고사령관동지의 뜻을 잘 받들지 못했기때문이다. 강철호중대장 역시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기에 처벌을 달게 받으며 과오를 씻기 위해 두뚝, 세뚝 일을 제킨다. 최한성이 융통성이 전혀 없는 벽창호란 말을 듣지만 그것은 최고사령관동지의 뜻을 한치도 어길수 없었기때문이다.

사심이 없고 씨원씨원한 최한성이나 강철호의 성격과 그들의 생활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의 명령관철을 위해 드립없이 투쟁하는 우리 인민군대의 정신도덕적품모를 생동하게 잘 보여주고있다.

소설에 그려진 모순아닌 아름다운 모순에 대한 이야기는 군대와 인민이 혼연일체가 되여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를 받드는 일심단결된 우리 사회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군인들은 인민들을 도와주는것을 옹당한 일로 여기면서 그 어떤 인사도 바라지 않으며 오히려 그 때문에 처벌받는것조차 옹당하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인민들은 군인들을 친자식처럼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성의를 받아주지 않는데 대하여 섭섭해하고있다. 그리고 강철호중대장이 자기들의 잘못으로 처벌받는데 대하여 안타까와하고있다. 참으로 풀기 어려운 모순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만 볼수 있는 아름다운 모순이다.

이 소설에서 잘된것은 마지막결속을 잘 마무리지은것이다. 나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작가는 생활의 씨앗을 심고 열매를 가꾸며 열매속의 씨앗을 다시 거둘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혹 보면 어떤 작가는 좋은 종자를 심어놓고서도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여 작품을 망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것은 심어놓은 종자를 다시 형상적으로 잘 다루지 못했기때문이다.

이 소설에서는 수형형상소설의 생리에 맞게 마지막형상의 마무리를 경애하는 원수님께 집중시키고있다. 그래서 군민대단결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의 문제로 격이 높게 해결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처벌을 받은 강철호중대장에게 최고사령관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강성원건설과정에 한 중대장의 처벌사건을 두고 군대와 인민들사이에 오고간 혈연의 정을 읽으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사상을 그대로 계승하고 일심단결을 천하지대본으로 하여 곧바로 전진하려는 나의 정치리념이 옳았다는것을 다시한번 확인하였읍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군민대단결의 위대한 전통은 오늘의 선군시대를 강성국가의 령마루에 힘있게 떠밀어주는 력사의 원동력이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이으신다.

《...온 나라가 선군사상의 기발아래 하나로 뭉친것—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수령님의 탄생 100돐 경축열병식에서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이 곧 사회주의강성국가라고 말한것입니다.》

군민대단결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펼쳐지던 소설이 이처럼 시대와 력사의 본질을 밝히는 무게 있고 의의있는 이야기로 번져지는것은 바로 민족의 어버이만이 지닐수 있는 크나큰 심장과 위대한 천품을 타고나신 일심단결의 구심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작품의 중심에 서계시여 모든 문제를 마무리하고계시기때문이다.

# 우리의 배낭 외 1편

박 응 전

우리의 배낭

그것은 큰 짐이 아니었다  
하나 무게는 헤아릴수 없었다  
얼마나 고귀한 뜻이 어린  
혁명의 배낭이었던가

우리 수령님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을 안고오실 때에도  
지고오신것은  
백두의 풀물들고 포연이 배인  
혁명의 배낭 하나

그 배낭을 메고 투사들  
나라의 방방곡곡에 파견되어  
해방된 새 조국땅에  
건국의 씨앗 뿌리며 가꾼  
배낭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들에게 메워주신  
항일유격대식배낭  
오늘 우리 그 배낭을 지고 포전으로 나갔다

걸어서 백리 천리를 가도  
모두가 반겨주는 낮익은 배낭  
사람들 마음속 문을 열어주고  
사람들 사상을 불러일으켰거니

우리 그 길에서  
배낭을 벗었다면 무기없는 병사  
물에 뜬 기름방울  
그 배낭을 버리면  
혁명도 대중도 자신도 잃게 되리

오, 항일유격대식배낭  
그것은 사상의 량식이 담긴  
투쟁의 무기  
뿌리면 천으로 만으로 수확을 얻는  
혁명의 씨앗배낭이었다

## 아버지의 당부

푸르러지는 봄들판으로  
당선전일군이 된 아들이  
배낭을 지고 떠난다  
70년대부터 아버지가 메었던  
항일유격대식배낭을 지고

그렇다  
혁명은 대를 이어 계속된다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  
위대한 계승의 력사적진군길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셨거니

어서 떠나거라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건설장으로  
사람들을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당정책관철의 기수가 되라

경제강국건설대전  
인민생활향상의 전투장마다에서  
화선식경제사업의 열풍을 일으키고  
인민을 위하여 손발이 닳도록 일하는  
인민이 사랑하는 일군이 되거라

당부하노니  
선전일군의 한마디 말과 행동이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고  
정신력을 폭발시키는  
진격의 나팔수 되거니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대를 이어가는 당사상전선에서  
70년대 당일군이었던 아버지당부의 목소리도  
로동당만세소리 하늘땅을 진감하는  
최후승리의 언덕에서 울리게 하여다오

소설은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 수령의 형상적위치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좋은 실천적 경험을 시사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형상을 앞으로도 더욱 훌륭히 창조하는것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원수님의 두리에 천겹만겹으로

굳게 뭉친 온 나라 천만군민이 선군의 기치높이 최후의 승리를 향해 총돌격전을 벌리고있는 오늘의 시대와 력사가 요구하는 초미의 과업이다.

우리 소설가들은 이 책임적이며 영광스러운 과업수행에 창작적재능과 열정을 더더욱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할것이다.



## 박 성 진

류대성이가 구월과수농장의 서남분장장으로 새로 임명받고 내려와서 했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분분한 논의를 일으켰다.

부임되어와서 늙은이들과 인사하면서 한다는 말이 뭐 이제부터 언제나 《진주 아버지》로 살자고 한단나?!...

류대성은 과수농장 부지배인직에서 해임된 후 3년동안 로동현장에서 진땀을 흘린 50대의 장년이다.

그런 사람이 다시 일군으로 임명받고 내려와서 다지는 결의라면 웅당 당의 신임에 사업실적으로 보답하겠다는가,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사명과 자각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기고 살겠다는가 등 격이 높은 말은 못하고 언제나 《진주 아버지》로 살자고 한다니 이게 어디 온전한 소리인가.

류대성의 외동딸 이름이 류진주이다.

그의 딸도 나이 스물을 넘기며 꽃망울을 활짝 터치였다. 그러니 이제는 그 사람이 귀한 외동딸의 성실한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만 살겠다는 소리인가, 아니면?!...

음, 음... 모를 소리야. ... 서남분장사람들은 새로 온 분장장이 했다는 그 말을 외우며 머리를 기웃거렸다.

그러나 언제나 도수안정알속에서 유순한 눈매를 습벽이는 6반장 오형국이만은 그 말에 공감하고 수긍하며 머리를 크게 끄덕이였다.

그만은 새로 분장장이 된 류대성이가 누구나 할 수 없는 쉽지 않은 결의를 다졌다고 생각하였다.

### 1

류대성은 오형국이와 죽마지우이다.

그들은 함박골이라고 불리우는 동네에서 태를 문

고 함께 자라며 중학교까지 함께 다니였다.

학교를 졸업하며 그들은 인민군대에 탄원했지만 오형국은 눈시력이 떨어져 군대가 아니라 과일전문학교로 떠나갔다.

전문학교를 졸업한 오형국이가 함박골에 자리잡은 서남분장 6반에 와서 기술부반장사업을 하며 몇년 흘렀을 때 류대성이가 제대되어 나타났다.

류대성은 첫인상에 벌써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자아내는 호남아였다.

너부죽한 얼굴에 이목구비가 큼직큼직하여 대를 이라는 느낌과 함께 서글서글한 인상을 주었다.

실한 목덜미우로 짧게 깎은 총이 센 머리카락은 언제나 패기와 왕성한 정열이 있어보였고 제식동작에 숙달된 후리후리하고 균형잡힌 몸가짐은 30전의 나이에 벌써 중량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옆으로 비죽이 나온 귀박죽이 특별히 컸는데 늙은이들은 그의 귀를 두고 명귀라고 하며 장수할 사람이라고 말하곤 하였다.

군사복무시절엔 《사관장동지》라는 존칭으로까지 불리웠다는 류대성은 고향에 돌아와서는 매우 귀에 선 《류동무》로 급작스레 변해버리였다.

류대성은 한동안 그 부름에 습관되지 않아 누가 《류동무!》 하고 찾으면 쑥쓰름한 표정을 짓곤 하였다.

그후 두불이 발그레하고 오동통한 아련한 녀자를 반려자로 맞아들인 《류동무》는 1년이 지나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것 같은 귀한 딸을 자기의 역센 팔뚝에 덥석 받아안게 되었다.

《류동무》는 가냘픈 소리로 뻑뻑 울어대며 자기의 존재를 알리는 피덩이를 쑥스럽게 내려다보며 자기도 이제는 아버지가 되었다는 이 《거대한 사변》에 넓은 가슴을 세차게 들먹이였다.

《류동무》는 딸의 이름을 놓고 동무들속에서

현상응모를 했는데 그때 오형국은 귀하고도 값비싼 보석인 진주를 그 애 이름으로 달아주자고 제기하였다.

류대성은 그 이름을 몇번 되뇌이더니 쌍수를 들어 찬성하였다.

그는 딸에게 《류진주》라는 이름을 달아주며 진주보석처럼 딸의 인생이 가치가 있고 소중해지기를 바라마지않았다.

그런데 《진주》라는 이름은 딸보다 먼저 아버지인 류대성의 인생을 진주보석의 은근한 후광속에 감싸주는듯 했다.

류대성은 《류동무》라는 부름과 작별하고 급기야 《진주 아버지》로 되어버렸다.

처음으로 《진주 아버지》라고 불리워지던 날 류대성은 그답지 않게 면구스러운 표정을 짓고 생각 깊은 어조로 입을 열었다.

《누구네 아버지라고 불리워지게 되니 가정앞에서나 사회앞에서나 어깨가 더 무거워지누만. …》

함박골에서 류대성은 《진주 아버지》로 불리워지기 시작하였다. 동네 늙은이들로부터 시작하여 동무들도 그렇게 불렀고 세포비서와 나이지숙한 반장은 공식석상에서까지 때로 《진주 아버지》라고 불렀다.

가시어머니는 그 호칭을 좀 간략해서 《진주 아비》라고 불렀고 분장소재지에 살고있는 그의 어머니는 아예 아버지란 부름은 생략해치우고 《진주 있냐?》 하고 찾기도 했다. 류대성의 처도 남편과 동등하게 《진주 어머니》로 불리웠지만 그래도 《진주》를 더 많이 차지한것은 사업권이 넓은 아버지였다.

《진주》는 류대성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다.

작업지령 주는 마당에서도 반장은 《진주 아버지 책임지고 오늘은 시약작업 하시오.》 한다든가 《진주 아버지 오늘 수리분조에 가야겠소.》 하며 꼭꼭 《진주》를 찾았다. 그뿐인가. 진주 아버지가 오늘실적이 높다든가 오후엔 뭐가 잘못되었다든가 하며 《진주》는 칭찬도 힐책도 제일먼저 받아야 했다.

《진주 아버지》가 되면서부터 더욱 처신에서 자중하고 진중해진 류대성은 의협심이 강하면서도 자기를 돈구는 일이 없이 대중속에 스스로없이 섞였다.

당시 기술부반장이던 오형국은 어느날 포전에 나와 정아바이의 실적을 일보에 올리다가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다.

얼굴이 길쭉하면서도 해벌에 타 검실검실한 정아바이는 달구지에 진거름초통을 올려놓고나서 정색해서 입을 열었다.

《내 오늘실적에서 절반은 진주 아버지에게 올려주게.》

《예?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오형국의 도수안경알속에서 작은 눈이 의아해 찡뻛거렸다.

정아바이는 20리 떨어진 읍에서 달구지로 진거름을 날라오는 50대의 아바이였다. 1년 열두달 거의 20년간 그 일을 맡아해오고있는 근실한 사람이다.

그런데 어제 시간을 받고 가시어머니의 60蠡생일에 떠나간 류대성이 이 아바이 일에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정아바이가 키낮은사과나무그늘속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더니 말을 이었다.

…읍에서 400키로 잘되는 진거름을 통에 싣고 떠 나온 정아바이는 5리도 못 와서 난처한 일에 부닥치게 되었다.

떠날 때부터 황소의 거동이 편안치 않더니 점점 세계 뒤편을 절기 시작한것이다.

엇저녁 한 종업원에게 소를 빌려준적이 있는데 그때 무슨 사달이 난게 분명했다.

자칫하면 로상에서 소를 메쳐놓을것 같아 겁이 더럭 난 정아바이는 난감한 얼굴로 서성거렸다.

(어쩐다?! 일도 참…)

그때 옆에서 자전거의 급제동소리가 울렸다.

《정아바이군요. 왜 그러고 서있습니까?》

돌아보니 자전거를 세운 류대성이 시뭇이 미소 짓고있었다.

산뜻한 나들이옷차림을 한 류대성의 뒤에는 해죽거리는 진주를 엮은 그의 처가 서있었다.

《음, 임잔가. 뭐 대사에 갔다더니?》

《예. 지금 오는 길입니다. 헌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정아바이는 자전거에서 내려선 류대성이앞에 상심한 표정을 지었다.

《참, 이 미물이 다리를 저네. 그래서 진거름을 저 웅덩이에 버리고 빈달구지로 갈가 하구 생각중이네. 암만 봐야 안되겠어. …》

다가온 류대성이 소고삐를 잡고 《이라!》 하며 몇걸음 움직여보더니 정아바이를 기대어린 눈길로 마주보았다.

《이왕 품들여 모은 진거름인데 끌고갑시다.》

《영?! …》

류대성이 처에게 다가가 자전거를 끌고 먼저 떠나라고 이르고는 팔소매를 걷어올리며 다시 다가왔다.

영거주춤 서있던 정아바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임자 어찌자는건가?》



《내가 뒤에서 밀겠습니다.》

정아바이는 큰 변이 난듯 허거픈 얼굴로 똑살배긴 거울진 손바닥을 뒤흔 내저었다.

《그러지 말게! 이건 내 임무야! 임잔 어서 떠나게.》

《고개를 두개씩 넘어야겠는데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류대성이 고집스레 버티자 정아바이는 술한 사람들이 오고가는 도로를 두려운듯 바라보며 사정하듯 입을 열었다.

《제발 날 웅색하게 만들지 말게. 이런 험한 일은 자네같은 〈신사〉들이 다칠 일이 아니야. 우리 애들도 도로에서 날 만나면 생판 남남인척 해!》

《아니, 건 왜요?》

《이런 달구지나 끄는 제 애비가 창피한 모양이지. 내 젊은 사람들 맘을 이해한다구. 자, 어서 가게! 어서!》

류대성이 어이없이 미소지었다.

《참 아바이두, 내 군대때 부업지에서 이런 일을 한두번 해본줄 압니까. 이런 일을 천하게 보며 술을 피해서는 사람은 밥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잡시다. 이랴!》

나른한 얼굴로 서있던 황소도 힘을 얻은듯 뒤통뒤통 발통을 억척스레 옮기기 시작했다.

얼마 안 가서 재잘거리며 자전거를 타고오던 물찬 제비같은 처녀들이 갑자기 병어리가 되어 마치 오염구역이나 지나듯 코를 싸쥐고는 획-획 지나갔다.

그러나 정아바이는 지난날 그런 때마다 받아안던 자신이 왜소화되는듯 한 허전한 심정을 느끼지 못하였다.

도련님처럼 깨끗하게 생긴 류대성이 《신사》차림으로 《이랴, 이랴, 어서 가자!》 하고 호기있게 웨치며 따라오고있는것이다.

고개를 오를 때 진거름 말라붙은 그 험한 달구지 뒤체는 류대성의 산뜻한 나들이옷 어깨에 억척같이 떠받들려 밀려올라왔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오형국은 자신을 돌이켜보았다.

그도 읍에 있는 기업소에 자주 회의를 오가는 길에 적지 않게 정아바이와 만나곤 하였다.

그때마다 수고한다는듯 머리 한번 끄덕이며 지나쳤지 언제한번 자전거를 세워본적 없다.

왜? 정아바이 말대로 창피해서? 솔직히 그런 심리가 작용한것 같았다.

하지만 진주 아버지는 옷에 불패한 냄새가 배인 푸수한 정아바이와 서슴없이 함께 걸으며 말은 일을 끝까지 수행하도록 이끌어주지 않았는가.

오형국에게 있어서 지난 기간 류대성의 인간됨을 알게 하는 일화들이 적지 않았는데 그중에서도 잊혀지지 않는것은 고난의 행군시기의 어느해 5.1절을 맞으며 진행되는 체육경기때였다.

체육경기를 며칠 앞둔 어느날 저녁 젊은 농근맹 위원장은 선수들이 배구경기에 출전하여 입을 체육복준비상태를 보자고 하였다.

과학기술지식선전실에 펼쳐진 체육복들은 각양각색이었다.

농근맹위원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진주 아버지를 비롯한 선수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허 이런, 체육복이 좋지 못하군요. 집단의 단결력을 시위하기 위해서도 하나같은 체육복을 준비해야겠는데... 누구 무슨 궁냥이 없소?》

농근맹위원장의 기대어린 눈길이 류대성에게 가 닿았다.

류대성은 짧게 깎은 머리를 무겁게 끄덕였다.

《예, 제가 좀 노력해보겠습니다.》

그 한마디뿐이었다.

그후 류대성이 부족되는 종업원들의 체육복을 해결하기 위해 수십리밤길을 두번씩이나 오고갔다는걸 오형국은 경기당일날에야 알게 되었다.

류대성이 남모르게 헌신한 덕에 하나같이 단정하고 깨끗한 체육복을 일제히 펼쳐입고 경기장에 입장한 6작업반팀의 생기발랄하고 약동하는 모습은 수백명의 이목을 한순간에 집중시켰다.

충천한 기세로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은 첫 종목에서부터 순위권에 런속 들어가며 사람들을 놀래웠다.

그날 그닥 자신심이 없이 장거리육상경기에 출전했던 함박골의 토끼사양공처녀는 진주 아버지가 힘과 용기를 주며 입혀준 산뜻한 진곤색나이론체육복을 진땀으로 폭 적시며 영악스레 달리고 또 달려 세번째로 결승선에 들어서서 희한한 광경을 펼쳐놓았다.

아홉개 팀이 참가하여 치열하게 벌어진 체육경기에서 6작업반팀은 예상외로 종합 2위의 순위권에 들어감으로써 상으로 받은 60키로그램짜리 돼지를 처음으로 선전실마당에 메쳐놓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흥분과 환희, 기쁨에 휩싸여 왁작 떠들며 봄비는 종업원들의 그 모습속에 바로 만시름 잊고 미소짓는 류대성이 있었다.

그날 사람들은 누구라 할것없이 류대성을 칭찬하며 기뻐들 했다.

그후부터 사람들은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자기들과 한마음, 한모습으로 있는 진주 아버지를 즐겨찾았다.

구수한 담배연기를 모록모록 피워올리며 그 큰 귀로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허심하게 공부정도 해주는 서글서글하면서도 불임성이 좋은 진주 아버지를 사람들은 좋아했다.

그러나 류대성은 누구나 친근하게 부르던 《진주 아버지》란 그 부름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담은 소중한 메아리임을 그때는 다 알지 못했다.

류대성은 그때로부터 1년후 《진주 아버지》란 그 호칭과 작별하였다.

년로보장을 받고 들어간 전 작업반장의 후임으로 그가 서남분장 6반장으로 임명된것이다.

그때 누구보다 먼저 축하해주고 기뻐한 사람이 오형국이었다.

## 2

류대성이 작업반장으로 임명되면서 《진주 아버지》라는 생활적인 부름은 《반장동지》라는 공식적인 존칭으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류대성을 《진주 아버지》라고 계속 그렇게 부르고싶어했다. 그를 다르게 부르면 살 발은 혈육처럼 허물이 없던 그를 잃는것만 같은, 자기들과 간격이 생기고 멀어지는것만 같은 그런 심리가 은연중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오형국은 그때 늘쌍 입에 올라있던 《진주 아버지》란 부름을 자기자신부터 당장 추방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진주 아버지》란 호칭도 친근한게 좋지만 그 생활적인 부름에 집단이 원대없는 떨기나무처럼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오형국은 류대성이 비록 초급일군인 《반장동지》가 되었지만 모든 종업원들의 애칭이던 《진주 아버지》란 그 부름만은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살길 바랐었다.

오늘의 초급일군 류대성의 근본은 바로 수년세월 함박골사람들의 마음속에 친근하게 자리잡고있는 《진주 아버지》인것이다.

함박골에서 《진주 아버지》란 부름은 점점 사라져갔다. 동네늙은이들속에서 간혹 튀어나오던 《진주 아버지 말일세.》하는 말투도 《여보게, 반장동무 말일세.》하며 바뀌더니 《반장동지, 나 좀 봅세.》하며 격이 높아졌다.

류대성도 점점 《반장동지》라는 존칭에 습관되어 누가 얼굴에 《진주 아버지!》하고 찾으면 못 들은 소리를 들은것처럼 미간을 좁히곤 하였다.

오형국은 류대성의 행동거지가 반장동지답게 진중해지고 처신이 신중해지는데 대해 자연스럽게 생

각하였다.

류대성은 당시 일하면서 농업대학에 다니며 실무에서도 막히는게 별로 없는 실력가였다.

오형국은 함박골사람들이 쉽지 않은 사람을 반장으로 잘 만났다고 늘 생각하였다.

그러나 생활은 그가 생각했던대로만 흘러가지 않았다.

신록이 짙어가는 어느 여름날이었다.

형국은 저녁녘이 가까와오며 해빛이 설핏해질무렵 류대성의 집을 찾아갔다. 그날은 휴식일인데 작업반의 정아바이의 생일날이었다.

정아바이는 형국을 찾아와 《요즘 다 어려운 때이니 차린건 변변치 않네.》 하며 반장과 함께 오라고 꼭진히 당부하였다.

오형국은 정아바이에게 한잔 부어올릴 술 한병을 바지 뒤주머니에 비축이 넣고 류대성을 찾아갔다.

마침 몸매가 미출한 류대성이 거대에 마주서서 억센 턱을 이리저리 쓸며 면도를 하고있었다. 그가 거울을 통해 들어서는 오형국을 띄어보고는 《마침 오는군. 그렇지 않아도 가면서 찾으려던 참인데.》 했다.

오형국은 정아바이가 반장에게도 편락을 띄운것으로 알고 노란 장판바닥에 앉으며 입을 열었다.

《정아바이가 정말 극성이더군. 지금 다 힘들겠는데.》

면도하던 류대성이 의아해 돌아섰다.

《부반장, 지금 거기 가자구 왔나?》

《그럼?!... 오늘이 그 아바이 생일이 아닌가.》

《알지, 그렇다구 꼭 가서 축하해줘야만 멋진가.》

오형국의 도수안경알속에 두눈이 커졌다.

《아니, 그럼 지금...》

류대성이 면도칼을 접으며 의미있게 물었다.

《지금 부반장 사업한지 얼마 됐던가?》

오형국은 얼떠름해졌다.

《갑자기 그건 왜?... 한 7~8년 됐지.》

류대성이 가볍게 힐책했다.

《헌데 아직 자기 상관 생일도 모르고있다니?!... 오늘이 지배인동지 생일이더군. 이제 자전거 끌구 슬슬 가세.》

오형국은 그 순간 정아바이의 수더분한 얼굴이 떠올라 난색을 지었다.

《허, 정아바이가 기다릴텐데...》

그가 혼연히 대꾸했다.

《내 그래서 처에게 닭 한마리 보내려네. 고정한 그 아바이가 꼭해하지 않게.》

《그래 지배인동지한테 초청은 받았나?》

《초청은 무슨... 우리가 찾아가 아래사람도리를

하면 되는거지.》

《?!...》

《그리고 종업원들이 알아야 할건 우린 결코 함박골에서만 댄돌수 없는 일꾼들이네. 내 반장사업 이래째 해보니 옷사람과의 사업도 중요하더군.》

오형국은 왜서인지 그 말이 공감되지 않았다.

그래도 초급일꾼이라고 자기들을 기다리고있을 정아바이의 수더분한 모습만이 계속 눈앞에 열른 거렸다.

오형국은 착잡한 얼굴로 주머니에서 담배쌈지를 끄집어냈다.

말지를 펴들고 노르스름한 잎담배를 마는데 세면하고 들어온 류대성이 그 모습을 보며 왜서인지 서글픈 표정을 지었다.

그는 고급담배 한갑을 꺼내 오형국의 무르팍에 가볍게 던져주었다.

《자, 그걸 피우게. 거기 가서도 그런걸 부시럭 대겠나. 술한 사람들이 오겠는데...》

오형국이 고집스레 입을 열었다.

《왜, 우리 함박골 잎담배가 어째서?》

《흥, 그 북데기담배가 바로 우리 함박골 일꾼들 얼굴이구 문명수준이야. 고집부리지 말구 이젠 그런 담배로 습관되게.》

오형국은 도수안경을 번뜩이며 난감한 표정을 짓고서 도리를 저었다.

《허식이야! 괜히 사는데 하면서... 남들이 어떻게 보든 제것 가지구 당당하구 소박하게 사는데 좋지. 지금 누구나 다 그렇게 살지 않나.》

류대성이 의자에 앉아 고급담배 한대를 뿔아물며 씹스름히 미소지었다.

《물론 소박한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소박성을 비웃으니 문제지. 그 소박성을 혁명성으로 인정해주는것도 없구. 전번에 회의 가서도 보니 우리 자전거가 제일 낡아보이더군. 내 그때 무슨 생각을 한줄 아나? 이젠 일꾼이 됐으니 톱탑하던 〈진주 아버지〉 때를 벗어야겠다고 생각했네.》

오형국은 그만 아연하여 잘생긴 류대성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단계 《발전》한 그의 사고가 놀라왔다.

물론 종업원모두가 어려운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향유할 때 우리라고 부디 그 생활을 마다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아직은 어렵다.

이 어려운 강행군길에서 혁명의 지휘성원들에게 중요하게 제기되는것은 무엇인가.

이신작칙, 조직력, 내밀성인가. 아니면 인정미인가. 그래 어느것 하나 소홀히 할 문제가 없다.

그러나 거기서 가장 중요한것은 자기의 종업원

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한모습이 되는게 아니겠는가.

《류행복》입은 사람과 《전투복》입은 사람은 한전호에서 어울리기 힘들다. 생각이나 지향은 더우기나 일치될수 없다.

그런데 종업원들과 같이 시약냄새나는 옷을 입고 같은 함박골의 잎담배를 태우며 탁배기보시기도 함께 들던 그 소중한 《진주 아버지》의 모습에서 벗어나려들다니.

기장발에 나온 콩대는 김으로 취급당하기마련이다.

오형국은 자기의 마음속에 찢트는 그에 대한 불신이 두려웠다. 그러나 생활은 오형국이 바라는 대로 그 불신을 가시여주지 못하였다.

날이 가면서 류대성은 《반장동지》답게 사고하고 처신했다.

수입산자전거가 번쩍거렸고 집안에서는 록음기 색등이 까불었다.

좋다! 우리의 생활이 향상되는건 좋은 일이다.

우리는 응당 고도로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지향해야 한다.

문제는 어디 있는가.

일부 일꾼들의 그 생활이 노동자들과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는데 있다.

그 심각성은 일꾼들의 그런 류다른 모습이 대중의 창조적극성을 무디게 한다는데 있다.

그후 얼마 안 있어 류대성은 농장 생산과장으로 소환되어 올라가게 되었다.

오형국은 그것을 매우 서운하게 생각하였다.

어쨌든 소꿉시절부터 시작하여 《류동무》, 《진주 아버지》, 《반장동지》로 있을 때까지 코맛대고 함께 있지 않았는가.

그는 또한 오형국의 입당보증인이기도 하였다.

그가 소환되자 반장사업은 오형국이 인계받게 되었다.

류대성이 떠나간 후 그의 체취가 느껴지는 작업반구내를 돌아볼 때마다 오형국은 웬일인지 그의 모습이 《반장동지》의 모습이 아닌 《진주 아버지》의 모습으로만 계속 열른거렸다.

### 3

류대성은 《과장동지》가 되어서도 《진주 아버지》로 사회생활의 첫시기를 보낸 함박골을 잊지 않았다.

서남분장에 내려왔다가도 함박골에 자리잡은 6작업반에 꼭꼭 들리였고 비료나 농약 같은것도 더 많이 할당되도록 원심을 쓰곤 하였다.

오형국도 류대성에 대해서는 각별한지라 그가 서

남분장에 내려오면 자기 집에서 소박한 식사라도 하고 가도록 언제나 관심을 돌리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 각별하게만 흘러간게 아니었다.

서로의 인생관이 다르면 아무리 막역한 사이라 해도 언제든지 금이 가기 마련이다.

들크무레한 향기를 풍기며 호합진 과일들이 무르익는 가을날이었다.

코스모스가 미풍에 흐느적이고 고추잠자리가 포롱포롱 날아에는 포전길로 오토바이의 발동소리가 기세 좋게 울리더니 과일들을 무저놓은 포전선전실마당으로 류대성이 나타났다.

둘러앉아 사과알들을 선별하여 지함에 넣던 종업원들이 각이한 표정으로 오토바이에서 내려서는 대성을 바라보았다.

그새 몸이 좋아져서 《과장동지》다운 유연하고 튼튼 몸가짐을 가진 류대성이 수고한다고 친절하게 인사하며 다가왔다.

그리고 엉거주춤 일어서는 종업원들에게 고급담배 한대씩 권하였다.

모두들 옛 《진주 아버지》를 보고 반가와하면서 조심스레 담배를 받아쥐었다.

그의 체취에선 다가서기 서슴어지는 그 어떤 다른 세계의 향수가 아릿하게 풍기고있었던것이다.

그는 무저놓은 과일무지들을 둘러보더니 오형국을 지함이 쌓여있는 한쪽구석으로 이끌었다.

그리고는 스스로없이 입을 열었다.

《6반장 말일세. 눈 꼭 감구 사과 정품으로 다섯 톤만 좀 돌려야겠네.》

《응?》

《왜 놀라나? 그냥 골격할가봐 그러나? 계획수행에선 무락되지 않게 등외품전표는 넣어주겠네. 그 대신 뭐든지 요구하계. 비료면 비료, 농약이면 농약. 참, 자넨 아직도 그 낡은 자전거를 그냥 끌고 다니더구만. 방안구석엔 구식색텔레비존이 그대로 버티고있구... 그것들도 이번에 내가 싹 일신시켜 주겠네.》

오형국이 도리를 저었다.

《일없어! 이제 남부럽지 않게 우리 종업원모두가 잘살 날이 오네. 지금은 우리 종업원들과 차이없이 사는데 마음편해. 그렇게 사는데 난 옛날 〈진주 아버지〉란 사람한테서 배웠지.》

류대성이 두눈을 디룩거렸다.

《이 사람, 난 진심을 말하는데 화제를 별나게 돌리누만. 어쨌든 자넨 좀 답답해. 융통성두 없구. 그래, 어떻게 할셈인가?》

오형국이 다시 머리를 저었다.

《그건 좀 힘드네.》

류대성의 눈길이 서늘해졌다.

《그게 진심인가?》

《난 괴롭구만.》

《음, 알겠네. 괴롭다면 할수 없지.》

그가 피우던 담배를 던져버리고 성급히 오토바이 세워둔 곳으로 향했다.

오형국이 미안한 생각이 들어 따라섰다.

《진주 아버지! 뭐 다르게는 생각지 말게.》

오토바이에 앉은 류대성이 어이없이 마주보았다.

《진주 아버지?!... 허 참, 아직도 옛날 진주 아버지로 알고 대상하려니 답답하게 놀수밖에. 가겠네!》

오토바이가 부르릉 발동이 걸렸다.

미구하여 그가 탄 오토바이가 쏜살같이 멀어져갔다.

오형국은 속이 좋지 않았다. 내가 너무나게 아닌가. 믿고 왔는데 생각을 좀 해봐야 할걸 그러지 않았는가. 오형국은 천천히 도리를 저었다.

아니야! 생산물을 그렇게 처리할수 없어. 언젠가는 나를 리해할거다.

그후 3년만에 류대성은 기업소 자재부지배인으로 임명되었다.

《진주 아버지》란 부름은 아득한 옛일로 더더욱 멀어져갔고 《과장동지》는 《부지배인동지》로 바뀌어졌다.

그러나 어쨌든 한기업소에 있다보니 오형국은 류대성과 이리저리하게 자주 부딪쳤다.

그때마다 류대성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굽어보며 실무적인 태도를 취하곤 하였다.

그러나 오형국은 결코 그를 곱해하지 않았다.

세월이 퍼그나 흘러갔지만 오형국의 마음속엔 종업원들속에 깊이 묻혀있던 《진주 아버지》의 잊을수 없는 모습이 력력히 살아있었던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불미스러운 일로 또다시 마주서지 않으면 안되었다.

해토가 시작되던 이른 봄날이었다.

선전실마당에서 오형국은 젊은 기술부반장이 타온 몇개의 누런 농약마대와 농약병을 놓고 눈앞이 아득해 서있었다.

받아야 할 량의 절반도 안되었다.

농약은 파수의 생명선이다. 아무리 열매가 많이 달려도 농약이 없으면 병충해로부터 건질수 없다.

오형국은 이려고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급히 자전거를 끄집어냈다.

아직도 하늬바람이 쌀쌀한 20리길을 내달려 기업소 자재부지배인방에 들어서니 류대성이 어딘가 전

화를 하고있었다.

그가 들어서는 오형국을 보고는 간부다운 여유있고 틀진 손짓으로 의자를 가리키고는 대방과 한동안 그 무슨 시세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이윽하여 하얀 송수화기를 놓은 그가 오형국에게 묻는듯 한 시선을 던졌다.

《어떻게 함박골반장이 다 왕립하셨소?》

오형국은 격해지는 심정을 자제하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농약때문에 왔소. 그걸 가지구 한해농살 짓소?》

《허, 언제 농약을 받쳐줘서 농살 했소?》

《물론 그렇소. 하지만 우린 믿었소. 제품생산순위에 따라 농약을 배정한다던 부지배인동무의 말을 믿었던 말이요.》

류대성이 난색을 짓고 머리를 끄덕이더니 천천히 말을 뱉었다.

《내 동무를 믿구 솔직히 말해주지. 원래 계획은 그렇게 세웠지만 먼저 현장지휘용승용차를 한대 새로 들어오기로 했소. 동무도 알겠지만 우리 기업소〈갱생〉차가 다 낡지 않았소.》

오형국의 안경알이 서늘하게 번뜩이었다.

《그러니 농약대신 승용차가 들어온다 그 소리겠소?》

류대성이 변명조로 대꾸했다.

《우리도 차후 농약대책을 세우자고 하오.》

오형국은 억이 막혔다. 당장 이제부터 주기적으로 련속적인 시약작업에 들어가야겠는데 언제?!... 속에서는 부직부직 울분이 끓어올랐지만 그의 목소리는 리성에 한껏 눌러워 나직하게 울렸다.

《그때 하나 묻지요. 그 승용차가 꼭 있어야겠소?》

《응?!...》

《그 승용차가 꼭 있어야만 우리 파수농장이 농사를 짓는가 말이요?》

오형국의 신랄한 어조에 류대성은 의자등받이에서 전류라도 통하듯 흠칫 잔등을 뻗었다. 그리고 책상을 쳤다.

《여보, 반장동무! 이 사람 어디 와서...》

그 순간 오형국이라도 별떡 일어서며 맞받아 소리쳤다.

《여보, 진주 아버지!》

퇴성같이 울리는 그 소리에 류대성은 통장받은 궁쪽처럼 굳어져있다가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진주 아버지?! 허... 거 정말 오래간만에 들어보는군. 그대 여기가 함박골인줄 아오?》

그의 큰 눈이 오형국을 맞갖지 않게 보며 디룩거렸다.

오형국의 안경알속에 눈물빛이 반짝했다. 저도 모르게 두툼한 입술이 떨렸다.

《그때... 함박골의 진주 아버지인 이런 사람이 아니었소. 그는 정의감이 강했구 원칙이 있었소. 대중과 늘 허물없이 어울렸구 그들의 리익을 존중했소. 그래서 사람들은 진주 아버지를 좋아했소. 헌데... 그 진주 아버지... 죽었소....》

《이 사람이 점점...》

오형국의 젖어든 목소리가 저력있게 울렸다.

《명심해 들소. 우리 과일생산자들은 아직까지도 인민들에게 신선한 과일을 마음껏 먹이시려던 우리 수령님 유훈을 관철하지 못하였소. 그건 바로 자기의 근본을 잊고 대중의 머리위에 군림하며 그들의 창조적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당신같은 일꾼들이 아직 있기때문이요!》

오형국은 자기가 어떻게 그 방에서 뛰쳐나왔는지 의식하지 못하였다.

자전거를 끌고 허청허청 돌아오는 길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향수가 변질되면 더 역한 법이다. 또 변한 마늘은 약재로 쓸수 없다.

아, 진주 아버지, 당신이 어쩌면 그렇게 되었소. 당신은 내가 그런다 해도 종아리를 쳐야 할 입당보증인이 아닌가.

일부 일꾼들이 종업원들에게 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

량심이 있는가, 량심껏 살라, 량심을 지키라.

그러나 그 량심을 지키게 하자면 거울이 있어야 한다.

자기를 비쳐보며 언제나 요구성을 높일수 있는 사회적인 거울이 있어야 한다.

그 거울이 되여야 할 사람들이 바로 당의 정치적인임속에 일하는 우리 일꾼들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류대성이 너는?!...

녹슨 바늘로는 실을 제대로 꿰고 바느질을 할수 없다.

그로부터 얼마후 오형국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류대성이 생산물을 가지고 룡간질하며 빼돌리다가 그것이 체기되어 비판검토를 받고 직무에서 해임철회된것이다. 오형국은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을 타매했다. 며칠동안 담배연기속에 뜬눈으로 새우며 잠을 설치었다.

내가 왜 일찌기 그를 도와주지 못했는가.

재채기할 때 고뿔이 뒤편한다는걸 알았어야 할게 아닌가.

아, 류대성이?!... 인생을 그렇게 만신창으로 빚어놓다니?!...



작업반선전실에서 로동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오형국은 놀란 얼굴로 한동안 굳어져있었다.

전 부지배인 류대성이가 해임담화때 여기 함박골로 내려오겠다고 제기했다는것이였다.

오형국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정말 뜻밖이군요. 현대 여긴 빈집이 없습시다.》

수화기에서 로동과장의 혼연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알고있소. 그래서 전 부지배인동무는 거기서 제일 낡은 집을 본장에 있는 자기의 새집과 바꿔주겠다는거요.》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오형국은 머리를 기웃하며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현대 여긴 낡은 집이 없습니다.》

그렇다. 함박골은 그전날의 함박골이 아니다!

모든 집들이 현대적으로 개진보수되었고 문화후생시설들이 번듯하게 꾸러졌다. 골개물을 리용하여 본장에서 두번째로 소형발전소를 세워놓았다.

10여년의 봄과 가을을 맞는새에 초급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땀배인 어깨 겹고 고락을 함께 하며 이제는 함박골을 누구나 오고싶어 부러워하는 락원의 땅으로 만들었다.

수화기에서 로동과장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어쨌든 그리 알고 이사시킬 대책을 세워주시오!》

《?!...》

류대성이 그 집을 너무 요란하게 꾸린다고 분분한 론의가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집을 내놓고 여기로 내려오겠더니?!...

자기반성의 언덕에서 그가 무슨 교훈을 찾았을가.

대중을 멀리하며 멀어질 때 그만큼 사회적존재로서의 수명은 짧아진다는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은 것이다.

《허, 정말 모를 일이군요.》

오형국이 머리를 기웃하는데 등뒤에서 《모를게 뭐가 있소?》하는 힐난조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돌아보니 전실에 얼굴이 축간듯 한 류대성이가 천연스레 서있었다.

그래도 풀이 죽지 않은 그 인상을 보니 마음이 좀 놓인다.

오형국은 들고있던 송수화기를 놓으며 통명스레

말했다.

《집은 안 무너지니 기둥처럼 서있지 말구 들어오게나.》

《허, 자네처럼 든든한 기둥이 있는데 왜 무너지겠나.》

그가 불청객처럼 서슴으며 천천히 들어와왔더니 잘 꾸러진 선전실내부를 새삼스레 둘러보았다.

오형국은 책상서랍을 한동안 뒤적이더니 전사했던 《선봉》담배 한갑을 꺼내놓았다.

《현대 태우게.》

류대성은 그걸 들고 달갑지 않은 얼굴로 이리저리 뒤집어보더니 오형국을 마주보았다.

《이런것밖에 없나?》

오형국의 갸웃한 얼굴이 의아해졌다.

《왜 자네 입에 맞겠는데...》

《허, 그런게 아니구 마라초는 없는가 말일세. 원래 함박골 마라초는 소문이 났지...》

《영? 마라초?!... 난 자네가 그 맛 잊은지 오래다구...》

짐짓 썬평 좋던 그의 얼굴이 괴롭게 이지러졌다.

《그래, 내 지금껏 함박골 마라초를 잊고살았지.》

오형국은 일어서서 서류함의 철문을 열고 노르스름한 마라초 한뭉음을 가져왔다.

류대성은 그걸 들고 감회깊은 눈길로 한동안 바라보다가 흠흠 냄새를 맡아보더니 두툼하게 말아불을 붙였다.

《함박골 마라초맛은 여전하군.》

담배연기를 길게 내뿜는 그를 보며 형국은 푸접없이 입을 열었다.

《그 맛 다시 보자구 여기 오진 않았겠구. 본장에서든 창고나 편의 같은데 들어갈데가 많은데 왜 하필 로동현장으로 내려올 생각을 했나. 그것도 여기 함박골로.》

류대성이 심드렁해 입을 열었다.

《그게 불편한가?》

《솔직한 말로 그렇네. 그래도 체노라 하던 2급 기업소 부지배인동지였는데 내가 이래라저래라 한다는게 말처럼 쉬운 일인가. 더구나 짜개바지동무였구 입당보증인이 아닌가.》

《허, 자네도 그렇게 재능데가 있구만...》

《난 뭐 목석인가?》

류대성이 정색해졌다.

《그렇다면 내 허심하게 말하지. 난 여기서 이렇게 마라초를 나눠피우며 〈진주 아버지〉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싶었네.》

《?!...》

《내가 해임되던 그 순간에 제일먼저 떠오른게

뭔지 아나? 그건 내 방에서 나를 타매하며 직무가 아니라 〈진주 아버지〉를 찾던 자네의 우리같은 목소리였네. 생각해보면 나의 파오는 친근한 그 부름을 망각한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었어.》

형국은 머리를 끄덕였다. 그래, 그때부터 물위에 뜬 기름방울처럼 되었고 직위가 올라갈수록 대중우에 군림하기 시작했다.

결국은 자기의 근본을 잊은 배은망덕한이 되었다. 오형국이라도 마라초를 태우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물론 이제야 자네를 달리 부를수 없지. 이젠 자네가 간부동지가 아니니까.》

《어쨌든 그 옛날 〈진주 아버지〉의 그 모습을 꼭 다시 찾고싶네. 그러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어.》

류대성의 결연한 어조에 오형국은 무겁게 머리를 끄덕였다.

그러나 류대성이 내려온지 얼마 안돼서부터 그때문에 오형국은 골머리를 써야 했다.

그날 그는 분장에 회의갔다가 저녁녘에 자전거를 타고 슬슬 돌아오고있었다. 길옆의 복숭아나무들에서 열매들이 벌겋게 물들어간다.

갑자기 포전길에서 곤청색작업복을 가끈하게 차려입고 빨간 사출장화를 신은 류대성의 딸 진주가 침울하고 풀기없는 얼굴로 삽자루를 들고 타박타박 마주왔다.

제 어머니를 닮아 아련하고 단아한 그의 얼굴색이 좋지 않아 자전거를 세우니 진주가 다소곳이 고개를 숙인다.

《요즘 침 하는 일인데 힘들지 않냐?》

오형국의 다심한 어조에 진주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본장에서 교환수 하다가 아버지따라 내려온 진주의 목소리는 또랑또랑했다.

《너 무슨 일이 있은게로구나.》

진주가 잠시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다.

《반장이저씨, 저... 우리 아버지를 좀 조용히 단독작업하게 해줄수 없어요?》

《음? 건 왜?》

《저... 듣기 거북한...》

오형국은 머리를 끄덕였다.

요즘 종업원들속에서 진주 아버지가 락하했소, 어쨌소 하며 야유와 경멸조로 울리는 목소리들이 온몸지 못하다는걸 그도 느끼고있었다. 진주도 그걸 들은 모양이다.

《음, 알겠다. 이젠 네가 아버지를 걱정하느냐.》

진주와 헤어져 선전실에 와보니 창문옆에 두무릎

세우고 앉은 진주 아버지가 신중해서 앉아있는 젊은 세포비서앞에서 침침하게 속을 터놓고있었다.

《글쎄 이 못난 애비때문에 우리 진주이름까지 흑칠하게 되누만요. 인간은 그 누구든 아무개네 아버지, 혹은 어머니로 사회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절을 맞이하게 되고 그 부름으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직위나 직무는 변하고 없어질수 있어도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건 아무개네 아버지란 그 부름 같군요. 내 지내놓고보니 그 부름앞에 성근하지 못하면 사람구실하기 힘든것 같습니다.》

오형국은 그날 저녁 세포비서와 토의하고 류대성을 과목관리원으로 고정배치할 결심을 하였다.

과목관리는 병해충예찰이나 하고 병든 가지 처리와 접붙이나 하면서 나이먹은 기능공들이 쉬엄쉬엄 하는 일이다.

다음날 현장에서 그 말을 들은 류대성은 뜻밖에도 도리를 저었다.

《그 일도 중요하지만 반장동무 말이요, 그전에 정아바이가 진거름달구지를 끌었지?》

《끌었지. 헌데?》

《그 진거름달구지를 이제 내가 맡겠소.》

《그게 온전한 소리요?》

무성한 잎새를 서걱이며 시원하게 그늘을 던진 배나무그늘아래 류대성과 나란히 앉은 오형국은 도수안정알을 의아하게 번뜩였다.

진거름달구지는 20리 넘는 읍에까지 하루 한번 갔다온다.

매일 새벽에 떠나 오후 한시쯤 와서는 그후에 진거름을 물에 희석해 파일나무밑에 주어야 한다.

힘든 일이어서 오형국은 장차 소형트랙도로로 그 일을 대신할 계획을 세우고있었다.

허나 육체적으로 힘든건 문제가 아니다.

2급기업소 부지배인이 되어 오토바이까지 요란스레 타고 동분서주하던 사람이 알만 한 사람도 적지 않게 부딪칠 대도로를 따라 진거름달구지를 끌고 매일 오간다는게 결코 선행좋은 일이 될수 없다.

류대성이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언젠가 정아바이의 생일초청을 좋게 거절하고는 대신 지배인동지의 생일집으로 갔던적 있었지.

난 분명 그때 그 아바이를 눈아래로 보았소. 한생 묵묵히 진거름달구지나 끈다고 해서 말이요. 수십명 우리 종업원들이 아니라 한두명 우에 간부들의 환심을 사고 인정을 받는걸 더 중시했지. 그러다보니 몇년전 그 아바이가 돌아간 소식도 모르고 살았소.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아바이의 모습이 되고싶소.》

《음...》 오형국도 생각깊이 머리를 끄덕였다. 정말 힘든 결심을 했다.

그날 저녁 오형국은 작업복과 장화, 고무장갑을 준비해가지고 류대성의 집을 찾아갔다.

매일 새벽 달구지를 끌고 읍으로 떠나야했는데 류대성의 작업차비가 제대로 된것 같지 않았던것이다.

그의 집마당에 파란 뽕끼칠한 사립문을 조심히 열고 들어서는데 방안에선 뜻밖에도 진주의 웅골찬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아버지 그런 지령 받고도 병어리처럼 있었어요? 떨어져내려왔다고 진거름달구지 안겨줘요?》

류대성의 목소리가 버럭 울린다.

《그만 못하겠냐? 그 일이 어째서? 내가 자진해서 말은거야!》

《거짓말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보구... 난 여기서 정말...》

《닥쳐! 누구든 필요하면 그 일을 해야 돼. 너도 할수 있구. 그런 일 하는 사람 따로 있는게 아니야!》

류대성의 엄한 꾸지람에 젖어든 처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진주 아버지! 좀 진정해요. 그래도 자식마음이야 어디 그런가요.》

뜻밖의 가정불화앞에 오형국은 달빛아래 그림자를 길게 드리운채 말뚝처럼 굳어져 서버렸다.

한참만에 한결 누그러진 류대성의 허심한 목소리가 자책에 잠겨 울려나왔다.

《진주야, 난 지금껏 우리 장군님의 눈비에 젖은 단벌 야전복과 췌기밥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도 쉽게 외워왔구나... 인민들과 간격이 없이 고락을 함께 해오신 백두산위인들의 평민적풍모에 대해 수없이 전해들으면서도 나의 사업과 생활에선 구현하지 못했어...

직위가 올라갈수록 종업원들이 나를 섬기는걸 웅당한것으로 생각하며 종당엔 그들의 리익을 침해했지. 인민의 총복이 아니라 판교가 돼서 사회주의라는 거목에 쏙이 쓸게 했어. 난 간부였던 아버지의 체면을 생각하지만 난 나의 파오로 하여 훼손된 당의 권위를 생각한다.

진땀이 아니라 피를 바쳐도 씻지 못할 죄를 젖어...》

진주인지, 류대성의 처인지 모를 흐느낌소리가 조용히 새어나온다.

오형국은 가지고온것을 토방에 놓고 조용히 돌아섰다.

되돌아선 오형국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하지만... 만류하지 말자.

류대성이기 아픈 가슴 부여안고 묵묵히 땀을 바

치는 그 길이 진정 《진주 아버지》가 되어 함박골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시 들어오는 길이 아니겠는가.

류대성은 그때부터 소달구지를 끌고 40여리를 오가며 읍에서부터 진거름을 날라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신새벽에 소방울소리 울리며 떠나가는 류대성의 험험한 모습을 보며 그를 멀리하던 사람들의 눈길이 점점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날 점심참에 집으로 돌아오던 오형국은 꾸룽꾸룽 천둥이 울려오는 하늘을 사뭇 불안한 마음으로 올려다보았다.

오전부터 부실부실 안개비를 췌뿌리던 하늘이 당장 무너질것 같은 우중충한 검은 구름장들로 꼭 메여졌다.

(이 사람이 오늘 어찌된 일인가?)

읍에 진거름달구지를 끌고갔다가 지금쯤은 왔어야 할 진주 아버지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것이다.

오늘 오후부턴 큰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듣고 달구지 나가는걸 그만두게 하려 했는데 새벽에 나가니 벌써 떠난 뒤였다. 오형국은 마치 강가에 아이 내보낸 심정이어서 집에 들어와서도 쟁겨주는 점심상을 드는등마는등 밀어놓았다.

굶어진 비줄기가 창문을 요란스레 두들겨댄다.

갑자기 은백색섬광이 번쩍하더니 미구하여 《자곤 짜르릉-》 하며 천둥이 울부짖는다.

대줄기같은 극악스런 비줄기가 순박한 대지에 선전포고라도 하듯 좌락좌락 췌때렸다.

안절부절 못하고 서성거리던 오형국은 더 생각할새없이 비옷을 뒤집어쓰고 튀어나갔다.

절버덕거리며 허겁지겁 작업반에 와보니 아직도 진주 아버지의 달구지가 보이지 않는다.

혹시 오다가 집앞에 세워놓지 않았나 하여 폭우에 대추나무가 태질하는 류대성의 집을 향해 처벽 처벽 내달렸다.

류대성의 집마당에도 그의 달구지가 보이지 않았다.

(이거 무슨 사달이 났군...)

노란색문을 열어제긴 부엌에선 머리칼이 함초름히 젖은 진주와 잔주름이 가기 시작한 진주 어머니가 불안스레 하늘을 올려다보고있었다.

《아직 안 왔습니까?》

오형국은 자기도 의식할새없이 뻔한걸 물으며 락수물이 수도물처럼 흐르는 처마밑으로 뛰어 들었다.

젖은 문설주를 부여잡고 서있던 진주 어머니가 근심스레 물었다.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오형국이 머리에 썼던 번들거리는 비옷모자를 제쳤다.

《떠날 땐 별다른 일이 없었겠지요?》

진주 어머니가 주저하며 입을 열었다.

《글쎄… 기침을 자주 하며 미열이 좀 나던 걸…》

오형국이 젖은 비옷을 버걱이며 버럭 소리쳤다.

《아니, 그런걸 떠밀어보낸단 말이에요?》

《글쎄… 오전중에 일찍 오겠다고며 부득부득…》

하늘에선 여전히 천둥소리가 꾸물거리며 새뽕알개 비발을 몰아왔다.

《한심하기란, 내 마주가서 진주 아버지 떠밀어보낼테니 불이나 뜨끈히 때놓으시우…》

처마밑에서 튀어나온 오형국은 무작정 맞받아가기 시작했다.

천방지축 포전길을 지나 도로에 나섰는데 두명의 젊은 종업원들이 헉헉거리며 오형국을 따라온다.

손등으로 비바람 막으며 《어디 가?》 하고 물으니 눈확이 우묵한 그가 《진주 아버지 아직 안 왔다가에…》 한다.

뭔가 싸넣은 비닐보자기를 들었는데 비닐병이 비죽이 주둥이를 내밀고있다.

《그건 뭐니?》

오형국의 물음에 그가 혼연히 대답했다.

《진주 아버지 몸을 좀 덥히라고요…》

《반장보다 낫군.》

고개마루에 당도하니 새뽕안 비발속에 달구지가 툭아오른다.

그런데 그의 달구지주위에 사람들이 벌써 별뿔처럼 뭉쳐있다.

오형국은 비물을 흠치며 달려내려갔다.

언제 왔는지 모를 작업반종업원들이 달구지를 밀며 올라오고있다.

소고삐 잡고 《이라! 이라!》 고향치는 감때사나와보이는 남정은 우물집의 찬호 아버지인데 진주 아버지에 대해 제일 허비틀린 소리를 하던 사람이다.

가슴이 뭉클해진다. 모두가 고마운 사람들이다.

고열에 시달리는듯 얼굴이 벌거우리한 진주 아버지는 눈을 가슴츠레 뜨고 분명 제 비옷이 아닌 퍼런 비옷을 뒤집어쓴채 한사람에게 의지해 지척지척 올라온다.

《대체 어찌된 일지요?》

오형국이 누구에게라없이 묻자 바퀴 밀던 세포비서가 허리를 펴며 자책조로 입을 연다.

《우리가 관심이 적었습니다. 저렇게 앓는 몸으

로… 저걸 좀 보십시오!》

그가 손짓하는걸 보니 달구지에 길게 실린 진거름통이다. 뒤로는 직경이 한뼘 안되는 출구관이 있는데 늘 쓰던 비닐박막이 삭아졌는지 진주 아버지의 회색비옷이 통나무말뚝과 함께 콕 박혀있다.

설상가상으로 작업도중 그 말뚝이 빠졌던 모양이다.

오형국이 좌— 몰아오는 폭우로 하여 큰소리로 말하며 류대성에게 다가섰다.

《먼저 술 한잔으로 몸을 좀 덥히지그래.》

류대성이 비물을 흠치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헌데 왜들 큰변난것처럼 모두…》

비물 튀는 도로바닥에 그의 사출장화가 허청거렸다.

오형국이 그를 부축하며 짐짓 눈을 부릅떴다.

《이 민한 사람! 안되겠어, 자전거를 타고 먼저 떠나게!》

순간 류대성이가 왁살스럽다 할 정도로 오형국의 비옷을 거머쥐고 끄당졌다.

오형국은 그가 한발 먼저 떠나며 달구지를 부탁하려는줄 알고 다가서며 귀를 강구었다.

무슨 소리가 없다. 슬며시 돌아보니 그가 눈을 지릅뜨고 본다.

《왜 그래? 엉?》

류대성이가 뜨직뜨직 힐난조로 입을 열었다.

《날 이 사람들과 또 때놓을 생각이야? 난 함께 가야겠어, 가다 쓰러져두…》

오형국은 그 자리에 말뚝처럼 우뚝 서버렸다.

함께 가겠단 말이지?!… 그 말의 의미가 새삼스레 가슴을 친다.

류대성은 좌락좌락 피부어대는 창살같은 비발을 뚫은 잔등에 그대로 들쓰며 거인처럼 처벽처벽 걸어가고있었다.

허청이면서도 억척스레 종업원들과 한모습이 되어 걸어가는 그의 뒤모습을 보며 오형국의 눈뿌리가 화끈해지고 가슴이 뿡뿡 달아올랐다.

령길우에서 또 몇명의 종업원들이 나타나더니 소리치며 마주내려온다.

《진주 아버지, 일없습니까?》

《진주 아버지—》

그속에 파란 비옷 입은 진주도 따라내려와선 그 자리에 우뚝 서버린다.

그의 눈가에 눈물인지 비물인지 모를 후더운것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있었다.

아, 류대성이! 그는 자기의 인생길의 한시절에 내린 《폭우》를 그렇게 헤치며 사람들속으로 《진주 아버지》가 되어 돌아온것이다.

×

오늘은 류대성이 분장장으로 임명되어 첫 사업을 시작하는 날이다. 새하얀 전화기가 놓인 탁 앞에 류대성이 듬직하게 앉아있고 랑옆으로는 아홉명의 생산반 반장들과 수리, 건설, 종축분조장들이 앉아있다.

류대성이 온화한 눈길로 자기를 주시하는 그들을 천천히 일별하다가 가까이 앉아있는 몸이 우람찬 젊은 반장에게 불쑥 물었다.

《동문 반장사업 시작한지 얼마나 되오?》

뜻밖의 질문에 그가 어안이 병병해 부산스레 일어서려 했다.

《아, 앉아서 대답하오.》

《저… 저의 사업년한 말입니까?》

《그렇소.》

《한 4~5년 됩니다.》

류대성이 머리를 끄덕이다가 다시 물었다.

《그전에 반장사업하기 전에 사람들은 동무를 어떻게 불렀소?》

그가 뜻밖의 질문인듯 껄죽한 눈을 껌벅이다가 뜨덤뜨덤 입을 열었다.

《저… 그건, 그저 명수 아버지라 하기도 하구… 뭐, 뭐라든지, 곱통 아버지… 그렇게 부르기도 하구…》

《곱통 아버지란건 또 뭐요?》

《저, 우리 애녀석한테 그런 애칭이 붙어있은것 같습니다.》

《음, 그녀석이 동무처럼 몸이 좋았던게로 군.》

《허허허.》

주위에서 웃음의 잔물결이 일어났다.

류대성이 얼굴이 벌거우리해진 젊은 반장을 보며 소탈하게 입을 열었다.

《곱통 아버지라?!… 그게 허물없고 얼마나 좋소.…》

그가 좌중을 둘러보며 정색해서 입을 열었다.

《동무들도 알겠지만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는 지하공작임무를 수행하던 당시 〈무산집새아기〉로 불리웠소. 그 부름속엔 인민을 공작대상이 아니라 친혈육처럼 믿고 대해주며 생사운명을 같이해온 위대한 인간의 한생이 뜨겁게 함축되어있소.…

동무들은 일군이 되기 전에 대중이 허물없이 부르던 〈아무개네 아버지〉란 그 호칭을 늘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하오.

언제나 대중과 제일 가깝던 그 모습으로 한생을 살 때만이 일군이 되어도 관료가 아니라 〈우리〉라는 호칭으로 불리울수 있는 일군, 당이 바라는 그런 일군이 될수 있는거요.》

## 《조선문학》축전상 시상결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들은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참된 주체형의 혁명적문예전사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다양한 주제, 다양한 종류의 성과작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제정하여주신 주체102(2013)년 제17차 《조선문학》축전상 시상모임이 있었다.

입상작품은 다음과 같다.

단편소설 《12월의 그이》 4.15문학창작단 작가 황용남

단편소설 《큰 주먹》 조선인민군 제318군부대 작가 최종하

단편소설 《노래는 남는다》 인민보안성문학창작사 부사장 류영기

단편소설 《이 땅을 사랑하라》조선작가동맹 평안남도위원회 작가 오광천

서정시 《0시 30분》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 강좌장 정두국

시초 《수산땅의 피는 마르지 않는다》 조선영화문학창작사 가사실 실장 권오준

산수시초 《천하명산 묘향산》 황해남도 웅진군 읍 함영근

평론 《푸른 숲의 정서와 숭고한 조국애》 김철주사범대학 어문학부 교원 리근세



# 아름다운 미래를 펼쳐주셨네

백 하

날과 달을 이어  
끝없이 사랑의 자욱 새겨가시면서도  
이제 꼭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환호로 끓는 대학구내에  
밝은 미소 뿌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언제나 오고싶으시여  
때없이 그려보시던  
평양건축종합대학  
현지지도의 머나먼 길  
자욱마다 뜨겁게 새겨오신  
원수님의 그 리상 그 념원이  
여기에 다시 한껏 나래펼치는듯

룡라인민유원지건설장  
바람부는 공사장을 찾으시여  
건축가의 수첩을 받아 펼치시고  
끝내 찾아내지 못한  
새 설계안을 친히 그려주시며  
건축가들의 눈을 환히 열어주신  
그처럼 비범하신 위대한 스승

창전거리 아득한  
고층살림집에 오르시여서는  
문틈으로 바람소리가 난다고  
그 누구도 듣지 못한 바람소리를 들으시고  
인민의 창가에서 찬바람을 막아주신  
한없이 자애로운 인민의 아버지

그 누가 생각할수 있었으랴  
평양산원유선중앙연구소 수술실에 들리시여  
환자들이 제집처럼 생각하고 시름을 놓게  
벽마다 살림집벽지를 발라주라고  
따뜻이 이르신 한없는 그 은정이여

가시는 곳마다  
주체건축학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고  
인민의 편의성을 먼저 새겨주시며  
세상없는 웅장화려한 궁전을 일떠세우시고  
새 거리마다 만복의 창문을 달아주신  
창조의 거장 건축의 영재

대학의 수많은 설계도를  
친히 한장한장 보아주시고 지도해주시여  
하늘높이 건축명작으로 빛내주시고

대학을 온 나라의 건축인재를 키우는  
건설의 대전당으로 빛내시여  
손수 이름도 《평양건축종합대학》으로 명명해  
주시고  
온 세상에 자랑높이 내세워주신  
그 은정 헤아릴길 없는데

건축설계실의 설계탁을 짚으시고  
크나큰 믿음을 담아 말씀하시여라  
—평양건축종합대학을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전초기지로 만들자는것이  
나의 결심이고 나의 의도요  
내가 이 대학의 명예총장이 되겠소!

순간  
온 청사가 떠나갈듯  
터지는 박수소리 감격에 넘친 만세소리  
울려갔다 하늘땅을 흔들며  
온 대학이 온 나라가 울리는 감사의 웨침  
가슴마다 불을 터치며 환희의 폭풍을 터쳤다

준엄한 생사운명의 순간마다  
탁월한 전략과 전술을 밝히시여  
조미대결전을 련전련승으로 이끄신  
천출명장 최고사령관  
불멸의 그 업적 하늘에 닿았는데

스스로 건축학계의 중임을  
한몸에 받아안으시는  
끝없는 그 헌신 그 은정이  
심장마다 불을 터쳤다

불시에 온 수도 온 나라 거리거리에  
하늘을 찌르며 화려한 건물의 숲이 솟아오르는듯  
강성국가의 천만창문이 한시에 활짝 열리는듯  
이 나라 사회주의문명국의 눈부신 광채가  
온 우주에 찬란히 빛발치는듯

오, 위대한 선군태양  
창조와 건설의 영재  
경애하는 김정원수님  
스스로 혁명의 천만사를 한몸에 다 받아안으시고  
무한한 열정과 불멸의 헌신으로  
사회주의문명개화기를 활짝 열으시며  
아름다운 미래를 찬란히 펼쳐주시었어라

## 위대한 계승의 발자취 오성산에 빛발친다

강정심

오성산 굽이굽이 152굽이에 오늘도 끝없이 이어지는 위대한 선군령장의 헌신의 자욱자욱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져있기에 오성산을 언제나 가슴에 안고살며 누구나 오성산을 못 잊어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는것이다.

여기서도 우리 시인들은 위대한 선군령장들의 불멸의 업적을 진실하고 감명깊게 노래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에서는 수령이 지닌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시초 《오성산아 말하라》(백하 《조선문학》 주체102(2013)년 8호)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장의 담력과 배짱을 그대로 지니시고 오성산에 오르시여 조국수호의 빛나는 자욱을 새기시며 전선길에 위대한 화폭을 수놓으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위인적품모를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시초에서는 장군님의 모습그대로 오성산 152굽이를 오르시여 병사들에게 끝없는 사랑의 정을 부어주시는 원수님의 위인상을 구체적으로 시화하면서 혈연의 정 끝없이 흘러넘치는 혼연일체의 위대한 화폭을 펼치고있다.

백두령장 김정일장군님  
야전차도 더 오르지 못해  
벼랑가에 벗어선 차를  
한치한치 어깨로 미시며  
하늘끝에 오르신 오성산  
오성산 152굽이를  
경애하는 원수님 오르신다

시초에서는 오성산이라는 시적대상을 통하여 선군령장의 위인적품모가 다면적으로 안겨오고있다.

시초에 속한 4개의 시들은 총체적으로 볼 때 서정의 순차성을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오성산과 더불어 부각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령장으로서의 위인적품모와 함께 인민군군인들에게 친혈육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로서의 위인적품모가 감동깊게 노래되고있다.

시 《결사의 산악》에서는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

이신 선군령장 김정원수님의 드센 담력과 기상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서남전선의 최남단  
포탄이 나는 최대열점지역을  
작은 목선을 타시고 맞바나가시던  
천하무적의 그 담력 그 기상으로  
오르신다 오성산 아득한 정점으로

백두령장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시고 천만위험이 도사리는 최대열점지역에 나가시여 적들을 공포에 몰아넣으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

27마력의 작은 목선을 타시고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인 장재도와 무도의 섬방어대를 찾으시여 불을 즐기는 전쟁도발자들에게 백두산 대국의 폭탄선언을 내리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자욱은 조국의 최전방고지에도 력력히 어려있다. 하기에 시에서는 《전률하라!/핵전쟁의 버섯구름을 몰아오는/미제침략자들과/강철의 령장 김정원수/네놈들의 작전타를 거연히 디디시고/오르시였다 결전의 산악/오성산마루에》라고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상징이라고 뜨겁게 불러주신 오성산!

하기에 시 《결사의 산악》은 시초의 첫시로 독자들에게 더욱 깊은 추억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사생결단의 선군길을 굳건히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새겨안게 한다.

시 《산정의 감시소에서》는 원수님의 위인적모습이 병사들의 고향집 친부모의 다정하신 모습으로 정답게 안겨온다.

시에서는 집 떠나 조국의 최전연을 지켜선 감시병에게 한생을 두고 잊지 못할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진실하고 감동적인 생활정서에 담아 노래하고있다.

불과 불이 부딪치는 결전의 감시소에서 최고사령관과 평범한 인민군전사사이에 오고간것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정이었다.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고결하고 친근한 사랑, 나누주고 키워준 친부모의 사랑보다

더 뜨겁고 더 열렬한 위대한 사랑의 화폭이었다.

적들이 눈앞에 마주 보이는 최전방감시소에서 최고사령관동지를 만나뵈온것만 해도 가슴속 걱정을 누를길 없는데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고 병사의 고향집에도 보내주겠다고 하신 원수님의 다정하신 그 말씀이 시의 구절 구절마다에서 뜨겁게 울려온다.

은 나라 병사들의 친부모가 되시여 《한량없는 아버지 그 사랑을/친히 전사의 고향집에 이어주시여라》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야말로 일심단결 대가정의 자애로운 아버지, 선군조선의 위대한 태양이시라는것을 다시금 확증하고있다.

은 가슴을 후덥게 덥혀주는 시초의 이러한 시화폭은 산정의 감시소로부터 중대의 병실에도 이어진다.

시 《뜨거운 눈물로 이어진 정》에서는 중대병실에도 들리시여 병사들의 생활에 불편이 있을세라 구석구석 보살펴주시는 원수님의 뜨거운 혈육의 정을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식지 않을 영원한 동지애로 이어진 정으로 감동깊게 노래하고있다.

사랑의 쌍안경과 은빛 뿌리는 자동보총, 기관총도 안겨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며 병사들의 가슴속에 불보다 뜨거운 동지애의 위대한 사랑으로 평생 잊지 못할 영광의 순간을 남기신 원수님!

하건만 떠나셔야 할 그 시각엔 무엇인가 못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말없이 병사들을 바라보신채 발걸음 멈추신 우리 원수님이시다.

...

아버이자장군님 사랑하시던 병사  
한사람한사람이 그리도 귀중해  
경애하는 원수님 품을 놓고  
온나절 사진을 찍어주시여라  
한사람씩 자신의 곁에 세우시고

...

바로 그래서였다.

아버이자장군님 그리도 사랑하시던 최전연초소의 병사들이 한없이 귀중하시여 것처럼 바쁘신 시간을 내시며 한사람한사람 곁에 세우시고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신것이다.

드센 담력과 배짱으로부터 사랑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선군령장의 위인적품모는 여기에서 더욱 부각되면서 시초의 서정은 한층 더 승화되고있다.

참으로 원썩에겐 무자비하시고 우리 병사들에겐 한없이 다심하신 원수님의 위인적품모를 깊이있게 펼쳐보일수 있게 한 감동적인 시화폭이다.

시는 묘사를 기본으로 하여 인간의 내면세계를

깊이 드러내는 소설과는 달리 서정을 생명으로 하는것으로 하여 하나의 시화폭을 펼쳐나가면서도 어떤 시적대상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서정적주인공의 강한 서정적느낌이 토로된다.

시에서는 시화폭을 통한 서정적느낌이 느낌 그자체가 아니라 병사들에게 하나를 주시면 열, 백을 더 주고싶어하시는 원수님의 아버지사랑을 감동깊은 여운으로 길게 이어주는것으로 하여 보다 진실하고 숨업한 정서적세계에 승화되고있다.

여기서는 적들을 공포와 죽음의 함정으로 몰아넣으시는 원수님의 천출명장으로서의 모습과 병사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는 친아버지의 모습을 일치시키면서 선군령장의 위인적품모를 더욱 뜨겁고 절절하게 노래하고있으며 그로 하여 시초의 서정은 최대로 고조된다.

이렇게 승화된 시의 서정은 우리 병사들을 찾아가시는 위대한 선군령장의 모습을 노래한 시 《까칠봉초소》에서 절정을 이루고있다.

...

경애하는 원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울지 말라고 어서 울음을 그치라고  
그들을 한품에 굳게 안고 말씀하셨다  
-내가 동무들과 함께 있으려고  
최고사령관이 까칠봉에 왔소

최고사령관과 까칠봉!

적진의 총구가 불과 350미터앞에서 바라보이는 아슬아슬한 곳, 절절절적 적들의 장탄소리까지도 들리는 위험천만한 까칠봉에 해빛같이 환한 미소를 담고 찾아오신 최고사령관동지!

오성산 정점에도 다 가보시고 가슴저린 사선길도 다 오르신 그이께 천만위험이 드리운 까칠봉, 그곳만은 절대로 가시면 안된다고 지휘관들 막아나서고 장령들 무릎꿇고 아뢰었던만 사랑하는 병사들을 위해 위험한줄 아시면서도 우리의 원수님은 기어이 가신다.

시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적품모를 《-그들이 가장 위험한 곳에 나가있기에/내가 나가야 하오/최고사령관이 함께 있으면/그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소》라는 시형상을 통하여 감동깊게 노래하고있다.

정녕 조국의 최전방에 오르신 최고사령관동지의 담대한 위인적형상이 뜨거운 사랑의 열렬한 세계와 어울려 가슴뜨겁게 안겨오는 더더욱 감동깊은 시화폭이다.

이처럼 시초《오성산아 말하라》는 오성산의 위험천만한 산고지를 따라가면서 선군령장의 위인적

풍모를 다면적으로 노래할수 있도록 순차적구성을 조직함으로써 원수들에겐 무자비하고 병사들에겐 한없이 인자하신 원수님의 위인적풍모를 부각시키고있으며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어 조국의 최전방은 굳건히 지켜지고 위대한 우리 조국의 태양의 력사는 변함없이 거세차게, 뜨겁게 이어지고있다는것을 형상적으로 확인하였다.

시초에서는 또한 서로 대조되는 정서적색채가 엇갈리면서 드센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원수님의 위인적풍모와 원수님을 친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따르는 병사들의 진실하고 뜨거운 혼연일체의 감정정서를 잘 반영하고있다.

시 《결사의 산악》은 사회주의를 없애려고 악랄하게 조여드는 제국주의포위환을 산산 동강내시며 선군의 산악 오성산에 오르시는 선군령장 김정원수님의 천하무적의 담력과 기상을 노래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정서적색같이 보다 근엄하고 비장하게 안겨온다.

이와 대조되게 시 《산정의 감시소에서》와 《뜨거운 눈물로 이어진 정》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풍모를 진실하게 노래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보다 밝고 따뜻한 정서적색채를 띤다.

이름없는 감시병의 고향집소식도 물어주시고

자신의 곁에 세우고 찍으신 기념사진을 고향의 부모님들에게도 보내주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는 다심하고 친근하신 모습, 그것은 시형상에서 밝고 따뜻한 정서를 낳았던것이다.

시초의 절정을 이루는 시 《가칠봉초소》에서는 원수님을 최전연초소에서 만나뵈온 끝없는 걱정을 하늘땅이 울리도록 터치고싶건만 눈물만 쏟아야 하는 인민군전사들의 걱정의 세계를 원수님의 안녕을 바라는 절절한 체험세계와 일치시킨것으로 하여 극적이면서도 뜨겁고 강렬한 정서를 펼쳐보이고있다.

이처럼 시초는 선군조선의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위인적풍모를 서로 엇갈리는 감정세계를 통하여 뜨겁고 절절하게 노래하고있으며 최고사령관은 병사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고 병사들은 최고사령관의 안녕만을 간절히 바라는 병사들의 충정의 세계, 다함없는 축원의 마음이 하나로 어우러져 가장 감동깊은 혼연일체의 시화폭을 립체감이 나게 펼쳐고있다.

정녕 오성산은 위대한 백두령장들의 불멸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선군의 산악이며 위인칭송의 노래는 어제든 오늘도 래일도 오성산과 더불어 끝없이 끝없이 울려퍼지게 될것이다.

XX

## 가을이 보이는 겨울이다

### 우 광 복

들판에서는 분내보다도  
거름내가 더 많이 풍겨야 한다며  
거름바리 끌고나선 우리 분조 처녀들아  
그 말이 곱다 칭찬도 하기 전에  
봄순의 거름바리 또다시 떠나간다

점백이 끌고오는 이악쟁이 옥이아  
순서를 어기며 끼여들지 말아라  
그러다간 총각들의 눈밖에 난다  
대소한의 추위에도 분조장의 잔등에  
거름더미처럼 흰김이 솟는다

저 바라 글썸 박아바이는 어찌자고  
처녀들과 경쟁하자 소리치나  
박아바이 두바리 끌고나서니  
뒤질세라 순희의 얼룩소도 코김불며 달리누나

해뜨기 전 처녀들도 열바리  
거름바리 노래바리 일할 맛이 있다  
올해는 사회주의농촌레제발표 50돐되는 해  
그 환희 그 기쁨에 힘이 솟는다

생각하면 흥이 난다 일손마다 불을 달자  
물이 귀하던 미루벌이 물이 남게 되었다  
주체비료 쏟아지여 눈처럼 찾아오니  
거름도 미루어가며 쓰게 듬뿍 내자

그러니 올해농사작황도 결정된셈  
그것은 거름더미가 결정할게다  
미루벌이 백리라고 거름더미로 못 덮으랴  
미루벌이 백리라고 쌀산으로 못 덮으랴

황소발도 얼어터진다는 대소한추위에도  
결싸게 거름내는 처녀들 일숨씨에  
겨울도 녹아 땀흘리는가  
아름다운 겨울이다 불타는 겨울이다

한바리 두바리 거름바리 가는 그 길로  
열바리 스무바리 쌀바리 물고울 그날에  
오늘에 못다 실은 노래도 웃음도 모두 싣고올  
그날의 경쟁도 오늘에 걸자

# 오직 그이만을 따라

홍 성 두

그처럼 위대하고  
그처럼 성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을  
한몸에 떠맡아 안으시고  
새로운 승리의 진군길에 오르신분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장군님을 따라 천만리  
머나먼 혁명의 길 걸어오며  
우리 지금까지 누려온  
수령복 장군복의 영원함을  
천만심장에 신념으로 새겨주신분

사랑과 믿음의 철학으로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전략을 펼치시고  
진리로 뭉쳐진 조선의 억센 힘을  
활화산으로 분출시키신분

그이를 모시여  
흘러가는 날과 날이  
정녕 꿈만 같아라  
우리 수령님 다시 오신듯  
우리 장군님 다시 오신듯  
그림같이 황홀한 내 조국강산이여  
나날이 높아지는 인민의 노래소리 웃음소리여

한밤중  
내 깊은 잠에 들었다가도  
문득 깨어나  
생각하노라

그 절통하던 12월  
피눈물의 바다에서  
이 조선을 억척같이 일으켜세우신  
우리 마음의 기둥  
그이 아니시였다면  
정녕 그이 아니시였다면...

대대로 맑고 푸른 저 하늘을  
우리 머리 들고 바라볼수 있으랴  
백두의 혈통으로 굳건한  
내 조국의 찬란한 미래  
사회주의부귀영화 마음껏 누려갈  
강성국가 태일을 생각할수 있으랴

사랑을 주시여도

장군님의 사랑을 그대로 주시고  
믿음을 주시여도  
장군님의 믿음을 그대로 주시며  
단 한치의 간격도 없이  
병사들과 인민들과 한뜻한마음 되신분  
장군님의 선군혁명위업 즐기치게 이끌어  
이 조선의 찬란한 태양이 되신분

그이를 뵈오면  
수령님을 뵈옵는것만 같고  
장군님을 뵈옵는것만 같아  
사무치는 그리움도  
행복의 눈물로 젖어흘러라

그이 열화의 사랑  
그이 눈부신 예지  
그이 강철의 담력  
그이 출중한 인품에  
순간에 매혹된 심장  
그이를 받들어 싸우는 길에  
이 심장 순간에 바친대도  
매혹의 그 불길은  
영원히 꺼지지도 식지도 않으리니

우리의 당이고 조국이시며  
우리의 존엄이고 승리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그이와 어깨 결고 팔을 낀  
천만의 대오속의 나는 한 전사

가리라  
수령님을 뵈옵듯 그이를 뵈오며  
장군님을 따르듯 그이를 따르는  
그 무한한 행복을 안고 희열을 안고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그이의 힘찬 돌격구령을  
높뛰는 심장의 박동으로 새겨안고  
비가 와도 가리라  
눈이 와도 가리라

주체위업완성의 그날을 향해  
통일의 광장에 승리의 축포 울릴 그날을 향해  
순간도 멈춤없이 가고가리라  
오직 그이만을 위해 그이만을 따라!



# 소박하고 진실한 형상이 낳은 시대의 우렁찬 메아리

권선철

시대의 명곡 《조국찬가》가 그 신비한 감화력과 생명력으로 천만군민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키는 속에 태어난 명곡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는 2월의 조국강산에 더욱더 높이 울려 퍼지며 우리 당에 대한 흠모의 정을 더욱 분출시키고있다.

시대의 명곡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는 우리 인민이 간직한 신념과 의지가 무엇인가를 시대의 넘원과 지향으로 일관된 뜨거운 정서로 노래하고있다.

우리 희망과 미래의 전부이고 우리 꿈과 행복의 요람이며 승리와 영광의 기치인 당기에 대한 긍지 높은 레찬이고 정서깊은 예술적해명인 가사의 형상 세계는 우리에게 어떤 심오한 사색을 불러주는가.

이 땅에 태를 묻고 살아온 나날이며 그 품에 안겨 더욱 꽃피날 모든 꿈과 그대와 함께 승리해갈 희망찬 래일을 그러보게 한다. 이는 평범하면서도 구체화된 시어가 주는 생동한 현상의 힘, 지나온 생활의 자욱자욱이 비끼고 걸어갈 한생의 드림없는 미래가 안겨지는 형상의 힘, 충격적인 예술적 감흥의 힘이다.

그 소박함과 진실함, 그 아름다움과 열정의 세계를 음미해볼수록 가사의 구절구절이 그대로 당기를 품에 안고 고동친 수천수만의 뜨거운 심장의 박동으로 맥박쳐오고 당기를 우리르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별빛같은 눈빛으로 안겨온다. 여기에 바로 당기에 대한 새 노래가 주는 매혹적인 친화력이 있고 우리들자신의 생활과 운명이 가깝게 밀착되는 숭고한 형상세계의 견인력이 있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에 대한 송가에서는 자그마한 분석과 과장도 필요없다. 작가는 자기의 주변에서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사변과 인간의 아름다운 소행을 직접 보고 체험한 느낌을 그대로 소박하고 진실하게 엮어야 한다.》

백전백승의 우리 당은 그 위대하고 불멸한 업적과 전통, 지니고있는 존엄으로 하여 우리들수록 숭엄하다. 그래서 당기를 노래한 수많은 가요들의 양상이 밝으면서도 절절하고 정서가 깊으면서도 무게가 있는것이다. 형상의 숭엄함과 장엄함, 정서의 무게를 더욱 격증시키면서도 서정적으로 밝게 형상되고 구수하면서도 친근하게 형상된 여기에 새로 나온 노래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가 주는

새로운 정서적감화력이 있는것이다.

첫 구절에서부터 가사는 우리의 심장을 틀어잡는다. 《그대 정답고 눈부신 자태/ 우리 맘속에 어머니로 새겼네》의 구절로부터 가사는 심장의 뜨거운 맥박을 시대적열정으로 단숨에 확 끌어당기는 친화력을 보이고있다. 정다우면서도 눈부신 자태로 휘날리는 우리 당기를 천만군민은 마음속에 어머니로 새겼다는 이 소박하고 진실한 형상은 꾸밈없는 진정한것으로 하여 절절한 감정세계를 유감없이 펼쳐보이고있다.

생의 시작도 끝도 그 품에 두고 그대만을 사랑하리라는 호소적열정이 당을 위해 한생을 바치고 당을 사랑하며 변심없을 신념의 맹세로 승화되도록 시정을 떠나가고있다. 참다운 생을 주고 그 생을 빛내이도록 이끌어주고 보살펴주신 위대한 당과 천만전사들의 관계를 어머니와 자식의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혈연의 관계, 사상과 신념과 의지를 함께 하는 가장 숭고한 관계로 승화시킨 여기에 가사가 주는 비상한 열정이 있고 충격이 있는것이다.

가사의 1절에서 우리의 당기를 왜 어머니처럼 사랑하는가를 《그대는 우리의 희망 아름다운 우리의 미래》이기때문임을 절절한 시형상으로 밝혀냈다.

하기에 그대는 우리의 희망, 아름다운 미래라고 터치는 격정이 진실하고 뜨거운것이며 《그대 준생을 그 품에 바쳐 그대만을 사랑하리라》는 신념이 그토록 절절한것이다.

그래서 생의 시작도 끝도 그 품에 두고 그대만을 사랑하리라는 호소적열정이 한생을 바쳐 오직 우리 당만을 사랑하고 따를 변심없을 신념의 맹세로 승화된것이다.

어머니에 대한 표상이 정답고 눈부신 자태로 마음속에 새겨졌다면 희망과 미래의 전부인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온 생을 다 바쳐 끝없이 쏟아부를 뜨거운 열정의 세계로 노래되였다.

당기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성격과 투쟁력사, 불멸의 업적, 전투적위용 등을 상징하는 기치로서 수많이 노래되어왔다.

그러나 가요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에서 당기는 천만군민이 손에서 놓지 않을 혁명의 기치, 표대로서만이 아니라 생을 주고 운명과 미래를 다 맡아안아주는 어머니당의 정깊은 모습으로 형상되였다. 생을 준 어머니에 대한 사랑, 비약의 나래를 펼쳐주고 운명을 지켜주는 품에 대한 철석

의 믿음으로 구체화된 그 모습을 감명깊이 형상한 것으로 하여 노래를 받아안은 사람들 누구나 당기여 그대는 곧 우리 당의 모습이라고 소리높이 격찬하는것이다.

이런 사상정서의 흐름을 타고 2절에서 깊어진 생활의 철학, 신념과 의지의 철학적형상세계는 무엇인가.

그대 불같이 즐기찬 열정  
필력임소린 나래퍼는 조국의 노래  
당기여 그대는 우리 고운 꿈 만발하는 우리의 행복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대 뜻에 참되리라  
당기여

《그대 불같이 즐기찬 열정/ 필력임소린 나래퍼는 조국의 노래》이라는 가사형상은 뜨거운 격정이며 우리의 꿈, 우리 행복의 전부인 그대를 위해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대 뜻에 참되리라》는 신념의 메아리가 나는 우렁찬 감화력이다.

1절에서 터뜨린 서정의 물결이 영원히 뜻과 신념과 의지를 다해 따르리라는 불같은 맹세의 격량으로 용융히 굽이친것이다.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이 타오르는 불, 즐기찬 열정으로 안겨지며 그 힘과 의지로 거연히 일떠설 조국의 래일속에 만발하는 인민의 꿈, 인민의 행복이 방불히 그려진다.

가사에 굽이치는 그 서정의 힘은 결코 생동하면서 뜻이 깊은 몇개의 어휘가 아니라 당기를 높이 휘날리며 언제나 승리떨쳐온 지나온 추억이 남는 필승의 확신과 한생을 통해 검증된 진리에 대한 순결한 믿음이 주는것이다.

고결한 사랑의 감정과 참된 의지는 3절에서 억척같은 믿음으로 승화되며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진다.

우린 민노라 오직 그대를  
세월 끝까지 눈비바람 막아줄 그대  
당기여 그대는 우리 뭉친 힘 빛발치는 우리의 승리  
영원불멸할 그대와 함께 모든 영광 맞이하리라  
당기여

세월의 끝까지 눈비바람 막아줄 그대를 믿었기에 혁명의 준엄한 시련과 폭풍우를 헤쳤고 그 믿음이 곧 일심단결의 무궁무진한 힘을 낳고 승리를 가져왔음을 노래하는 3절의 가사형상은 천만군민의 심장의 맹세를 그대로 담고있다.

《영원불멸할 그대와 함께 모든 영광 맞이하리라》

위대한 당을 받들어 승리해왔고 승리해갈 인민이 어머니당과 함께 최후의 승리를 이룩해가리라

는 비상한 열정이 《모든 영광 맞이하리라》는 확고부동한 신념의 메아리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남기고있다.

가사의 특출한 감화력, 영원한 생명력은 시대적으로 의의있는 사상적내용을 얼마나 세련된 시적형상속에 담아냈는가 하는데 있다.

명곡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의 가사형상에서는 개념적이며 논리적인 표현도, 현란한 수식이나 미사려구도 없다. 구수하면서도 생활적인 어휘가 내는 맛을 소박하고 진실한 형상과 잘 조화시켜 승리와 영광만을 펼쳐온 위대한 당기에 대한 값높은 추억을 련상시키고있으며 그 련상의 힘을 빌어 빛발치는 승리를 《모든 영광》이라는 폭넓은 의미로 노래하고있다.

가요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에서는 작시법에 구애됨이 없이 소박하고 진실한 감정세계를 자유롭게 구가하고있으며 매 절마다에 《당기여》라는 부름을 독자적으로 주고있다. 형상이 진실하고 절절한것으로 해서 《당기여》의 목메인 부름은 독자들에게 두팔 벌려 찾고 부르는 《어머니시여》의 가슴뜨거운 부름으로 울린다.

어머니를 찾고 부르는 자식의 마음처럼, 그 어머니와 손잡고 혁명의 천만리를 함께 헤쳐갈 신념의 맹세처럼 가사형상이 꾸밈도 과장도 없이 진실하게 되었다.

이는 형식과 내용의 유기적인 통일을 원만히 이룬 본보기로 된다. 결코 운률조성이나 작시법상요구라는 틀에 구애됨이 없이 소박하고 진실한 감정을 그대로 펼쳐보여준 이것이 가사를 이토록 새로우면서도 실감있게 창조한 묘술로 되는것이다.

당을 노래하였고 당기를 추켜들고 영원히 승리해갈 신념과 의지를 구가하였지만 격조높은 웨침이나 현란한 미사려구는 없다.

어머니를 노래하는 자식의 목소리, 어머니와 손잡고 꽃같이 걸어갈 자식의 맹세만 있을뿐이다.

그렇다. 어머니를 찾고 부르며 어머니를 사랑하고 자랑하며 어머니와 함께 기어이 승리해갈 천만 자식의 신념의 열정이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노래되었다.

매 절가가 상대적으로 독자성을 가지면서도 제명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라는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의 정서로 통일시켜 천만군민의 격앙된 정서세계의 분출로 꾸밈없이 노래하고있다.

이것이 바로 가요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가 낳은 시대의 철학이며 시대에 남기는 신념과 의지의 메아리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한생이 인민을 위한 사랑과 정으로 숭배인 위대한 당기, 혁명의 모진 폭풍우를 신념의 표대를 우러르며 헤쳐온 천만전사들의 뜨거운 심장의 맥박이 고동쳐 승엄한 당기, 우리 군대와 인민을 따듯이 보살피고 손잡아 이끌어주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그 품이어서 그토록 아름답

## 사생결단의 신군길

주체100(2011)년 2월 9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우리 당이 걸어온 선군의 역사를 감회깊이 회고하시던 때였다.

일군들은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장군님께서 헤쳐가신 시련에 찬 나날들을 뜨겁게 돌켜보았다.

우리 장군님께서 그 간고처절했던 시기에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드시지 않으시었다면 우리 조국과 인민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것인가.

장군님께서도 어려웠던 그 나날들이 삼삼히 어려오시는듯 잠시 동안을 두시었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나는 오성산초소에도 2번이나 가보았다, 오성산에 올라가자면 칼벼랑길을 152굽이나 돌아야 한다, 오성산초소에 처음 갈 때에는 길이 얼마나 험한지 차가 전진하지 못하고 자꾸만 제자리걸음을 하였다, 그래서 나는 차에서 내려 헛바퀴가 돌 때마다 사정없이 휘뿌려지는 흙탕물을 맞으며 차를 밀지 않으면 안되었다....

일군들의 눈앞에 생각만 해도 등골에서 땀이 흐르게 하는 그날의 광경이 펼쳐졌다.

아찔한 칼벼랑과 깊이를 알수 없는 골짜기로 이루어진 1 000m이상의 해발고를 가진 오성산, 일군들은 적들이 코앞에 도사리고있는 오성산에는 절대로 오르실수 없다고 그이의 앞을 막아나섰다.

그러나 장군님께서서는 결심을 바꾸지 않으시었다.

고지에 인민군군인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왔

다가 내가 고지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된다. 최고사령관이 오늘같은 곳은 날씨에 전선의 험한 평길을 다녀보아야 우리 전사들의 생활을 잘 알수 있다....

그리하여 그이의 야전차는 아슬아슬한 오성산의 굽이굽이를 에돌며 한치한치 평길을 뚫아 오르기 시작했다.

세찬 바람과 폭우에 뿌리채 뽑히운 잡관목과 사품치는 흙탕물에 앙상하게 드러나 나뒹구는 돌뿌리들이며 눈길조차 돌리기 저어되는 깊은 낭떠러지.

참으로 위험천만한 길이었다.

고지정점으로 치달아오르던 야전차가 어느 한 순간에 헛바퀴질하며 아래로 미끄러져내리기 시작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순간이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차에서 내리시여 차체에 몸소 어깨를 들이미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못 잇을 그날을 돌이켜보며 깊은 감명에 잠긴 지휘성원들을 한 사람한사람 둘러보시며 우리가 헤쳐온 선군길은 이처럼 죽음을 각오한 사생결단의 길이었다고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께서 헤쳐오신 선군의 길을 생각하며 일군들은 가장 준엄했던 나날에 멀고 험한 최전연고지들을 찾고찾으시며 우리 조국을 굳건히 수호해주신 불멸의 업적을 영원히 잊지 않고 빛내어나가리라고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답고 빛나는 당기....

력사는 새기리라.

당이 위대하여 당기의 필력임이 거세차고 당기를 추켜든 인민의 힘이 백배하여 부르는 노래 또한 우렁참을 시대의 첩리로 쫓아박으리라.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명곡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는 《조국찬가》와 더불어 천만군민에게 신념의 표대를 세워주었고 우리 작가들에게 명작창작의 뜨거운 열정을 심어주고있다.

가요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가 시대와 력사앞에, 세계앞에 남기는 메아리는 무엇인가.

어머니시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

영원히 경애하는 원수님과 함께.

이것이 당기를 품어안은 천만군민의 심장의 목소리이며 당기를 추켜들고 승리만 펼쳐갈 우리의 신념과 의지의 웨침이다.

주체의 붉은 당기를 휘날리며 위대한 당을 따르는 길에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것을 철의 진리로 간직한 천만군민은 앞으로도 영원히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를 신념과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구절구절을 음미하여보는 심장마다에 뜨거운 쇠물과도 같은 열정을 심어주는 노래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의 비상한 감화력은 우리 당을 따라 이 세상 끝까지 혁명의 한길을 억세게 걸어갈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가 굽이치는 시대의 열정과 정신에 정서적바탕을 두고있다.

붉은 기폭에 숨배인 천만심장의 뜨거운 열기와 그 필력임속에 어려있는 끝없는 걱정과 염려의 샘이 하나로 합쳐져 또 하나의 명곡으로 태어난 노래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영원한 삶과 투쟁의 메아리로 새겨갈 충정의 노래이다.



# 새들이 날아든다

리 정 옥  
그림 김 광 석

한기복은 날이 밝기가 바쁘게 재촉했다.

《여보, 빨리 차비해주오. 가야겠소.》

늙은 안해는 군말없이 간밤에 준비해두었던 도중식사와 깨끗이 손질해놓은 옷을 꺼내들었다. 령감의 눈빛은 금방 잠자리에서 일어난 사람갈지 않게 초롱초롱했다. 뜬눈으로 밤을 새운것이 분명했다.  
(원 령감두...)

안해는 뭘 빠뜨린것이 없나 하여 그를 바라보았다. 흥분한탓인지 한기복은 옷옷의 팔을 제대로 꿰지 못했다. 자꾸 아래쪽으로 헛손질이 간다. 안해는 그러는 한기복에게 다가가 옷을 입혀주었다.

《이거 안됐소, 새벽부터 분주탕을 피워서...》

《늘쌍 그런걸... 무사히 다녀오거나 하시우.》

한기복은 빙그레 웃었다.

어제 저녁이었다. 집으로 들어서는 령감의 걸음걸이는 여느때와 달랐다. 스적스적 걸어들어와 옷을 털고 인츰 수도가에 가던 사람이 무엇에 홀린것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마당가를 서성거렸다.

《왜 그러시우? 무슨 일이 있었소?》

물어봐도 대답이 없었다. 뒤짐을 지고 한동안 마당가를 오가던 그는 《래일 가봐야겠어. 암, 가야 하구말구.》하고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그때까지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고 선 로친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여보, 기빠해주오. 고운 새가 찾아왔다지 않소, 상림리에...》

《상림리에요?》

안해는 눈이 둥그래졌다.

《그래!》

한기복은 입귀에 흘러나온 미소를 감추지 못한채

안해의 귀에 대고 또 속삭였다.

《그래서 래일 상림리에 가보자는거요, 아침일찍...》

그리고는 방안으로 쑥 들어가버렸다. 안해는 멍하니 그의 등을 바라보았다. 20년나마 안 오던 새가 이웃리에 날아왔다니... 잘 믿어지지 않았다.

령감이 얼마나 애면글면 새가 오기를 기다렸는지 안해는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상림리는 여기서 50리밖이다. 정말 상림리에 새가 왔다면 령감이 흥분할만도 했다.

방안에서 떨어덕거리는 소리가 났다. 령감이 집안에 들어가서도 진정하지 못하고 래일 떠날 준비를 하는 모양이다.

안해는 부질없는 소리인줄 알면서도 방안에 대고 이렇게 소리쳤다.

《그 먼 상림리에 갈게 있소? 이를 있으면 상림리 산림감독원이 총화지으러 분소에 오겠는데...》

《그래도 가봐야겠소. 눈으로 보는것 하고 말로 듣는것이 같소?》...

한기복은 드디어 차림을 끝내고 도중식사가 든 가방을 어깨에 메었다. 집을 나서면서 안해에게 일렀다.

《성오가 집에 오거들랑 오늘은 혼자서 산에 올라가보라고 하오. 다래꿀 양지쪽에 뿌려놓은 이갈나무모도 살펴보고... 내 인츰 갔다오겠소.》

《그러지요.》

한기복은 집을 나섰다.

마을은 아직 잠자고있었다. 그는 개들이 짖지 않도록 뒤길로 해서 마을을 지나갔다. 산기슭에 이른



그는 이웃마을로 들어가는 오솔길에 들어섰다.

전날 한낮때에 박성오와 함께 산림분소로 돌아오던 한기복은 바로 이 길에서 탄광마을의 녀의사를 만났었다. 평양에서 의학공부를 하고 고향인 탄광마을로 돌아온 녀의사는 나이는 젊었어도 의술이 높았다. 언젠가 사경에 처했던 한기복의 딸을 구원해준적이 있는지라 두사람은 만나면 퍼그나 반가와하는 사이였다.

아래마을에 왕진을 갔다오는 길이라며 이런저런 말을 하던 의사는 불쑥 기복에게 새둥지를 하나만 들어줄수 없는가고 물었다.

기복은 의아하여 물었다.

《새둥지는 해서… 뭘합니까?》

《우리 아들이 학교에 가지고가야 한다고 졸라서 그렇니다.》

《학교에서 새둥지는 왜 갑자기…》

한기복은 꼬치꼬치 물었다.

《자연관찰시간에 뭘 새둥지를 나무에 달아준대요.》

《새가… 어디에 있답니까?》

한기복은 심장이 후두두 뛰었다. 녀의사를 뵈히 바라보았다. 한기복의 속내를 알리 없는 녀의사는 무심히 대답했다.

《상림리에 있다고 그러던데요. 사람들 말이… 한참이나 구경했다고…》

《그래요?…》

한기복은 너무도 심장이 쿵쿵 울려 손을 지그시 가슴우에 얹지 않으면 안되었다. 녀의사는 당황했다.

《왜 그러니까? 어디 편치 않은데라도…》

《아 아니, 아닙니다. 너무 기뻐서, 이거 고맙습니다. 새둥지는 열개라도 만들어드리지요.》

녀의사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정쩡해있었다. 그다음 한기복은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 알지 못했다. 지금 그 새를 찾아 상림리로 가는 한기복의 마음속에는 또다시 말할수 없는 기쁨이 그들먹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상림리, 상림리…》

줄곧 이 말을 외웠다. 이처럼 반가운 소식을 혼자서 안고있기에는 너무도 아름답다.

드디어 오는구나.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한기복의 상념속에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슬몃슬몃 깃들기 시작했다.

…20여년전의 어느날.

령대풀어귀의 이깔나무밑에서 두 아이가 서로 맞붙어 싸우고있었다. 발치에는 가방이 덩굴고 옷에는 풀검불이 가득 묻었다. 땅에 엎치기도 했는지 얼굴에 흙이 잔뜩 게발려있었다.

《이걸 나라!》

《못 놓겠네. 다시 말해봐!》

《얼마든지 말하겠네. 〈병어리산〉…》

《뭘야?》

한기복이 당도한것은 이때였다. 그는 어깨를 그러쥐고 서로 노려보고있는 애녀석들을 보자 껍 소리를 쳤다.

《떨어지지 못할가. 힘이 남아서 싸움질이나?》

뜻밖에 한 아이는 아들 명갑이었다. 두 아이는 좀처럼 떨어질념을 안했다. 한기복은 가까스로 아이들을 뜯어말렸다. 떨어지자마자 아들 명갑이가 그의 품에 안겨들며 눈물을 펴펴 쏟았다.

《아버지, 저 성오가… 성오가… 여기 산들은 다 말 못하는 산들이래요. 〈병어리산〉!…》

《뭘라구?》

가슴 한구석이 쿵 찢려났다.

이마가 류벌나게 반들반들한 성오라는 애는 씨근거리며 명갑이를 쏘아보더니 말없이 발치에 나딩구는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대로 내뺄려는것을 한기복이 얼른 손목을 붙잡았다. 싫다고 몸을 빼는걸 세워놓고 옷에 묻은 풀검불도 털어주고 뒤로 돌아간 벡타이도 바로잡아주었다.

그리고는 등을 떠밀었다.

《가봐라.》

머뭇머뭇하던 성오는 나는듯이 산을 달려내려갔다. 아들 명갑이가 달려가는 성오를 보자 아버지의 옷자락을 쥐고 흔들었다.

《아버지, 저 애를 왜 혼내우지 않고 그냥 보내요?》

《그러면… 못쓴다.》

한기복은 갈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이 싸운 리유인즉은 이러했다. 자연관찰시간에 산에 오른 아이들은 새로 이사온 박성오라는 애가 자기가 살던 고장을 자랑하는 바람에 저마끔 자기들의 자랑거리를 털어놓기 시작했다고 한다. 명갑이도 지지 않고 아버지가 가꾸는 산들을 자랑했다. 이른새벽, 늦은밤도 가리지 않고 푸른 숲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 바치는 아버지를 보아온지라 사기가 나서 산자랑을 했다. 현대 뜻밖에도 성오가 공격을 했다.

《체, 그것도 자랑이야? 요전에 산에 가보니까 털어볼 새둥지 하나 없더라.》

《뭘야?》

《사실이 그렇지 않니? 새도 없는 산이 무슨 자랑이야. 〈병어리〉가 돼서 자랑이야?》

이쯤 되자 명갑이가 참지 못하고 먼저 성오에게 달려들었다.…

그날 밤 한기복은 한잠도 자지 못하였다. 《병어리산》이라는 말이 속에서 내려가지 않아서였다. 그 말처럼 가슴아프고 맺히는 말은 더는 없었다!



아이들에게서, 더구나 이 땅에서 나서자라고 이 땅을 위해 힘껏 일해야 할 후대들에게서 그런 말을 들으니 아픔은 몇배로 더했다.

그 애들의 가슴속에는 이 땅과 고향산천을 위해 바쳐온 아버지들의 모습이 사진처럼 찍혀져 있을 것이다. 아버지들이 흘린 땀과 열매를 보며 것처럼 일하고 것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한기복은 저도 모르게 몸을 부르르 떨었다.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오고말았다. 시꺼먼 하늘의 장막속에 잠긴 산들은 묵묵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나무 한대, 자그마한 오솔길도 눈감고 알수 있는 산이었지만 이 순간엔 어째선지 낯설게 느껴졌다.

이 일이 있는 다음부터 한기복은 산을 가꾸는데 더 극성을 부렸다. 나무들이 짝 들어차고 숲이 무성해지면 새가 날아올것이다!

한번은 조류학자가 그가 일하는 산림분소에 왔던 적이 있었다. 이 지역에 분포되어있는 새들을 조사장악하기 위해서였다. 마침이라고 생각한 한기복은 조류학자에게 묻기부터 하였다. 산에 새가 오지 않는 이유는 뭐요?

조류학자는 단마디명창으로 대답하였다.

《그건 새들이 큰 재난을 당했을 때입니다. 동물이란 앞으로의 일보다도 지나온 일만을 되살리는 경우가 더 많다고 난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럼 새가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요?》

조류학자는 한기복을 자세히 쳐다보았다.

《아바이대에는 불가능합니다. 다음대에 가야 합니다. 그것도 두고봐야 알 일이지만—》

한기복은 눈앞이 아찔했다. 휘청거리는 마음을 가까스로 다잡으며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아니요. 난 꼭 새가 오게 할테요. 그것도 가까운 시일내에...》

조류학자는 깜짝 놀라 한기복을 쳐다보았다. 혹시 실성하지 않았나 하여...

날들이 흘렀다.

새는 정말 오지 않았다. 진짜로 오지 않으려는지... 그러던차에 군대나갔던 박성오가 제대되어 조산리 산림감독원으로 배치되어왔다. 그가 발뒤꿈치를 딱 붙이고 거수경례를 할 때 한기복은 눈앞이 핑 돌았다. 그의 젊음과 힘과 용기가 부러웠고 한편으로는 그에게 《말 못하는 산》을 넘겨주게 되었다는 자책으로 가슴이 아팠다.

박성오는 인츰 한기복을 알아보고진정으로 반가와했다.

《산림감독원동진 여전하십니다. 앞으로 많이 배워주시시오.》

한기복은 기계적으로 머리를 끄덕끄덕했다.

다음날부터 그는 박성오를 달고 이산저산 오르내

렸다. 산의 토질이며 어떤 나무를 심어야 잘 자라는지 지나온 경험에 비추어 하나하나 이야기했다.

어느날 그는 집이 뻗히 바라보이는 령대끝어구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었다.

《좀 쉬고가자구.》

언젠가 박성오와 그의 아들 명갑이가 싸운 곳이었다. 한기복은 중얼거렸다.

《이상하거던. 산을 펄펄 날아다니다가도 여기에만 오면 딱 현기증이 나고 식은땀이 짹 흘러내리는게...》

박성오는 머리를 옆으로 돌리고 피씩 웃었다. 배고픈것까지 넘겨받아야 하는가 하는 기색이었다.

한기복은 넋지시 박성오를 쳐다보았다. 사실은 다른것을 기대했다. 이 장소에 오면 그가 오래전에 있었던 그 일을 아직까지 기억하고있는지 알고 싶었던것이다.

박성오는 아무런 내색도 없었다. 그 무엇도 묻지 않았다, 영민한 눈을 깜박거리거나 할뿐. 한기복은 그것이 더 괴로웠다. 그가 아직까지 새가 없는것을 모를리 없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돌중에 누구든 그 말을 꺼내야 했다.

침묵에도 끝이 있다. 더구나 바다속같이 깊고 무거운 침묵은 깨여지는 그 순간에 모든것을 말짱 드러내보인다. 진실과 허위, 망심... 그 모든것을!

이제라도 새가 날아왔으면... 한기복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박성오가 물었다.

《아들이 그리운 모양이지요. 하늘을 바라볼땐...》

명갑인 편지를 보내옵니까?》

《보내오지. 자네와 싸우던 이야기를 자주 하네.》

《...》

성오는 머리를 수그렸다.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날씨는 여전히 쾌청하고 좋았다. 봄이 왔다고는 하지만 여기저기에 겨울이 틀고있었던 자리가 력렷했다. 골짜기의 후미진 곳에는 혹독한 추위가 남겨놓은 얼음층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얼음층에는 마치 나무년륜처럼 보이는 얼기설기한 금들이 짹짹 뻗어있었다.

한기복은 물러가는 겨울의 마지막몸부림이 웅크리고있는 얼음층인것 같아 발로 툭툭 건드려보았다. 얼음층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히죽히 웃고나서 맑은 공기를 한껏 들이마셨다.

산중턱에 올라선 그는 주변경치를 한눈에 바라보았다. 골짜기에 들어앉은 마을들, 번듯하게 정리된 들판, 이제라도 구렁을 내리면 금시 달려갈것 같은 트랙포르들, 그런가 하면 저편 마을에는 장막같은 안개가 포근히 내려앉아있다.

문득 어디선가 새들의 지저귓소리가 들려왔다.

한기복은 놀래여 우를 쳐다보았다. 머리우 전선 줄에 제비들이 무리지어 앉아있는것이 보였다. 제비들은 길게 줄을 지어 마주앉아서 날아갈줄을 모르고있었다. 하얀 배와 조각을 한듯 한 작은 머리, 두갈래로 갈라진 꼬리가 하늘을 배경으로 뚜렷이 나타나는데 서로 똑같이 생겨서 어느 놈이 크고 어느 놈이 작은지 가려볼수 없었다. 이따금 지지배배 하고 목소리를 굴리는 모습은 일제히 하늘로 날아올라 어데론가 떠날 알맞춤한 순간을 기다리는듯했다. 제비들을 보며 한기복은 더없이 아름답고 숭엄한 그 무엇을 느끼었다. 이윽고 제비들은 하늘로 날아올라 저마끔 원을 그리며 미끄러지듯 공중을 쏜살같이 날아다녔다.

한기복은 점도록 제비들을 바라보았다. 제비들은 봄빛이 완연한 숲우에서 마지막으로 큰 원을 그리더니 제마끔 흩어지며 뒤섞여 돌아가다가 다시 모여 정연한 무리를 짓고 드넓은 하늘로 재빨리 멀어져갔다. 눈깜박할 사이에 제비들의 무리는 아득히 사라져버렸다. 이제는 하나의 검은 점에 불과했다.

한기복은 서운했다. 말 못할 애수가 가슴속에 차올랐다. 그토록 소중한 그 무엇을 잃은것처럼 아쉬움을 느끼었다.

가까이에서 인기척이 나는 바람에 한기복은 언뜻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웬 사람이 그가 서있는 산중턱으로 올라오고있었다.

처음에는 누구인지 알수가 없었다. 그가 가까이 다가와서야 한기복은 조산탄광지배인인 조수길을 알아보았다. 조수길은 그를 보자 깜짝 놀랐다. 이른새벽에, 그것도 인가와 멀리 떨어진 산중턱에서 한기복을 만났으니 놀랄만도 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놀라기는 한기복이도 마찬가지였다.

《왜, 난 첫새벽에 만나면 안된다던가? 자넨 어디 갔다오는 길인가?》

조수길은 싱글벙글했다. 기분좋은 일이 있는 모양이었다.

《그러지 않아도 아바이에게 말하려고 했었습니다. 탐사대가 요 며칠전에 저 산너머에서 굉장한 탄밭을 발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다시 확인하느라고... 에에... 아바이가 또 혼나게 댔습니다. 동발목을 보장하느라면...》

《일감이 많으면 좋은 일이지.》

조수길은 여전히 싱글벙글했다. 이제 탄광을 확장하면 기업소가 어떻게 번창하고 생산이 몇배로 올라갈거라는등 아는 소리를 다 주어섬겼다.

그는 목덜미의 땀을 훔치고 속에 있는 흥을 다 뽑고나서야 생각난듯 물었다.

《그런데 아바인 여기서 무엇을 보고있습니까.

올라오면서 보느라니 목을 빼들고...》

《제비들을 보고있지.》

《제비요? 제비가 어디 있습니까?》

《저쪽으로 날아갔지.》

《까짓거, 가겠으면 가라지요. 아바인 어데 가는 길입니까. 나처럼 좋은 일이...》

조수길은 또 싱글거렸다. 한기복은 통명스레 그의 말을 잘랐다.

《나한테도 좋은 일이 있네, 상림리에... 그래서 가는 길이지.》

《그래요?》

조수길은 무릎을 치며 제일처럼 기뻐했다. 아바인과 사업상연계가 많은 그는 한기복이 좋은 일이 있다니 무뎠기만한 모양이었다.

《이거... 오늘은 경사가 겹치는 날입니다. 아무래도 축하해야 할것 같군요. 우리 탄광에 오십시오, 기쁘게 맞이할테니.》

《그러지.》

한기복은 선선히 응했다.

《기다리겠습니다.》

조수길은 꺼벅 인사하고 점차 사라져갔다. 그가 멀어지자 한기복은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정적속에 홀로 남은 그는 한동안 망연히 서있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던가? 거짓말을 했지, 좋은 일이 있다고....)

《이보우 지배인, 거기 서라구.》

한기복은 소리치며 따라갔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고싶었다, 아니라고.

조수길은 뒤를 돌아보았다.

《무슨 일입니까?》

그는 근심에 싸여 물었다. 한기복은 성급히 그에게 다가갔다.

《사실은...》

다음순간 그는 진짜로 새가 날아올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도 걸잡을수 없는 힘으로 가슴을 내리눌러 진실을 말할수가 없었다. 한기복은 새가 온다는 희망을 도저히 버릴수가 없었다. 무슨 말을 하겠는가, 남의 말을 듣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새를 보러 간다고 하겠는가. 아니, 아니였다. 그는 희망을 놓치고싶지 않았다. 후에 죄다 말하리라...

《담배가 있소?》

생똥같은 말이 튀어나갔다.

《난 또 무슨 큰일이라도 난줄 알았습니다.》

조수길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주머니를 죄다 털었다.

한기복의 손에 담배갑을 쥐여주던 조수길은 웃으며 물었다.

《손은 왜 떠는겁니까?》

《늙어서 그래. 미안하이.》

조수길은 웃었다.

《그럼 잘 다녀오십시오.》

《고맙네.》

한기복은 대답했다. 그 자리에 멈추어서서 조수길이 가는것을 바라우며 후—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쉬이 걸음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조수길이와의 대화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재워있는 가슴저리는 추억을 건드리고야말았다. 조만해서 떠올리기 싫은, 그러나 그 아픔과 상처가 있어 오늘에도 줄곧 달음쳐온 한기복이기도 했다.

…그해는 가뭄이 일찍 들었다. 지독하게 내리쬐이는 해별과 찌는듯 한 무더위에 사람이고 나무고 모두가 혈땀이었다.

한기복은 얼굴이 새까매서 허둥거리며 날을 보냈다. 가뭄과 무더위가 꼭 무슨 일을 칠것만 같았던 것이다. 끝내 재난이 닥쳐왔다. 더운 바람과 지속되는 무더위, 내리쬐이는 해별에 나무들이 부딪치면서 불이 일었다. 불은 무섭게 타올랐다. 바싹바싹 마른 나무들은 순간에 불의 벼락을 입고 어지할 바를 몰라 우—우 소리를 내질렀다.

온 립산마을과 탄광마을이 펼쳐나 불을 꺾지만 불길은 좀처럼 수그러들줄 몰랐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불과 싸웠다. 불길은 온 하루낮, 하루밤을 타고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수그러들기 시작했다. 시꺼먼 연기가 하늘로 타래쳐올랐다.

한기복은 산이 아니라 마치 자기의 온몸이 불타버린것 같았다.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가꾸어온 산, 온갖 정성과 땀을 바친 귀중한 산이 그를 버리고 어데론가 떠나가버린것 같았다.

그는 망연히 산기슭에 서서 산을 바라보았다. 허탈감이 생겨 서있기가 힘들었다. 그는 며칠을 불탄 산과 함께 보냈다. 여기저기 타다남은 나무등걸이 아프게 눈을 찔렀다. 그에게 다시 생을 달라고 호소하는듯 했다. 그것을 보느라니 점차 뜨거운 결의의 감정이 고여오르기 시작했다.

불탄 산에 나무를 심어 기어이 푸른빛으로 단장시키리라. …

한기복은 억척같이 달라붙었다. 딸들이 울면서 아버지에게 매달렸다.

《아버지, 또다시 나무를 심는단 말이에요, 그만 큼 고생하고도…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그때는 아들이 태어나기 전이었다. 한기복은 딸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건 안된다. 한번 정을 주었던 산인데 끝까지 책임져야지. 너희들도 학교갔다 오면 이 아버지를 도와주렴.》

딸들은 눈물이 그렇그렇하여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그는 다시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인들 없었으며 무슨 일인들 못해봤으랴.

이른새벽이면 인분을 구워서 등짐으로 산에 올려

다 뿌리고 나무모를 키워서 그 어린 모를 산에 심었다. 어쩌다 일이 있어 이웃마을에 가는 경우에도 잔등에 언제나 나무모를 지고다녔다.

가을에는 다른 지방에 가서 나무종자를 따왔다. 종자를 따느라고 우만 쳐다보아서인지 한동안은 목이 아래로 숙여지지 않았다. 해마다 봄철이 오면 나무모를 키울 포전을 정성껏 만들었다. 그우에 이 짙나무며 잣나무종자를 뿌렸다. 까마귀, 메돼지가 씨를 파먹을가봐 밤새워 포전을 지키고 두더지들이 이따금 뿌리를 들춰놓는 일이 있어 삼지창을 가지고 두더지를 잡기도 했다.

꼭두새벽에 산에 올랐다가 날이 어두워서야 산에서 내려왔다. 그의 노력에 감복되어 립산마을뿐 아니라 온 탄광마을과 학생들까지 펼쳐나섰다. 산은 하루가 다르게 푸르러갔다. 그것을 바라보는 기쁨과 행복…

해가 감에 따라 더 많은 나무들이 산에 자리를 잡았다. 그의 정성을 알아 한해에 키를 솟구고 다음해에는 몸내기에 들어가고… 이렇게 나무들이 커갔다.

어느해인지 한기복은 산에 올랐다가 허기증을 만나 쓰러진적이 있었다. 비탈로 몇고개 구르는것을 다행히도 움푹 패인 커다란 웅덩이가 자기 품에 안아주었다. 풀검불이며 떨어진 잎사귀가 가득 쌓인 폭신한 웅덩이었다. 여기서 한기복은 정신을 잃었다. 그를 찾아 온 산림분소가 펼쳐나서고 산림용반아낙네들까지 불방망이를 켜들고 찾아다녔다. 그중에는 한기복이가 잘못될줄 알고 영영 우는 아낙네도 있었다. 그를 찾은것은 한밤중이 이속해서였다.

《산림감독원동지, 정신차려요. 예?》

아득히 먼곳에서 들려오는듯싶던 목메인 목소리… 그때 교대를 마치고 합숙으로 가던 길에 대오에 합세했던 조수길이 무작정 그를 들쳐업었다. 헉헉 뿔어대던 숨소리… 비오듯 흘러내리는 땀방울, 그런 속에서도 그는 한기복을 한번 들추고는 다른 손으로 눈물을 뺨 씻어내었다.

《산림감독원동지, 꼭 이렇게 일해야 합니까?》

그는 기척이 없었다. 한기복은 꿈을 꾸고있었다. 왕성하게 자란 나무들이 바람결에 이리저리 설레이며 이 땅의 고마움을 노래하는 꿈을… 나무들은 이렇게 속삭이는듯싶었다.

랑심과 정성이 깃든 땅은 영원히 그 주인을 잊지 않는다고…

재난의 흔적은 오래동안 산에 남아있었다. 얼마나 혼이 났는지 처음 몇해동안은 오가는 새들조차 볼수 없었다. 산은 줄지에 자기의 아름다운 주인들을 잃어버렸다.

한기복은 때없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새가 날아

## 한편의 가사에 비낀 시인의 인생관

조령출선생은 인생말년에 1편의 명가사를 내놓았다. 그의 마지막작품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누구나 다 알고있는 명가사 《어머니 우리 당이 바라다면》을 들을 때면 나는 남다른 감회에 잠기게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가 쓴 가사 《어머니 우리 당이 바라다면》을 높이 평가해주셨다. 분에 넘치는 치하를 받아안고 그렇게도 기뻐하던 선생의 모습이 지금도 나의 눈앞에 선하다.

나는 오늘 왜 이 가사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말하게 되는가.

그가 생존시에 얼마나 많은 가사를 창작하였으며 또 주제와 취급된 생활분야는 얼마나 다양한가. 나로서는 해방전에 쓴 가사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창작한 수많은 가사를 알고있지만 이 가사만은 내가 생각하고있는 그의 인생과 결부시켜 생각하게 한다.

《어머니 우리 당이 바라다면》이라는 구절을 매절 반복하면서 가사를 전개해나갔다. 선생의 지난 기간 가사를 음미해보면 이 가사는 나로서는 어딘가 직선적이라고 할만큼 에두르거나 형상적으로 가려고 한 흔적이 전혀 없는것이 특징이라고 보아진다. 무엇이 되라면 무엇이 되겠다는 식으로 너무도 명명백백하게 노래한것이다.

지난 기간 선생의 가사를 음미해보면 이렇게 씌여진 그리고 또한 그런 구조미를 가진 가사는 흔

치 않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사의 구도를 잡았을가 하고 생각해보던 나는 문득 가슴을 치는 생각이 있다. 한생을 창작과 창작지도일군으로 살아오면서 그는 과연 가사에 썩여진대로 그렇게 산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창작만을 놓고보면 그가 시인인가, 극작가인가, 영화문학작가인가, 고전문학전문인가 사실 구분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우리 문학의 모든 형식에 다 정통한 다재다능한 작가였다.

그리고 지도일군으로 일하면서도 아이들 설맞이대본창작으로부터 가극과 대공연대본창작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형식의 작품이든 가리지 않고 대원수님들로부터 받은 영예로운 임무를 제때에 책임적으로 수행하였던것이다.

한마디로 우리 당이 당정책가요가사를 쓸것을 바랄 때는 당정책가사를 썼고 가극혁명의 불길을 일으킬 때는 가극을, 영화를 만들것을 우리 당이 바랄 때는 영화문학창작에 심혈을 쏟아부었던것이다.

참으로 《어머니 우리 당이 바라다면》하늘끝에라도 가고갈 그런 각오속에 살아온것이 아닌가.

바로 이 가사 한편에 그의 인생관이 깃들어있다는 생각에 나는 이 노래를 무심히 듣지 않는다.

류 민 호

오는 광경을 그려보며 새가 날아오기를 기다렸다.

온갖 새가 날아와 등지를 틀고 즐겁게 노래부르고 그에 맞춰 짐승들이 졸다하게 뛰어다니고. 이 보배들을 가득 품에 안은 푸른 산이 정겹게 그를 바라보면 한기복은 그대로 쓰러져 눈을 감는대도 한이 없을것 같았다. 행복한 미소를 지을것만 같았다.

상림리 산림감독원은 느지막해서 산에 올라온 한기복을 놀라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하루사이에 주름살이 배는 더 늘었는가싶고 먼지에 절고 풀검불이 가득 달라붙은 바지가랭이는 어디에 걸쳤겠는지 찢어져 너털거렸다.

《어찌된 일입니까?》

그의 말을 못 들은듯 한기복은 다우쳐물었다.

《새가 어디에 있다구?》

《오— 그것때문에? 그거야 저기에...》

그는 한곳을 가리켜보였다. 하지만 그의 손이 가닿기도 전에 한기복의 눈길이 먼저 거기에 닿았다.

정말로 고운 새가 있었다! 부리가 뽀족하고 몸통이가 노란 아름다운 새가 나무줄기에서 툭툭 뛰어다니고있었다. 그는 입이 벌글서해졌다. 아직까지 느껴보지 못한 크나큰 환희가 온 얼굴에 미소로 가득 피어났다. 어린애와 같은 천진한 웃음이 주름잡힌 얼굴에서 즐겁게 튀놀았다. 이제는 온 산에 새들이 가득 날아들것이다. 그는 가슴을 부여잡았다. 이 기쁨을, 이 행복을 터치지 않고서는 견딜수가 없었다.

《종구만, 좋아. 응, 여보게— 하하하...》

웃음소리는 온 산에 메아리쳐갔다. 그에 화답하듯 푸른 나무가지들이 조용히 설레었다.

《원, 령감독두...》

상림리 산림감독원은 중얼거렸다. 불시에 솟아쳐오른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는 머리를 숙였다.

(이런 인간들,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자기 가슴에 다 품어안고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가는 김정일애국주의로 사는 이런 인간들이 많은 이 땅에 행복이 울수밖에...)





## 오 광 천

신창탄광공업대학의 교육조건은 얼마나 좋은가.

우리는 배우면서 일한다. 교정에서 배운것을 생산현장에서 산지식으로 다진다. 또 우리는 일하면서 배운다. 막장을 전진시키며 기대를 다루며 새라 새롭게 안겨오는 의문점들을 교정에서는 해명해주고 실력으로 다져준다. 대학생들이 해빛밝은 교정에서 과학을 배우며 휘황찬란한 미래를 꿈꿀 때 우리 탄부대학생들은 교정과 현장에서 기술과 실무를 한꺼번에 다진다. 자, 보라, 우리 탄광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의 절반이 탄광대학에서 배운 사람들이다. 그들이 실무능력에서 고스란히 대학을 나온 사람들 못지 않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은 신창탄광공업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일하는 6명 채탄공 교명학의 남다른 긍지였고 자기식의 우월감이였다.

이런 긍지와 우월감은 대학 2학년에 벌써 《묶음동발에 의한 분층식채탄》이란 요란한 제목의 채탄법을 연구해낸 다음부터 더해졌다.

그에게 있어서 탄광대학은 원대한 포부를 꽃피워주는 터전이였으며 인생의 자랑을 수놓아주는 집이기도 하였다. 명학은 대학을 사랑하였다.

교정에 등교할 때면 번마다 남다른 자부로 가슴 뭉클해움을 느끼곤 하였다.

그런데 오늘은 3학년에 진급하여 첫 등교임에도 불구하고 명학의 기분상태는 눈서리에 얼쳐진 파 일같았다.

한것은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묶음동발에 의한 분층식채탄》이 새로 온 당비서에게서까지 배척을 받은것때문이었다.

배척? 좀 과한 표현같았지만 명학에게는 그렇게만 생각되였다. 원래 명학은 8년전 석탄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현장에서 일하며 채굴공업의 최첨단이라 할수 있는 분층식채탄을 연구하였는데 대학을 다니

는 2년간 더욱 완성하여 열흘전에 탄광기술파에 제출했었다. 그런데 이런 그의 연구안이 정식 심의도 받아보지 못하고서 탱대를 받게 될줄이야....

《...글쎄 욕망이 하늘에 닿으면 천하를 꿈꾼다고 목표가 높으면 배우는것이 많겠기에 연구를 하는 동무를 대견하게 생각했다만 들켰어. 지식이란것은 한돌기한돌기 차곡차곡 다져 마침내 넘쳐나는것이 있어야 욕망을 성취하는거지. 그래 백수십여년의 채탄방법을 뒤바꾸는 그 분층식채탄을 욕망 하나로 성공시킬상실소? 연구사업은 개인의 권한이지만 연구도입은 성공여부에 따르는 맹정한 사고가 필요한 거요. 하물며 탄광에서 힘들게 개척하는 스채탄구역을 그런 확신없는 시험도입에 맡길수 있소? 그러니 자중하길 바라오.》

탄광의 기술문제를 책임진 일군의 점잖은 권고였으나 명학에게는 반발심만이 복돋아졌다.

물론 내가 누구보다는 쌓은 지식이 적을수도 있다. 하지만 분층식채탄은 누가 할수 있겠는가를 론하기 전에 누구든 꼭 성공시켜야 할게 아닌가.

그래 해방전부터 캐먹기 시작한 채탄구역을 오늘도 수많은 자재와 로력을 들여 반복채굴하면서도 기술적진보를 외면하는가? 하긴 그들에게는 탄부대학생의 연구안을 도입한다는것이 모험처럼 여겨지겠지. 바로 모험이라고 생각하는 그자체에 문제가 있다. 후대들이야 고생을 하든말든 새로 개척하는 채탄구역에서 재래식채탄법으로라도 생산을 많이 내어 그때당시에 평가를 받으면 그만이라는... 기술신비주의, 철저한 자기보신, 이것이 어찌 새 세기 산업혁명의 척후전선을 맡아선 탄부의 자세라 하겠는가.

이런 반박의 말마디들이 입안에서 맴돌았으나 명학은 어금이를 다져문제 돌아서고말았다.

(나는 왜 말 한마디 제바로 못하는가. 연구안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명학에게는 믿음이 부족했다. 연구안에 대한 과학기술적믿음에 앞서 그것을 성공시키기까지의 로정이었다. 독불장군이라고 채굴업의 새 경지를 개척하는 분층식채탄을 그때 따듯이 받쳐줄 손길이 없다면 성공시킬수 있겠는가. 어불성설이지. 하긴 나도 시키는 일이나 하며 연구한것은 논문으로 내서 학위나 받으면 이름도 내고 안타까울것도 없지 않겠는가. 그게 더 현명한 처사인지도 모르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명학의 가슴은 집계이라도 물린듯 옥죄여들었다.

우리 탄부들이 이렇게 자기보신의 길을 찾는다면 채굴공업의 현대화는 누가 하겠는가?

등골이 서늘해움을 느끼는것과 함께 걸음도 멎어섰다. 눈길은 자연히 방금 나선 행정청사로 돌아섰다. 하지만 발길은 못이라도 박은듯 따라서지 않았다.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잖아 알아주고 밀받침해줄 일군이 있을것 같지 않아서였다.

이렇게 명학이 오리무중에 빠져 바재는데 마주오는 두사람이 하는 말소리가 그의 귀전에 미쳤다.

《글쎄 탄광에 온지 얼마 안된 당비서동지가 해방전에 뿔은 고갱이 명학천과 이어진걸 어떻게 알았는가 하는거야. 거 옛말에서처럼 천기를 내다보는것이 아닌지... 하여간 이젠 우리 탄광이 물걱정을 모르게 됐어.》

키가 작달막한 사람의 말에 턱언저리가 유별스레 검승한 사람이 꼭삼처럼 너부죽한 손을 흔들며 빠기듯 말했다.

《여, 인민군대 정치일군으로 30여년 일했다는데 간단한가? 모르는게 있을수 없지. 갱일이면 갱일, 건설이면 건설, 지어 이 안에거까지도... (그는 자기의 가슴을 가리켜보였다.) 참, 자네도 알겠지. 요전에 당비서동지가 당위원회청사로 흐르던 증기를 우리 독신자합숙으로 다 돌린걸.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니까 하시는 말이 한겨울인데도 사무실이 너무 더워서 증기를 막았다는거야. 허, 숨을 입을고서 사무를 보면서도 말이야. 정말 우리 노동자들의 사정을 속속이 헤아려보는 당일군이야. 그래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탄광에 파견해주신게 아닌가.》

《그럼 자네 당비서동지를 만나보았나?》

《구레나룻》이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실은 나도 들은 소리인데... 하여튼 인물도 성격도 다 대를이더라구.》

말소리는 멀어졌으나 명학은 무엇인가 생각되는 것이 있어 움직이지 못했다. 이자 둘사이에 오고간 말중에서 고갱이요, 명학천이요 하는 소리는 당비서가 탄광에 와서 시작한 수도물공사를 두고 하는 소리였다.

원래 이 지대는 물원천이 바른 곳이었다. 그러다나니 탄광에 음료수를 길어먹는 세대가 절반이상이

나 되었다. 얼마나 물이 발랐으면 여기 탄광마을에는 이런 전설이 있었다.

마을에 힘이 장사인 한 청년이 살았는데 그는 물고생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샘을 찾자고 산에 올랐다. 수년간 이산저산 헤매며 손가락이 모지라질 정도로 흙을 헤쳐보았으나 샘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꿈속에서 백발의 신령이 나타났는데 그는 마을 사람들을 위하는 너의 지성에 감동하여 물을 주겠는데 자고있는 그 자리를 파보라는것이였다. 잠에서 깬 청년은 꿈이 하도 생동한지라 자던 자리를 파보았는데 과연 거대한 물줄기가 쑥 솟구쳐가지고는 마을쪽으로 호호탕탕 흘러내렸다.

그런데 욕심사나운 지주놈은 제 산에서 흐르는 물이기때문에 자기에겐 돈을 내기 전에는 길어갈수 없다고 호통쳤다.

사람들은 마을옆으로 흐르는 물을 보면서도 갈증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럴 때 신령이 노했는지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벼락이 치며 금시 흐르던 물이 그대로 돌들로 변했다.

지주놈은 돌로 변한 개울을 보며 울화가 치밀어 그 자리에서바위로 굳어졌다.

그후부터 물이 흘렀던 골안을 《돌강골》또는 지주놈이 죽은 곳이라 하여 《사망골》이라 불렀다 한다. 정말 사망골에 오르면 골짜기엔 온통 돌들이 깔려있고 그옆에는 배가 불룩 나온 사람모양의 바위가 서있다.

당비서가 갓 임명되어왔을 때 이 전설을 듣고는 한참 웃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정색해서 이렇게 말했다는것이다.

《전설속의 기적을 우리가 안아와야 합니다. 탄부가정들의 물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석탄생산을 높일수 없습니다.》

그로부터 한주일후 작업복차림에 로동화끈까지 동여맨 당비서가 후방과장을 비롯한 몇몇 일군을 불렀다.

《자, 우리 물을 찾으러 갑시다.》

일군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당비서가 전설속의 청년처럼 산판에 올라 샘을 찾자는건 아니겠는데...

그런 일군들을 당비서는 해방전에 뿔은 고갱으로 이끌었다. 거의 이십여리의 굴길을 걸어 맞은편에 나선 일군들은 입을 짹 벌렸다. 눈앞에 대동강의 작은 지류인 명학천이 흐르고있었던것이다. 이 물의 일부를 고갱으로 돌린다면 그야말로 온 탄광을 흠뻑 적시고도 남을것이였다.

일군들은 감탄했다. 이 고장에 태를 묻은 자기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것을 엇그제 탄광에 온 당비서가 어떻게 찾았을가. 혹시 비서에게 신령스러운 그 무엇이 깃들어있지는 않는지? 후에 알고보니 당비서는 탄부가정들의 물문제를 풀기 위하여 근 한주일간 밤을 패며 이 지대 지형도와 지질도, 고갱도며 문헌들을 연구했으며 현지를 수차례

나 밝아보았던 것이다. 그러니 탐구와 노력이 신령을 낳은 것이다.

그 다음날부터 탄광마을 수도화공사가 진행되었다. 명확천에서는 끝끝한 장정로력들로 무어진 돌격대가 물막이전투를 진행하고 그에 발맞추어 탄광에서는 수도관늘이기공사가 벌어졌다. 공사초기 일꾼들은 물막이공사가 끝난 다음 돌격대를 돌려 수도관늘이기공사를 하자고 했다.

두곳에 일판을 벌릴만 한 로력이 절대적으로 모자랐기때문이었다.

그때 당비서는 더 다른 말은 않고 자신이 직접 공사의 첫삽을 박았다.

날도 채 밝지 않은 이른새벽 탄광마을에 울려 퍼진 삽질소리가 처음엔 사람들을 놀래웠고 다음엔 뜨거운 충격을 몰아왔다.

우리의 생활을 우리자신의 손으로 창조하자!

가두녀성들은 물론이요 휴식날이면 직장세대들과 중학생들까지도 모두 떨쳐나섰다. 그리고보면 새 당비서에게는 자기 식의 특이한 사업방법이 있었다, 강요나 선동이 아닌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자신이 모든 사업의 주인으로 되게 하는...

바로 당비서가 탄광에 임명되어와서 시작한 이 첫 사업이 탄부들과 가족들에게 소개신처럼 내댈 그의 성격이었으며 인물상이었다.

이 한가지 사실을 다시 머리속에 떠올린 명확에게는 얼굴을 한번도 보지 못한 당비서가 친근하고도 가깝게만 여겨졌다.

이런 당비서라면 석탄생산부문에서 절박한 문제라 할수 있는 분층식채탄도입을 적극 지지해주지 않겠는가?

(진작 이 생각을 했어야 하는건데...)

명확은 순간에 마음이 거뿔해짐을 느끼며 당위원 회청사로 발길을 옮겼다.

그러나 방에는 당비서가 없었다. 탄부살림집건설을 위한 협의회에 참가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명확은 기요원에게 연구안과 설계도면을 당비서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속에 이런 편지도 물어놓았다.

《...이상에서와 같이 <묶음동발에 의한 분층식채탄>은 한번 막장을 전개해가지고 좀벌레 썰알 구멍내듯 탄을 캐내고서는 폐굴하였다가 탄층이 침하된 수십년후에 반복채굴하는 단층식채탄법과는 달리 단번에 한개 채탄구역의 석탄을 90프로이상 캐낼수 있는 채탄법입니다.

비서동지, 우리 탄광에서 새로 개척하는 지구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분층식채탄을 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날에 하던 단층식채탄은 물론 리력이 트고 안전한 방법이지만 미래가 없는 채탄법입니다. 그런데 탄광안의 일부 일꾼들은 안전을 운운하며 단층식채탄만을 고집합니다. 그대 우리가 낡은 채굴법을 답습하여 수많은 자재와 로력을 낭비하면서도 새 세기 산업혁명의 선행전선을

지켜섰다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당조직에서만이 옳바른 선을 그어줄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 연구안을 비서동지에게 올립니다. 6갱 채탄공 고명학 올림》

...이것이 바로 어제일이였다.

그런데 명확이 큰마음을 먹고 당비서에게 가져간 연구안과 설계도가 오늘 분층식채탄을 제일 반대하는 기술과장에게 밀어졌으니...

하루일을 끝내고 대학등교준비를 서두르던 명확을 방에 부른 기술과장이 열을 올려 말했다.

《...분층식채탄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내 그만큼 말해주었는데 그 완성되지도 않은 연구안을 가지고 당비서동지를 따분하게 만들어?》

《어째서 당비서동지가 따분해졌다는겁니까?》

《분층식채탄이란 제목자체도 생소한 당비서동지에게 연구안을 봐달라면 그게 따분하게 만든거지. 쌀독이 텅 빈것을 알면서도 찰떡을 해달라고 투정해서 어머니속을 태우는거나 마찬가지로 말이요.》

《탄광당비서동지가 분층식채탄을 모르신다는게 말이 됩니까?》

기술과장이 쓴입을 다셨다.

《천진하구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한다는건지... 동무, 인민군대에서 수십년간 정치일군으로 일하다 엇그제 군복을 벗은분이 탄광기술문제를 어떻게 알겠소? 그대 동무는 배속에서부터 탄개는 법을 배워왔소?》

《아니, 기술을 모르면 어떻게 탄광을 지도하겠습니까?》

명확은 말을 해놓고서 혀를 깨물었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앞뒤를 가림없이 망탕 말한것이였다.

기술과장의 얼굴이 이지러졌다.

《동무, 당일군의 직능은 행정기술사업이 아니라 말 자체로 당사업이란 말이요. 돼먹지 않게 누굴 혼시하러들어? 당장 나가오.》

명확은 어깨가 축 처져서 청사를 나섰다. 당위원회를 지나려니 저도 모르게 당비서방창문으로 눈길이 갔다. 어째선지 눈가에 핑그르 맺히는것이 있었다. 분해선가? 아니, 산같이 품었던 기대와 믿음이 일시에 무너지는데서 오는 실망감에서였다.

문득 명확의 머리에 소학교때 일이 떠올랐다.

...《어머니, 금성은 저 하늘에서 밝은 별로 보인다. 어디에 있나?》

어머니와 나란히 서서 은하수 흐르는 밤하늘을 바라보던 명확이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기대밖에도 어머니가 머리를 젓는것이였다.

《잘 모르겠구나.》

그때 명확은 실망했었다. 우리 어머니도 모르는 것이 있다니...

점차 자라면서 명확은 어머니에 대한 그 불만이 잘못된것이였음을 깨달았다. 어머니도 모르는것이 있는것이다. 그 아무리 천재라도 이 세상 리치를

최다 도통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였다. 인간의 지식이란것이 컴퓨터의 자료처럼 필요할 때마다 척척 꺼내들수 있는것이 아닐진대 방금 탄광에 온 당비서동지에게 전문기술을 바란다는것은 그야말로 생떼였다.

이러고보면 기술과장의 말처럼 새 당비서가 탄광기술에 대해서 아는것이 적다는것이 리해는 갔으나 어쨌선지 실망은 덜어지지 않았다. 꼭 어린시절에 어머니에게 품었던 불만처럼...

바로 등교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라 명학의 기분상태가 좋을리는 만무한것이였다.

그의 인상은 강의실에 들어선지 한참후에도 비꽃을 털어대는 하늘처럼 흐리터분한채 좀처럼 퍼일줄 몰랐다.

《무슨 일이 있었나? 물독에 빠졌던 수탉처럼 후줄근해 있으니 말이야.》

공무직장에서 반장을 하는 허춘풍의 말이었다.

명학은 이마살을 찌프리며 머리를 저었다.

《몸이 좀 말썽했는데 지금은 일없어.》

《다행이구만. 하긴 돌부처가 울었다면 믿을수 있을는지 몰라도 고명학이가 양기를 잃었다면 비상사고라 할수 있지. ... 그건 그렇구, 자네 우리 탄광에서 래달부터 건설할 살림집설계도를 보았나?》

《아니, 못 보았어.》

《모두가 3층이상인 현대적인 다층살림집인데 얼마나 멋쟁인지... 이참에 자네도 색시를 빨리 얻게. 호화주택이 차례진다구. 내 이럴줄 알았으면 결혼을 서두르지 않는건데... 참, 그 설계를 새로 오신 당비서동지가 했다는데 거의 반생 군복을 입고있는분에게 그런 재간이 있다는게 믿어지지 않더라니까. ...》

《모르는 소리. 당비서동지는 제대전에 어느 군부대의 정치일군이였지만 설계, 시공, 미장, 목수, 용접 모든 면에서 막힘이 없었다지 않나.》

7장에서 굴진초소장을 하는 경찰이가 한마디 깨끼였다. 명학은 입을 다셨다. 또 새로 온 당비서에 대한 소리였던것이다. 그는 저도 모르게 코웃음쳤다.

(흠, 다재가 무재라는 소리가 있지.)

이럴 때 강의실 뒤문이 열리며 나이지숙한 사람이 가방을 든채 이마에 가득 맺힌 땀발을 훔치며 들어섰다. 나이도 많은데다 중키에 넓고 다부진 몸매며 어글어글한 눈매에서 풍기는 그 어떤 위엄을 느끼며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새로 오신 선생님인가? 그런데 오늘 첫 강의는 우리 담임선생님의 과목인데...

학생들이 의문을 안고 머리를 기웃하는데 방금 들어온 사람이 결결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동무들, 안녕하십니까? 전 이 학급에 새로 편입되어 공부하게 되는 정성호라고 합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학생들이 두릿두릿 서로 눈길을 주고받다가 그만

에야 웃음을 터쳤다.

《아니, 아바이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시였길래 대학공부란겁니까?》

《내 나이 지금 원여섯이지.》

《하, 아바이대학생이라. 아니, 그 나이에 무얼바라서 대학에 다닌다는겁니까?》

《자넨 뭘 바라는것이 있어서 대학을 다니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자고 배우는것이 지.》

《그렇긴 한데... 아마 공부하기가 수월치 않을겁니다. ... 그건 그렇고. 아바이, 제 옆자리가 비었으니 여기에 앉으십시오.》

《고맙네.》

아바이가 푸점좋은 인상에 웃음을 담으며 의자에 앉는데 이 학급담임교원인 정해순이가 앞문을 열고 강의실에 들어섰다. 학생들이 일시에 일어섰다.

교탁앞에 나선 해순은 고개를 약간 숙여 인사를 하고는 학생들을 자리에 앉히였다.

《오늘 강의에 앞서 동무들에게 이번 시험에서 전과목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 학급에 편입되어오신 탄광당비서동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러니 저분이 새로 오신 당비서동지란 말인가. 그리고 우리 학급에서 공부를 하신다고...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가?

놀라움, 대단한 놀라움이었다.

...하루강의를 마친 탄부학생들이 너무 영글어 살금바람에도 후드득 떨어질듯 한 별들을 이고서 집으로 돌아가고있었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가 좋긴 좋아. 글썄 이 허춘풍이가 당비서동지와 나란히 앉아 공부하게 될줄이야.》

《그게 정말인가?... 하, 실로 세상에 전무후무한 일이군. 선졸의 당비서동지가 대학생이라... 이건 정말 세계기록집에 오를만 한 일이야.》

《내 오늘 바른 몸자세를 하고 선생님의 설명을 주의깊게 듣는 당비서동지가 얼마나 돋보이든지. 그래서 생각했지, 배우려는 열망이 인격의 최고표현이라고... 확실히 인민군대에서 수십년간 당사업을 해온분이 잡도리부러가 달라. 우리 탄광이 진짜 주인을 만난것 같애.》

명학을 비롯한 몇몇의 학생들과 함께 걸어가던 정성호당비서는 앞서가는 탄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쨌게 미소했다.

《저 친구들 비행기를 태우는군.》

당비서가 대학공부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놀라움게 생각한 사람은 그들만이 아니였다. 대학의 모든 학생들과 교원들이 놀라움게 생각했다. 오늘 하루만도 강의시간에 창유리를 통하여 기웃이 들여다보고 간 사람이 백은 넘을것이었다. 그뿐만이라. 이제 소문이 날으면 온 탄광이 놀랄것이었다. 하지만 그 놀라움후에 의혹도 따랐다.

나이도 적지 않은데다 사업도 바쁜 당비서가 꽤 과장안을 따라갈수 있겠는지...

이런 생각에서인지 경찰이가 불쑥 말했다.

《비서동지,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은 높은 수준입니다. 힘드시겠는데...》

당비서는 후더분해보이면서도 무엇인가 열정적인 빛이 흐르는듯 한 눈길로 경찰을 바라보다가 손에 들었던 가방을 들어보였다.

《정말 힘들겠소. 오늘 받은 숙제만 해도 한두 시간엔 어림이 없겠더군. 하지만 해야지, 일을 하려면 말이요.》

《비서동지, 당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이 기본인데 꼭 전문지식을 소유해야 합니까?》

정성호당비서가 의미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비서가 어쩌서 책임단위의 전문기술을 소유해야 하는가. 거 먼데 같것 없이 가까운데서 실례를 들면 말이요. 어제 어떤 젊은이가 새로운 채탄법을 연구해서 나에게 가져왔는데, 허참... 동무들, 혁명연극 〈딸에게서 온 편지〉를 보았지? 이 당비서의 신세가 자기 딸의 기쁜 소식도 알아볼수 없는 연극의 주인공이나 다름없더군. 배운게 없으니 연구안을 지지할수도 없고 반대할수도 없고... 어느 영화에서처럼 택간이심정 그대로라니까.》

학생들이 와 웃음을 터쳤다.

《동무들, 웃을 일이 아니요. 그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찌기 행정기술일군들이 천재여야 한다면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 당일군은 만재가 되

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신거요.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하는 현시대에 인간의 지적측면을 리해할수 없는 당일군은 문맹자나 같소. 참, 아까 동무들의 부름말이 좋더구만. 아바이대학생. 앞으로도 그렇게 허물없이 대하여 이 당비서의 학습과 사업을 많이 도와주요.》

《비서동지! 있는 힘껏 돕겠습니다.》

학생들의 한결같은 대답이었다. 명학은 온몸에 차오르는 후더움을 느끼며 당비서를 바라보았다. 당비서는 그런 명학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명학동무, 이 당비서에게 실망했겠지. 허, 내 동무 연구안의 내용은 갈라볼줄 몰라도 분층식채탄의 필요성은 잘 아오. 우리 서로 배우고 보충하며 연구안을 꼭 성공시키자구.》

푸릿한 달빛에 안겨오는 그의 우선우선한 얼굴에서 친화의 빛발이 쏟아져나오는듯 했다.

명학은 저도 모르게 당비서의 팔을 그러잡았다. 가슴속에서 무엇인가 뜨겁게 굽이치는것이 있었다. 아니, 툭 터지며 세차게 분출하는것이 있었다.

아, 이런 당일군들이 있어 우리 탄전의 밝은 미래가 펼쳐지는것이 아니라.

...그날 늦은 밤, 연구안을 검토해나가던 명학은 무심결에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눈에 쏙 안겨오는 불빛이 있었다. 당비서방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불빛, 탄전의 래일을 당겨오는 밝은 불빛이었다.

## 상 식

### 인공위성들은 지구로 어떻게 돌아올수 있는가

어떤 인공위성은 임무를 완수한 후에 지구로 돌아오게 된다. 실례로 지구를 위성촬영한 필립, 우주공간에서 실험을 한 재료, 동물과 식물종자 등을 싣고 지구로 돌아와야 한다. 이런 인공위성을 귀환식위성이라고 한다. 인공위성이 돌아오는것은 우주비행임무의 마지막 단계로 되며 그것은 우주비행기술의 수준을 반영한다.

인공위성이 하늘에 올라가는 것과 반대로 그것이 돌아오는 과정은 감속과정이다. 인공위성이 돌아올 때 회수해야 할 물품과 필요한 설비를 선제안에 보관하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은 돌아오는 과정에 버려 그것이 대기 중에서 불타 없어지게 한다.

귀환선이 우주궤도로부터 안

전하게 지구에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5가지의 어려운 고비를 돌파해야 한다.

첫째로, 자세를 바꾸는것인데 인공위성을 그 운행궤도의 자세로부터 귀환자세로 정확히 바꾸어야 할뿐아니라 그 안전성을 보존해야 한다.

둘째로, 제동시키는것인데 제때에 제동로켓을 점화하여 원래의 운행궤도를 리탈하여 예정된 귀환궤도에 들어서게 하여야 한다.

셋째로, 열에 견디는것인데 귀환선이 지구대기층에 들어온 다음부터 공기마찰이 생겨 인공위성절면온도가 1 000℃이상으로 되기때문에 고온조건에서 불타 없어지지 않게 하여야 할뿐아니라 귀환선내부온도를 기

구가 동작할수 있는 온도로 유지하여야 한다.

넷째로, 유연하게 착륙해야 하는것인데 락하산이나 귀환계통을 대기층의 비교적 낮은 고도에서 리용하게 하여 느린 속도(약 10%)로 착륙하여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섯째는 떨어지는 위치를 찾는것인데 귀환선이 떨어지는 위치를 정확히 예보, 측정하여 사람들이 가능한 빨리 귀환선을 발견하고 회수작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인공위성귀환기술은 인류가 우주를 정복하는데서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기술이다. 위성발사기술을 보유했다는것은 결코 인공위성귀환기술을 보유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 초

## 태양의 별들

리 찬 호

### 밝은 웃음

고인은 웃고…  
조객은 울고…  
상실의 아픔만이 여기에 있던가  
영생의 노래가 여기에 있다

생을 마친 사람들이  
꽃같은 웃음을 피워놓은 용사묘  
어머니앞에 위훈 세우고 오겠노라고  
싱글벙글 웃으며 떠나던 모습들

이들이 그리도 귀중하시여  
이들을 그냥은 보낼수 없으시여  
그 모습 돌사진에 새겨 빛내주신  
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부모처자보다 더  
전우들보다 더  
떠나간이들을 두고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을 안으신분

한명… 한명  
생전의 모습을 밝게밝게  
돌사진에 새겨  
무궁세월에 빛내여주신분

용사들의 환한 웃음  
땅에 결코 묻을수 없는 웃음이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웃음이  
용사묘 여기에 차고넘친다

### 유 언

유언도 못 남기고  
우리결을 떠나간 용사들  
사랑하는 안해와 자식들앞에  
하고싶은 말 왜 없었으랴

돌사진앞에 무릎을 꿇고  
자식의 얼굴을 쓰다듬는 어머니  
혈친들과 이웃들앞에  
병사가 하고싶은 말 왜 없었으랴

잊지 않으리라고 부디 건강하시라고  
짧아도 한생이 담긴 말  
자식들을 훌륭히 키우라고  
안해에게 부탁도 할수 있었으리

허나  
서로 다른 직무와 나이

서로 다른 부모처자 형제들에게  
전우들에게 전하는 그들의 유언

바라보시라  
그들의 불타는 눈빛을  
들어보시라  
절절하게 웨치는 그들의 목소리를

사랑의 품에 자기들을 안아주시고  
자기들의 묘주가 되어주신 최고사령관동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인 그이를  
영원히 받들어모셔달라는 진정이 아니냐

폭음과 폭풍에 사라진것 아니다  
그 념원 그 목소리는  
세월이 갈수록 더 크게 더 쟁쟁히  
무궁세월에 전해질것이다

## 이 아들은 당원이 되었습니다

—렬사의 말—

기뻐하십시오 어머니  
제가 인민군대에 입대한다고  
밤을 꼬박 새우며  
청년동맹원증주머니를 새로 만드신 어머니

누이는 붉은 천에 수를 놓고  
어머니는 한뼘한뼘 바느질을 하며  
이 아들이 당원이 될것이라고  
외우고 또 외우셨지요



어머니가 만든 청년동맹원증주머니를  
늘 가슴에 품고  
이 아들은 눈비도 달게 맞았습니다  
사나운 파도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당원인 갑판장을 따르며  
아직은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그 꿈이  
글썸 열여덟 애어린 나이에  
이렇게 이루어질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리수복영웅처럼  
후세에 전할 위훈 세운것도 아닌데  
병사가 가야 할 전투의 길을  
지휘관들과 함께 갔을뿐인데

어머니  
이제는 눈물을 닦으십시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 웃는  
어엿한 이 당원을 축하해주십시오

나도 이젠  
로당원인 할아버지와 아버지결에  
나란히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대오속에 나도 들어섰습니다

명이 끊어졌다고  
생이 끝날가요  
아닙니다 어머니  
시대의 발걸음에 저의 보폭도 맞춰갑니다

다시 보십시오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어머니에게 보내주신 저의 사진도  
우리 당기폭에 싸여있지 않습니까

아,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나의 병사생활은 계속됩니다 어머니  
최고사령관동지의 품에 안긴 전사는  
영생의 영광속에 살아있는것입니다

## 부사수의 말

누가 말했거나  
남편을 잃으면  
앞산이 보이지 않는다고  
눈앞이 캄캄해진다고

나도 사실 그랬더라  
발자국소리조차 귀에 익어  
밥그릇을 덥히며 기다리던 남편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주저앉고말았을 때  
시어머니조차 실신하고말았을 때  
누가 나를 일으켜세워주셨거나  
누가 시어머니를 일으켜세워주셨거나

다시는 다시는 볼수 없다면  
남편의 유해가 용사묘에 옮겨지고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용사묘의 묘주가 되시었을 때

나는 자리를 차고 일어나지 않았던가  
꿈만 같아 눈을 비비며

둘사진을 다시 보니  
분명 집을 나서며 싱글벙글 웃던 그 모습

—여보 나는 죽지 않았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영웅으로 내세워주신 이 사수가  
이렇게 부사수를 찾아오지 않았소

애국렬사증을 받아안을 때  
나는 그를 다시 만난듯  
위대한 령장께서  
붉은기에 싸안아주신 남편을

그는 오늘도 전호의 사수  
나는 오늘도 그의 부사수  
언제나 그와 어깨나란히  
전호의 한구간을 지켜서야 하리

아, 군관안해들은 남편의 부사수라 하신  
위대한 령장의 그 믿음 내 어찌 잊으랴  
바다의 방패 남편과 함께  
나는 오늘도 그의 부사수가 되리라

## 태양의 별들

저 하나 위해 뛰는 심장은  
때가 되면 멎고  
운명의 보호자가 없는 인생은  
락엽마냥 쓸쓸히 묻히는 법

허나 위대한 품에 운명을 맡긴  
우리의 삶이 어찌 끝이 있으랴  
우리를 감싸안은 붉은 기폭이  
어찌 순간인들 벗겨질수 있으랴



일어번지면서 별이 비껴들지 못했다.

그런 날이면 틀림없이 어머니는 돌아오지 못했다.

가까운 바다에서부터 밀려오는 파도가 강에까지 미쳐 배를 띄울수 없었던것이다.

개구리늪에 별이 내려앉아야만 돌아오는 어머니.

선녀는 그래서 개구리늪에 내리는 별들을 기다렸다. 무수히 많은 별들을 품어안은 작은 늪을 사랑했다. 물아귀꽃 몇줄기가 가냘프게 자라는 보잘것 없는 늪이었지만 그 늪엔 밤마다 어머니 오시게 하는 착한 별들이 내려왔다.

선녀는 늪가에 홀로 앉아 노래를 불렀다.

고운 별아 착한 별아  
개구리늪에 내려오너라  
우리 엄마 빨리 오시게  
우리 아빠 어서 오시게

고요한 저녁 아빠엄마 한데 모여 행복하게 살 날을 그리며 소원의 별을 부르는 선녀의 노래가 산층에 처량하게 울려 퍼졌다.

어린 소녀는 별을 애타게 불렀건만 소박하기 그지없는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별에 자기의 소원을 부쳐보곤 하던 천진한 소녀의 생각은 이듬해 가서야 뒤바뀌어졌다.

나라가 해방되어 아버지가 돌아오고 어머니의 지긋지긋한 품팔이도 끝이 났다.

분여받은 새땅.

땡 - 땡 - 아버지이름이 새겨진 표말박는 소리에 늪에 내린 별들이 놀란 눈을 뜨고 반짝거렸다.

개구리울음소리 소란하던 늪이 번뜻하게 메워지고 새로 지은 집 앞 작은 터밭엔 고추며 부루가 푸르싱싱 자라올랐다. 비어있던 오지독엔 빨갛게 고추물이 든 김치가 가득차 향기를 풍겼다.

아버지, 어머니는 늘 선녀와 함께 자고 함께 일터로 간다! 이 행복한 현실에 선녀는 잠시 어리둥절해졌다. 별이 내려올 때도 풀리지 않던 소원이 그 늪이 사라진 오늘에 풀리다니...

...

가엾은 어린 녀를 달래며 아득한 곳에서 웃음짓던 저 별들.

별은 어제날의 그 별이건만 이밤 그 별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은 그때와 전혀 다른것이였다.

40고개를 넘어서 낳아놓고 언제 먹을 보랴 했던 아들이 나라에서 제일 큰 대학의 교원이 되고 우주를 연구하는 큰일을 한다고 입가에서 자랑이 떠날 줄 모르는 어머니이다.

이 아들이 우주과학분야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과학적성과를 이룩한 날에는 《나는 어릴적에 별을 보며 울었는데 내 아들은 그 별을 하늘에 띄우는 사람이 되였소. 우리가 이제 하늘의 주인이 되였소!》하고 소리치며 굵은 허리를 쭉 펴고 두리둥실 춤을 추었다. 땅의 주인이 된 잊을수 없는 그날에 추던 돈돌라리춤을 말이다.

그런데 어머니가 더 큰 행복을 받았으니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구상하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실로 꽃피워주신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으로 이사한것이였다.

이런 훌륭한 살림집을 안겨주시려 몸소 건설장을 찾아오시여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완공을 앞둔 그날에는 여러 살림집들을 돌아보시며 기쁨에 넘쳐 환하게 웃음지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비낀 창문마다에 별들이 내려와 반짝인다.

해방전의 소녀가 애달픈 소원안고 바라보던 그 별들이 오늘은 원수님의 사랑이 어린 살림방에 든 어머니가 부러워 다투어가며 들여다보고있다.

인민을 위해서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멀고 험한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정녕 원수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별을 따다주시였다.

인민의 웃음소리 넘쳐흐르는 룡라인민유원지며 류경원, 문수물놀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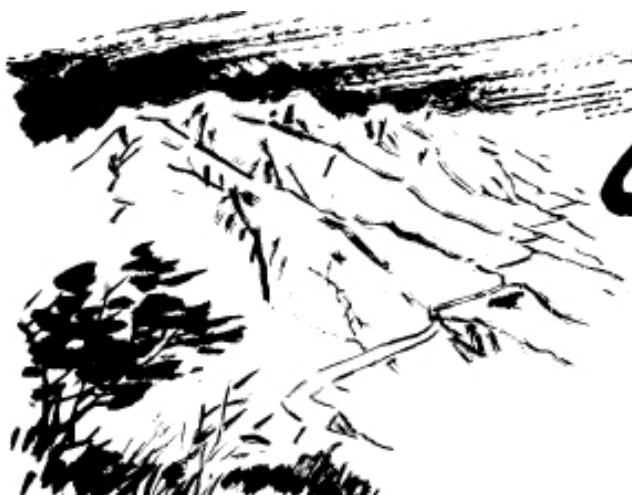
그 모든 기념비적건축물들이 나의 눈앞에는 원수님께서 따다주신 행복의 아름다운 별들로 안겨온다.

이밤도 래일에 대한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시며 지새우고계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별빛속에 어려온다.

원수님께서서는 지금 어느 별하늘아래 계실가.

그토록 사랑하시는 인민들에게 또 어떤 별을 따다주실 구상을 하고계실가. ...

별에 대한 어제날의 추억과 함께 경애하는 원수님 생각으로 잠들수 없는 밤. 오직 그이만을 믿고 따르려는 총정의 맹세속에 조국의 밤은 이렇게 깊어가고있다.



# 여름밤의 이야기

리 경 명

저녁노을빛에 물든 연분홍빛안개가 고즈넉이 젖어내리는 깊은 골안에 그윽한 정서를 부르며 노래 소리가 흐른다.

경사진 산락을 깎아내고 거기에 날아오를듯 붙여 지은 아담한 집 한채...

노래는 그곳에서 흘러나오고있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첫걸음마 떼어준

정든 고향 집뜨락 조국이어라

...

아늑한 방안에서 손풍금을 타며 노래를 부르고있던 어린 처녀애가 느닷없이 손을 멈추고 방실 웃는다.

《엄마, 우리 집뜨락도 조국이나?》

물결레를 손에 쥔채 딸이 부르는 노래에 취해 그 뜻을 음미하고있던 정숙이 대답했다.

《그럼... 조국이구말구.》

이윽고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미송이도 다가섰다.

정숙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자, 봐라.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결한 곳이나.》

어느덧 저녁노을은 스러지고 눈앞에 마주선 문옥봉우에선 둥근달이 쟁반같은 자태를 드러내며 뽀얀 빛을 뿌리기 시작한다.

창문을 내려다보니 산판에서 자라는 산삼, 도라지, 삼지구엽초 등 효능높은 약초들의 뿌리를 씻어 내린 정갈한 옥계수가 산촌의 고요를 깨칠가 저어하듯 굼실굼실 굼이며 조용히 흘러간다. 둥근달을 띄우고 춤을 추며...

《야! 멋있네. ...》

미송은 손벽을 쳤다.

《물에 뜬 저 달! 달이 싱글벙글 웃는것 같어요.》

《웃구말구. 노래에 있는것처럼 정말 그림같이 황홀하구나. 이 좋은 땅, 이 좋은 고장을 더 아름답게 가꾸자구 아버지두 어머니두 몸바쳐 일한단다.》

《엄마! 저 달 사라지기 전에 아버지도 함께 보면... 아버지진 오늘도 늦게 들어오나?》

《네가 숙제를 다하면 아버지도 들어와서 수표를 해주실게다.》

신창청년탄광의 업무부 국토과 부원으로 일하면서 도로관리소대를 책임지고 미륵령을 맡아 관리하고있는 우광철의 안해인 정숙은 이 말을 하면서도 남편이 언제 들어오겠는지 가늠이 잘 가지 않았다. 들어오는 시간, 나가는 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남편이다.

잠시후 정숙은 책꽂이를 정리하다가 뽑아든 두툼한 필기장갑피에서 사진 한장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것을 주어들었다.

평시에 사진찍는데는 전혀 무관심한 남편의 필기장에서 사진이 떨어지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들여다보니 며칠전 삼송굽이의 새로 쌓아올린 웅벽앞에서 도로관리소대가 찍은 사진이었다.

미송이 어느새 뽀르르 다가와 들여다보더니 손가락으로 푹푹 짚어가며 재깁거린다.

《조장아지미, 엄마, 영옥아지미, 송할머니, 은희언니...》

미송은 순간적으로 골살을 찌프린다.

《피- 밍다. 아버지진 똑바우야. 모두들 활짝 웃는데 아버지진 이게 뭐람.》

정말 그랬다.

살이 빠진 퍽퍽한 얼굴을 해가지고 웃지도 않고

서있는 남편의 모습이 안겨왔다.

산세급한 미륵령의 십여리구간을 말아안고 그 령길을 잘 관리하겠다고 밤낮이 따로 없이 뛰어다니는 남편의 수고가 새삼스레 마쳐왔다. 항상 바쁘기만 한 사람...

이 사진을 찍게 되던 그날의 광경이 어제런듯 새록새록 눈앞에 다가온다.

...옹벽이 완성되던 날 도로관리원들은 너나없이 자기들의 창조물앞에서 가슴들을 들먹거렸다. 바친 땀과 노력이 몽땅 기쁨으로 변한듯 했다. 그야말로 세멘트, 모래를 땀으로 버무려 저 한개한개의 돌들을 쌓아올리지 않았던가.

가슴이 터질듯 한 격정을 누를길 없어 처녀시절 탄광기동에술선동대원이었던 영옥은 옹벽앞에서 팔을 흔들어가며 자작시까지 읊었다.

나무모 하나라도  
내 손으로 떠옮긴 산기슭에선  
무심히 그저 지나칠수 없더라

달리는 차창너머로 바라보니  
돌 한개라도  
땀바쳐 쌓아올린 산굽이에선  
그냥 눈길 못 떼겠더라

한생에 걸은 길 평탄한 길은  
저 멀리 망각속에 사라져가도  
아, 내 정녕  
힘바쳐 땀바쳐 헤쳐온 길은  
추억으로 아름답게 되살아오더라

그때까지도 새로 쌓아올린 옹벽을 찬찬히, 어찌 보면 끈끈스럽다 할 정도로 손바닥으로 짚어가며 살피고있던 우광철의 손을 제일 나이 어린 은희가 잡아끌었다.

《부원동지! 옹벽앞에서 사진찍자요.》

모두들 떠들어댔다.

《그러자요!》

《어서 찍자요!》

《사진?...》

우광철은 허리를 펴며 모두를 돌아보았다.

광철은 잠시 무엇인가 생각을 하더니 입귀를 일그러뜨리며 어색하게 웃었다. 그리고도 한참만에야 응했다. 《찍자구.》

끈끈스럽기란... 사진 한장 찍는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구... 그때 정숙은 그렇게만 생각했었다. 우광철이까지 응해나서니 모두들 기분이 붕뚱했다.

잠간사이에 도로관리원들은 제각기 자기나름의 자세를 취하며 자리를 잡아섰다.

어느새 사진기를 주켜든 사진사(전문사진사는 아니었다.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다면 늘 사진기를

가지고다니는 관리원들중의 한사람이었다.)가 막 셔타를 누르려는데 《가만-》하고 우광철이 손을 내들었다.

(?...)

다들 눈이 휘둥그래서 바라보았다.

광철은 머뭇거리며 말했다.

《사진은 래일 찍는게 어떻소? 이대루야 어떻게...》

누군가 제격 말꼬리를 받아물었다.

《이대루가 어때서요? 작업복 입은채로, 일하던 모습 그대로 찍어야 진짜기념이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냥 찍자요.》

모두들 벅적 떠들며 서둘렀다.

《아니! 래일 찍어야 해.》

모두가 응했거나말았거나 광철은 사진대형을 허물어버리며 자리에서 물러섰다.

모두들 입속으로 웅얼댔다.

《무엇때문일가?》

《에- 부원은 감정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정숙이 그때 얼마나 무안했던가...

그러나 사진은 다음날 아침에도 찍지를 못 했다.

정숙이 아침에 나가보니 옹벽앞에 일매지게 줄맞춰 심어놓았던 코스모스들이 밤새 어딘가 모르게 어수선했진듯싶었다. 정숙이가 남달리 원심을 쓰며 꼼꼼히 줄을 맞춰 심은 코스모스였다. 웃이 날개라고 옹벽앞의 코스모스는 정말로 잘 어울렸었다. 그런데 밤새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때였다.

서운해하는 정숙을 띄어보았는지 나이가 제일 많은 송금녀가 다가오며 미안스러운 얼굴표정을 짓고서 얼버무린다.

《내 그만... 그 생각을 미쳐 못했구만.》

정숙은 의아하여 송금녀를 쳐다보았다.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코스모스는 어제 내가 심었는데... 얼마나 꼼꼼하게 심었대구...》

둘사이에 오가는 말쑥은 귀에 들어오지조차 않는듯 모두들 벅적 떠들며 사진찍을 차비를 서둘렀다.

《자, 빨리빨리... 자꾸 늦장들만 부리니 우리 미남자옹벽이 울고있지 않나요!》

영옥의 말에 다들 이구동성으로 호응했다.

《맞아요, 어서어서...》

《부원동지!》

은희도 광철의 손을 잡아끌었다.

《어제 한 약속 지켜야 합니다.》

광철이도 서둘러 사진대형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오늘은 또 조장 옥실이가 사진찍기를 미루잔다.

《좀 있다가 찍자요.》

광철은 눈을 치떴다.

《아니, 여기서 시간을 다 보낼셈이요? 오늘부



턴 잣나무굽이의 안전턱쌓기를 시작해야 한다는걸 잊었소? 자, 꾸물거리지들 말고 제격 짝구 일들을 시작합시다.》

그런데 이번엔 송금너까지 나선다.

《꽃나무랑 좀더 손질을 하고나서 찍어야 내 마음도 개운할것 같네그려.》

정숙은 가슴이 몽클해났다.

코스모스를 손질해주던 방금전의 자기 행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것이 분명했다. 하여 정숙이도 그들의 마음을 지지해나섰다.

《미송이 아버지, 그렇게 하자요.》

그러나 광철은 좀해 응해나설 자세가 아니었다.

《도로관리원의 참모습은 도로의 결모양도 중요하지만 그 속내를 환히 꿰뚫고있는 뜨거운 마음에 있는거요. 자 자, 분칠들은 그만하구...》

금시에 도로관리원들의 입이 딱 벌어졌다. 광철이가 분명 작업장정리를 분칠이라고 묘사하고있는 것이다.

《뭐, 뭐? 분칠이요?》

《아유 참, 어이가 없네. ...》

순간에 너인들의 입담이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뜨거운 마음이 어찌구저찌구 하더니 이젠 뭐 분칠?》

《우리 지성을 어쩔 그렇게 모욕할수 있어요?》

그리고나선 허리들을 쥐고돌아가며 물웃음을 터뜨렸다.

《호호...》

《흐아아...》

《됐소, 됐소. ... 됐다니까. 그놈의 입심들에 귀청 떨어지겠다.》

광철은 손을 뻗쳐들고 쫄쫄매며 돌아갔다.

잠시후 웃음끝에 겨드랑 밑에 힘날개가 돌아난듯 모두들 불이 번쩍나게 작업장정리를 말끔히 해제했다. 그리고나서 사진을 찍었다. ...

이제 바로 그때 찍은 그 사진이다.

정숙에게는 느닷없이 그때의 일이 무엇인가 이상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코스모스를 손질하는 내 모습에서 감동들을 받아서였을가?)

그 해답이 사진이 끼워져있던 그 두툼한 책에 있을것 같았다.

정숙은 학습장을 펼쳐들었다.

큼직큼직하면서도 사선으로 눌혀쓴 남편의 글이 시원하게 확 안겨들었다.

...

사람들은 길을 걸으면서 너무나 쉽게 말한다.

《길도 험하긴 하다. 무슨 놈의 길이 이 모양이야?》

《길이 질기도 하다, 질적질적... 겨우 빠져나왔군그래...》

《에 에, 기분잡친다. 그놈의 돌부리에 발톱이

빠질번 했군. ...》

《먼지도 꽤나 인다. 눈도 뜰수가 없군.》

《풀도 무성하기두 하다. 온통 화락하니 젖었네그려.》

그 길을 위해서 삽자루 한번 쥐여본 일 없고 물도랑 한번 쳐보지 않았으며 돌 한개 뽐아던진 일이 없을뿐아니라 물을 주여본 일도, 잡풀에 낫 한번 대본 일도 없는 사람들이 말이다.

나 또한 지금껏 많은 길을 걸어오면서 나에게는 응당 길을 걸어갈 권리만 있고 거기에 손을 대야 할 의무에 대해선 미처 생각해보지 않았었다.

야박한 평가와 함께 꺼리낌없이 뱉으며 지나친 넓은 길, 좁은 길, 울리막길, 내리막길, 진길, 마른 길... 그 많고많은 길들중의 한 구간을 지금은 내가 맡아섰다. ...

《호...》

정숙은 혼자 웃었다.

이건 길에 대한 무슨 철학풀이인가. ... 그리도 뚝쟁이처럼 여겨지던 남편에게서 이런 사색적인 측면을 엿볼수 있다는것이 새삼스러웠다.

《엄마, 왜 웃나?》

미송이가 의자우에 발뼉발뼉 쪼꼬마한 엉치를 울려놓으며 정숙을 뵈히 올려다보았다.

《나두 좀 보자요!》

《아버지책 보면 안돼!》

《안되긴, 〈아동문학〉 잡지에 난 일기글은 온 나라 아이들이 다 함께 보는데...》

《그것하군 달라.》

《근데 엄만 왜 보나?》

《나? 나야 다르지. 아버지와 엄마는 너보다 더 가깝거든.》

《흥, 엄만 엉터리야. 아버지 엄마보다 날 더 고와해!》

정숙은 딸의 오독한 코를 손가락으로 꼭 눌러놓고 눈을 흘겼다.

《어서 가서 숙제나 해라.》

그리고나서 정숙은 자기도 이 책엔 별로 흥미가 없다는 모양을 지어보이며 탁- 소리가 나게 덮어버렸다.

《흥.》

미송은 작고 고운 입술을 뽀족 내밀어보이고나서 돌아섰다.

정숙은 미송이가 저쯤 물러간것을 보고서야 다시 책을 들여다보았다.

×

...

오늘에야 20여일간의 간고한 전투끝에 삼송굽이 웅벽쌓기를 끝냈다.

...

(여기로구나.)

정숙은 달아오르는 호기심을 안고 쿵쿵 뛰는 가슴을 달래며 또다시 남편의 굴줄을 더듬어나가기 시작했다.

…삼송굴이 경사진 산턱쪽에 두길도 넘는 높이로 눈썹리가 모자라게 길게 쌓아올린 웅벽이 가슴을 빼근하게 만들었다.

거의가 가정부인들인 도로관리원들을 데리고 이렇듯 훌륭한 웅벽 하나를 또 쌓아올렸다.

일을 끝냈는데도 모두들 자기들이 해낸 일같이 않게만 여겨져 웅벽앞을 떠나지 못하고 서성거렸다.

더듬어보면 저 한개한개의 돌들은 이른새벽 틈도 채 들이지 못한 밥을 찬물에 말아 몇술 떠넘기고는 고개를 돌, 셋씩이나 넘어온 관리원들이 땀도 못들인채 그 땀으로 미역감으며 파내고 뿔아내고 지어오고 메여오고 안아오고 굴러오고 이어오고 끌어오고 당겨오고 맞들어오고 손에 피멍이 들도록 쌓아올린것들이다.

모두 수고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저 미더운 웅벽은 그자체가 땀, 노력, 기쁨, 희열, 웃음, 눈물 그 모든것들이 개개의 덩이로 모아지고 굳어져 하나로 엉켜붙은 벽같아보였다.

안해는 머리를 숙이고 앉아 웅벽앞에 줄지어 심어놓은 코스모스들을 손질해주고있었다. 그런데 숙인 안해의 불편이 번들거린다. 울고있는것이 분명했다. 나의 눈곱도 저려났다.

고생끝에 맛보는 희열, 이것이 바로 노동의 보람이로구나.

바로 그때 제일 나어진 은희가 내 손을 잡아끌었다.

《부원동지! 우리 이앞에서 사진찍자요!》

모두들 떠들어댔다.

《그러자요!》

《찍자요!》

그때 나는 무어때문인지 선뜻 대답이 나가질 않았다.

방금전 손으로 더듬어보던 웅벽 어느곳엔가 끼여있던 돌 한개가 마음에 걸렸다.

그것은 분명 참돌이 아니었다. 수많은 참돌들에 섞여든 푸실푸실한 썩돌이었다. 그 썩돌로 하여 후날 웅벽에 균열이 생겨 아스라한 산우에서 주먹만한 돌 하나라도 길우에 굴러내린다면…

썩돌을 빼내고 다시 쌓아야 한다.

그러나 모두들 기쁨에 한껏 넘쳐들었는데… 그 환희로운 순간을 깨뜨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우선 사진을 찍고보자. 그후에 모두에게 호소하여 썩돌을 들어내고 웅벽을 다시 쌓자.

《찍자구!》 자리에 들어섰다.

그러나 그때 사진사가 추켜드는 사진기가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며 동시에 뇌리를 치는 구호가 떠올랐다.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

이 구호를 뿔뿔이 가슴펴고 돌이켜볼수 있는가? 물론 사진에는 결모양만 찍힌다. 그 보이지 않는 망심이 미흡한 일처리를 뒤배경하여 찍는 사진기앞에 나설수 없게 한다.

저절로 손이 머리우로 올라갔다.

《가만… 사진은 매일 찍지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며 나도 생각했다. 어찌다 차레진 기쁜 날인데… 모두에게 기쁨만을 안겨주고싶었다.

오늘 밤엔 모두가 온갖 시름을 다 잊고 편히들 잠자리에 들게 해주고싶었다.

안해에게 말하여 오늘 밤 우리 둘이서 그 구간을 깨끗이 다시 쌓자!

그런데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차려놓은 밥상에 이마를 대고 잠든 안해를 보니 생각이 달라졌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돌 다루는 일을 연약한 몸으로 하루종일 하고 들어와 땀글땀글 돌아가며 탄불을 손질하고 밥을 짓고 집집승들의 먹이를 끓여주고 집정돈을 하고 미송이의 숙제검열을 하고… 그리고도 들어올줄 모르는 이 남편을 기다려 밥상을 차려놓고 잠이 들었을 안해…

힘에 부치더라도 조용히 나 혼자의 힘으로 그 일을 하자고 마음먹었다.

밥상보자기를 벗기고 가만히 수저를 드는데 안해가 부시시 깨어났다. 안해는 깜박 잠이 든것까지도 미안한지 어설픈 웃음을 지어보인다.

《어쩌나, 깜박 그만… 언제 들어왔어요?》

《방금 들어온 길이요. 몹시 피곤하지. 내 걱정 말고 어서 쉬오. 내 먹고 치우지 않으리.》

밥상을 물리고 잠간 벽에 기대앉았다.

옆에 기다려 앉았다가 굳이 제 손으로 밥상을 치우고난 안해는 어느새 잠에 빠져들었는지 숨소리가 높아갔다.

살을 녹이는듯 한 피곤이 물려든다. 소르르 눈이 감긴다. 천길나락으로 잦아드는것만 같다. 그대로 잠들고싶구나.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것이 속눈섭이라더니…

겨우 쳐드는 눈길속에 벽에 걸린 군복이 안겨왔다. 안해가 먼지가 오르지 않게 비닐보로 정히 싸서 제일 잘 보이는 벽에 걸어놓은 저 군복!

내가 오성산에서 군사복무를 할 때 입던 군복이다.

팔에 끼운채로인 기통수완장을 쳐다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안해는 깊은 잠에 들어있었다. 나는 모포밖으로 나온 안해의 자그마한 손을 굽어보았다. 손가락 하나를 천쪼박으로 동여맸다. 노래에도 있듯이 이 작은 손에 얼마나 많은 일이 쥐여져있는가! 울컥, 고마운 마음이 솟구쳤다.

나는 안해의 손을 살며시 쥐여보고나서 모포밑에 넣어주었다.

그리고 나서 미륵령으로 올라갔다.

옹벽앞에 서고보니 혼자 힘엔 부칠것 같았다. 일을 하다가 상하게 할가보아 코스모스를 캐내어 한 쪽에 림시로 심어놓고 돌을 뽑아내기 시작했다.

이때 인기척소리가 나더니 웨치다싶이하는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돌아보니 의외에도 조장 옥실이가 서있다.

《내 짐작이 틀림없었군. 그래, 이런 일은 부원 혼자서만 해야 된단가.》

옆에서 송금너도 섭섭하다는 얼굴표정으로 다가왔다.

나는 가슴이 뭉클해났다.

(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 도로를 맡아줬구나!)

얼마나 고마왔던지 가슴이 뻐근해났다.

새벽녘까지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안해와 미송은 무슨 꿈이라도 꾸는지 행복한 웃음을 머금은채 깊은 잠에 들어있었다....

아아!...

정숙은 머리를 들었다.

레사로운 그밤에... 깊은 잠속에서 꿈과 함께 흘러버린 그밤에... 이런 일이 숨겨져있었을줄이야...

늘 늦어서만 들어오곤 하던 그이... 그 많고많은 저녁들과 밤들에 숨겨져있을 수고가 그 하루밤에 다 헤아려져 정숙은 달아오르는 가슴에 학살장을 꼭 눌러안았다.

언제인가 하루일을 끝내고 저녁노을이 곱게 물든 령길을 남편과 함께 내려오던 일이 생각났다.

코스모스 만발한 그림같은 풍경에 한껏 취한 남편은 뜨겁게 말을 터쳤다. 무뚝뚝한 성정의 남편이 그날만은 감상적인 말마디들로 정숙의 마음을 울렸다.

《당신이 심어가꾼 코스모스들에 꽃이 폈소! 고맙소!

얼마나 좋소. 오가는 사람들에게 꽃잎을 흔들며 반겨주는 저 코스모스... 어쩐지 난 당신이 꼭 코스모스같이만 생각되오. 내 꼭 믿음직한 옹벽이 되어 그 어떤 무서운 산사태도 저 아름다움을 덮칠수 없게 힘껏 막아줄테요.

덜퉁한 나의 어설피름은 당신이 섬세한 손길로 메꾸어주고 당신의 연약은 내가 힘으로 막아주며 우리 그렇게 이 령길을 꾸려갑시다.》...

언젠가는 그런 일도 있었지.

정숙에게는 손풍금을 타고있는 딸애를 대견스럽게 보아주다가 남편이 하던 말도 되살아났다.

《참 잘하누나. 많이 늘었는걸. 그만하면 팬찮다.》

아버지의 만족한 웃음에 미송은 대답했다.

《아직도 덜었어요. 손풍금연주에선 두손맞추기가 제일 어려운데 선생님은 이 고비를 넘겨야 한

됐어요.》

《어려운 고비? 아버지도 지금 그 어려운 고비를 넘고있단다.》

의아한 눈길로 부르튼 아버지의 입술을 살피고있던 딸애가 물었었다.

《아버지도 두손맞추기를 하나요?》

자나깨나 얼마나 령길에만 마음을 쏟고계셨으면 그런 말을 했을가....

정숙은 달아오르는 마음을 달래며 필기장의 다 음장을 번졌다.

×

오늘 아침 코스모스를 손질해주며 안타까와하던 안해의 모습이 보여온다.

더우기나 밤새워 일을 하고나와서도 안해의 그런 모양을 보며 제 잘못이거나 한듯 죄스러워하던 송아주머니의 모습이 더더욱 뜨겁게 가슴을 친다.

어제 밤 일을 마치고 코스모스를 다시 제자리에 옮겨심을 때 왜 일을 좀더 꼼꼼히 하지 못했을까? 나의 마음엔 아직 빈구석이 너무나 많다.

몸을 열개로 쪼개여 일을 하고싶고 하루가 열흘같이 길어졌으면 하는 급한 마음이 그만 일을 설쳤던것 같다.

옥실조장과 송아주머니가 사진찍는것을 미루자고 할 때까지도 덜퉁하고 어설피른 나는 원고집을 쓰며 사람들을 일에 내밀 생각만 했다.

안해까지 그들의 마음을 따라 나에게 그러기를 바랐을 때에도 버쩍 고집을 부렸구. ... 모두들 즐거운 웃음속에 나를 설득시켰지.

그들의 한결같은 바람이 아니었다면 분칠은 고사하고 세면도 못시킨 도로를 그대로 오가는 사람들 앞에 펼쳐보일번 하지 않았는가.

옥실조장, 금녀아주머니, 사랑하는 안해... 그들의 섬세한 손길이 아니었다면 나는 또 빈구석을 남길번 했다.

그 가슴치던 후회의 빈구석을...

한줄기 바람만 스쳐도 금시 무너져내릴듯 한 오성산의 칼벼랑끝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야전차가 지쳐내리던 바퀴자리를 쓸어안고 격격 느껴울던 그날이 되새겨진다.

왜 기통수완장을 끼고 그 길을 오가며 좀더 일찍 그 생각을 못했는지...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왜 그 아슬한 벼랑끝에 안전턱을 못 쌓았겠을까! 그 위험천만한 산턱에 왜 옹벽을 쌓지 못했겠을까!

다문 몇삽의 흙이라도 깎아내려 그 길을 낮출 생각을 못했겠을까. 왜, 왜, 왜...

가슴을 치고치며 몸부림치던 바로 그날에 나는 내 한생 걸어야 할 내 삶의 길을 선택했다.

그렇게 시작된 내 삶의 길, 이 길에 이제 또다시 빈구석을 남기다니...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인민들이 오가며 리용할 이 길에 밤들만 한

돌 한개라도 굴러내리게 해선 안된다.

이 길엔 사시장철 언제나 꽃이 피어야 한다, 향기가 넘쳐나야 한다.

길을 덮고 늘어선 가로수들이 삼복철엔 그늘이 되어, 대소환추위엔 방풍림이 되어 추위를 물리치고 찬바람, 눈보라를 막아야 한다.

길 한켠에 옹벽을 쌓아놓고보면 래일엔 저쪽켠에 안전턱을 쌓고싶고 그 다음날 돌아서면 어제 쌓아올린 옹벽을 더 높이, 더 튼튼히 다시 쌓고만싶고...

천길 땅속까지 두드려보며 안전을 확인하고만 싶다.

왜 이리 가슴이 못 견딜 정도로 울렁거릴까.

왜 이리 마음이 벅차오를까.

이래서 아마 시인들이 시를 쓰는 모양같다.

쓰고싶다, 나도 시를 쓰고싶다....

레사로운 날에 문득...

레사로운 날에 문득

우리의 원수님

환히 웃으시며

스스럼없이 방문 열고 들어서실듯

레사로운 밤에 문득

우리의 김정은원수님

전조등 밝히며

야전차 몰아

미륵령 험한 길 오르시는듯

그러면...

내 말아나선 미륵령길

아직도 마음 안 놓여

자리 차고 일어나 방문 밀고 나서고

굽이굽이 령길 쓸어보고

더듬어보고 두드려보나니

아!

꿈과 같이 맞이한

그 영광의 순간을

한생의 후회로, 후회로 남길가보아...

...

정숙은 또다시 필기장을 꼭 부여안았다.

얼마나 속이 깊은 남편인가.

이토록 응심깊은 남편을 다 모르면서 나는 너무나 쉽게 방금전까지도 딸애앞에서 《이 좋은 땅, 이 좋은 고장을 더 아름답게 가꾸자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몸바쳐 일을 한단다.》라고 남편과 나란히 한자리에 세워 말을 했었다.

《으흐흐...》

정숙은 터져나오는 오열에 몸을 떨었다.

보드랍고 어린 자그마한 손이 자기의 불을 더듬

고있었다.

《엄마, 우나?》

미송이 정숙의 불편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 주며 쳐다본다.

(!...)

정숙은 딸애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리고나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엄마, 왜 그러나?》

《아버지한테 가자구! 엄마두 아버지를 따라서 구실구나.》

《오늘은 아버지가 일찍 들어온다구 하구선...》

《아니, 아버지진 오늘도 일찍 못 들어오실거다.》

《그럼 나두 따라갈래요.》

《그러자. 오늘 저녁밥은 령길에 나가 아버지랑 셋이 함께 먹자.》

정숙은 세송이의 코스모스꽃이 활짝 웃고있는 정갈한 법랑소랭이에 저녁식사를 쟁그려 담았다.

미송이도 책가방에 숙제를 다한 학습장을 넣었다.

그들모녀는 집을 나섰다. 낮에 안전턱을 쌓던 자리로 갔으나 광철은 보이지 않았다.

(?...)

한참만에야 광철이 안전턱밑 도로아래서 올라왔다.

《아버지!》

미송이가 달려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짱충거린다.

광철이 말했다.

《쉬지 않구 왜들 나왔니. 인차 들어가자던노릇이 그만... 도로밑으로 뽑은 배수도랑의 물이 저아래 멧쟁이잣나무의 뿌리를 상하게 할것 같더군. 그래서...》

《당신두 어찌면...》

정숙은 따거워지는 눈굽을 습벽이며 널찍하고 펴져진 떡바위우에 식사를 퍼놓았다.

서산우로 내려앉던 둥근달도 한자리에 끼여앉고 싶은듯 싱글거리며 들여다본다.

령길의 새벽정서를 함께 담아 펼쳐놓은 류다른 때식이었다.

세식구가 다정히 둘러앉았다.

《식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정숙은 미안스러운 얼굴로 바라본다.

문옥봉너머 저 멀리 평양쪽하늘을 이윽도록 바라보고있던 광철은 뜨겁게 말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내 조국을 선군강국으로 일떠세우시려 수많은 령길들에서 췌기밥으로 끼니를 에우셨지.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또 그 길을 이어가 구계시구...》

새날이 밝았다.

식사후 광철은 미송의 숙제장에 수표하였다.

얼마후 그들 셋은 미륵령길을 내리고있었다.

한켠으로는 민음직한 옹벽, 다른켠으로는 끄떡없는 안전턱을 갈라세우고 시원하게 뻗어내린 령길이다.

# 들의 서정시

리 진 협

그것은  
나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이웃들과 마을사람들  
온 별 온 계절 세월이 불러온  
들의 노래 들의 서정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테제여!  
빛나는 해살과도 같이  
가을날 오곡백과의 향기와도 같이  
오늘도 자자구구  
수령님사랑을 노래하나니

그랬어라 그것은  
벼짚이영 초라했던 마을  
녀인들 우물가에서 물을 길던 마을에  
수도물이 철철 넘치고  
도시향해 번쩍이는 창문을 열던 들의 노래

그것은 하루품놓아 다녀오던 읍거리  
그 길에 울리던 농촌빠스의 경적소리  
도시처녀들이 농촌으로 시집오는 경사  
저녁이면 문화회관으로 줄지어가는  
행복한 달밤 기술학습의 불밝은 창가

그것은 호미와 낫 소달구지  
그런것이 전부이던 분조재산 명부에  
프락트포터 모내는기계 새형의 분무기...  
홍겨운 코노래부르며 적어가던 분조장의 기쁨  
로동계급의 숨결로 높아가는 난가리였다

울어 목메이는 노래와 시가 아니라  
시련의 날에도 찬바람 막아 울리던  
새땅을 넓혀가던 힘찬 동음 이어  
산넘어 들넘어 넓은 벌에 생명수로 오는  
자연흐름식 관개물길에 출렁이는 푸른 물은

풍작의 설레임소리도  
생활의 환희로 부둥켜안고  
보다 유족할 태일을 그리며  
홍하는 살림 꽃피는 농촌  
천지개벽의 역사를 안아온 농촌테제여!

이 땅에 긴긴 세월 흘러갔어도  
이렇듯 아름다운 삶의 시가는 없었거니  
어이 울어 목메이지 않으랴  
자자구구 수령님사랑 넘친 들의 서정시  
우리 장군님 더 높게 올려주신 별의 노래는

아, 오늘은 하늘의 위성에도 태워  
우리 원수님 올려가시는 이 노래  
풍작이룬 가을의 무게도  
비바람도 자연의 횡포도 알려오는  
저 하늘에서도 울려오거늘

이 별우에 정녕 끝없이 찬란한  
그 해살 사회주의농촌테제여  
오곡백과 주렁진 가을을  
이 별우에 끝없이만 실어울  
울어 영원히 뜨거울 들의 서정시여!

가 사

## 내 사랑 대동강아

류 동 호

아름다운 나의 추억 신고흐르는  
대동강기슭에서 이 몸 자랐네  
저 맑은 물 젖줄기로 달게 마시며  
저 푸른 기상으로 꿈을 키웠네  
아 평양은 내 삶의 고향  
내 한생의 젖줄기 내 사랑 대동강아

웃음꽃핀 나의 생활 담고흐르는  
대동강기슭에 내 일터 있네  
마음속의 작은 티도 씻어내리는

저 물결에 실린 한생 맑고 푸르네  
아 평양은 내 삶의 고향  
내 한생의 젖줄기 내 사랑 대동강아

맑고밝은 나의 앞날 비껴흐르는  
대동강 너와 함께 평양을 빛내리  
네 물결에 애국의 마음을 신고  
줄기차게 기세차게 한생을 살리  
아 평양은 내 삶의 고향  
내 한생의 젖줄기 내 사랑 대동강아



시 초

## 우리 생활은 아름다워라

박 철

### 우리 공원 (1)

마치 록보석과 같아라  
아빠트 준비한 구획  
생활이 들끓는 한복판에  
어서 오라 우릴 불러 문을 연 공원  
숲푸르고 잔디푸른 이 공원

터전은 예전 그대로이건만  
선듯 믿어지지 않아라  
너와 나를 위한 공원이라기엔  
새로 꾸려주셔도 우리 원수님  
이처럼 희한하게 꾸려주시어

하나하나 운동기재는 얼마나 훌륭한가  
바드민턴장과 배구장...  
고무깡판은 얼마나 멋있는가  
푸른 채양을 떠인 저 의자들  
그것들은 또 얼마나 화려한가

여기서 가슴짓는 이 공원에서  
보라 우리 아이들 마음껏 뛰놀며  
더 튼튼하게 자라난다  
처녀들과 총각들은 살뜰한 정 나누며  
더 아름다워지고 더 림름해진다

아담한 정각의 푸른 추녀 흔드는  
홍겨운 장고소리 노래소리  
생활의 흥취 춤가락에 담은 너인들  
시련의 날 남달리 고생도 많았던  
우리 어머니들이 주름살편다

목이 메여라 아버지은정이어  
그리도 열렬히 인민을 보듬어  
세상앞에 내세워주시는 그 손길에  
누구도 생각 못했던 황홀한 공원에서  
누구나 사회주의문명 락으로 누리나니

꿈을 앞당겨 세월을 앞당겨  
너와 나 인민을 불러  
우리 원수님 공원의 문 새롭게 열어주시어  
우리 생활의 문 문명의 문  
눈부신 미래를 안고 더 활짝 열리었어라

세상 그 어디나 공원은 있으리라  
하지만 없으리라 이런 공원은  
위대한 령도자의 리상으로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 펼쳐주신  
아, 사랑넘치는 공원이여

### 젊은 어머니가 웃습니다

젊은 어머니가 웃습니다  
로라스케트장 그 한옆에 서서  
은반우에 재롱을 수놓는 딸의 모습  
마냥 대견하게 바라보며  
기쁨에 넘쳐 웃습니다

얼마나 밝은 웃음입니까  
얼마전까지만도  
첫걸음 익히던 아기때처럼  
넘어질가 마음조이고  
넘어지면 울상이 되던 어머니입니다

아이가 자랐습니다  
로라스케트라는 재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체법 손을 저으며 속도도 내고

저것 보십시오 뒤로 돌기 재주도 부리니  
왜 웃음이 절로 꽃피지 않겠습니까

젊은 어머니가 웃습니다  
휘거선수인양 날렵하고 맵시있는 딸의 모습  
오늘이 좋아 웃습니다  
이제 몸매도 마음도 곱게 가꾸어질  
딸의 태일이 희망차 웃습니다

아, 고마운 어머니 우리 당은  
딸에게 로라스케트장을 주고  
귀여운 딸애의 로라스케트장은  
젊은 어머니의 행복한 삶에  
또 하나 행복의 새 웃음 주었습니다

## 붉은 장미꽃

락엽지는 이 가을날  
공원에 피어난 붉은 장미  
그 싱싱함이 하 신기한듯  
꽃앞에 발걸음 세운 저 로인  
이 가슴에 젖은 생각 불러주누나

장미야 이 계절에도 피는것이  
그 꽃의 순리이겠지만  
불깃불깃한 얼굴혈색  
젊은이들처럼 꽃꽂한 허리  
인생의 가을날 로인의 그 건강은?!...

아름다운 이 공원 트랙으로 펼쳐놓고  
봄내 여름내 또 이 가을  
아침엔 신선한 공기속에 가볍게 운동을 해

저녁엔 손자손목잡고 흥그러이 산보를 해  
늘 장수보약 복용해서인가

이 공원의 나무가 수백 그루라면  
그 수백그루가 다 그대위해 푸르고  
이 공원의 꽃이 수천송이라면  
그 수천송이가 다 그대위해 향기뿌려주어  
인생황혼기에도 정정한 그대

백발을 엮고 꽃을 즐기는 로인  
꽃에서 제모습 보는듯  
빙그레 얼굴에 가득 담는 그 웃음  
이 공원이 그대 인생의 가을날에  
신기하게 피워준 붉은 장미꽃 아닌가!

## 그들은 없다

일요일에도 그들은 없다  
명절날에도 그들은 없다  
아이어른 청춘남녀들  
공원구내에 사람은 넘쳐나도  
볼수 없어라 단 한명 군인들만은

우리 사는 층높은 아파트아래  
전장인듯 한겹 군용천막을 치고  
찬바람 찬비를 다 맞으며  
공원을 꾸러 수고도 많이 한 그들  
잊을수 없어라 눈에 삼삼해라

최고사령관동지의 뜻이라고  
의자 하나를 놓아도 성의를 다하고  
그 힘든 로라스케트장연마도  
땀흘려 얼음판처럼 펼쳐주며  
밤이 있었던가 쉬는 날이 있었던가

생각하면 내 뺨고선 이 포장길  
오늘도 그들의 손길에 뜨거운것만 같아  
아이들의 탄성 튀어오르는 이 뒤흔판

오늘도 그날의 색날은 군복그대로  
웃음짓고 받들고 서있는것 같아

젖은 눈길을 들어 나는 바라본다  
그들이 행군해간 길 저 한끝을  
오늘은 어느 참호에 총잡고 서있는가  
아니면 새로 일떠서는 유희장과 살림집...  
거기서 또 낮과 밤을 불태우는가

귀한 청춘시절을 기꺼이 바쳐  
운명을 지켜주는것만도 더없이 고맙건만  
총대와 함께 건설의 마치 틀어잡고  
천만가지 행복까지 창조해주시  
못 잊어 더더욱 가슴에 가득한 군인들 모습

사람들이여 말해보자  
없다고 여기에 정녕 그들이 없으랴  
인민군대 그들은 땀에 젖은 그들은  
우리 행복을 받들어 함께 있어라  
억센 뿌리되어 아, 보이지 않는 뿌리되어

## 넓고넓은 공원

그리 넓지 않아라 이 공원  
걸어보면 그 둘레 몇분이나 걸릴가  
가로세로 재어보면  
그 면적 학교운동장만이나 할가

하지만 흥성이는 사람들속에 서서  
내 가슴의 뜨거운 말 하고싶구나  
이 공원이 우리 삶에 차지한

그 생활의 면적은  
시간으로도 평방으로도 잴수없이 넓다고

이른새벽 청신한 숲속을 거닐며  
학생들이 깊이 익히고 탐구하는  
물리법칙과 수학방정식 외국어원서들  
그 다져넣은 지식은  
이제 교실과 강당들에 랑랑히 울리리

봄날의 공원길에서  
어머니손벽속에 떼는 아기의 그 걸음  
탁아소놀이터에 귀엽게 새겨지리  
운동장에서 젊은이들이 키우는 장수형  
일터마다 혁신의 불바람 일으키리

조국땅 어디에나 공원은 옮겨지리라  
군대에 입대하고 돌격대에 나가는 청년들

그들의 가슴에 안겨 그들의 추억에 실려  
최전연전호에도 복변의 건설장에도  
공원의 이 아름다운 음향 가득차리라

하루 수백명이라면 그 수백명이  
한해 수만명이라면 그 수만명이  
찾아와 정겹게 정을 맺고  
떠나면 그 정겨운 정 잊지 못해  
마음속에 펼쳐놓고 걷고걸는 이 공원

10년 100년 공원은 여기 있어도  
10년세월 100년세월 얼마나 넓어지랴  
우리 생애에 언제나 함께 있을 공원이여  
세상끝에 가도 안고갈 공원이여

아, 넓지 않은 이 공원  
아, 넓고넓은 이 공원

## 우리 공원 (2)

내스스로 묻노니  
나에게 너에게  
이 공원은 무엇이던가  
어이하여 우리 날마다  
요람인듯 찾아와 안겨살던가

이 저녁도 보라  
직장의 퇴근길 나만이 이어놓았던가  
공장의 구내길 학교의 그 교정길  
정든 집이 아니라  
여기로 곧바로 이은 저 사람들 물결

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좋아하는 공원  
참말로 이 공원이 있어  
우리의 날과 날은 보다 즐거워졌어라  
더욱 문명해진 우리 생활이  
한껏 피워올리는 희열과 랑랑이여

그래서 어디 가도 잔디는 푸르려도  
이 공원의 잔디가 더 유정하고  
이 공원의 꽃이 더 사랑스럽고  
정각아래 자그마한 인공못도

마음속에 기쁨의 물결로 출렁이나니

누구나 이 시인에게 진정의 말 터놓더라  
꾸리지 않았을 땐 다 물랐지만  
우리 원수님 꾸려 안겨주신 이 공원  
오늘은 공원이 그대로  
우리의 복된 삶 한부분 되었다고

아, 사람이 한생을 살며 소중한것  
집과 일터 학교와 극장... 그것만이 아님을  
그것과도 같이 이 공원도 있어야 함을  
소리쳐 말해주는 박수소리 합성소리  
사회주의문명이 가슴마다 터쳐주는 웃음소리

내 스스로 묻노니  
정녕 이 공원은 우리에게 무엇이던가  
새 세기 문명으로 솟구치는 행복의 나래  
우리 원수님 마련해주신 이 공원이여  
아아, 인민은 꿈같은 락에 겨워라

— 봉남공원에서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5돐기념

## 전국문학축전 입선결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운동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고무격려하는 작가들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리고 우리의 문학작품이 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불씨로 되게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령도따라 이 땅위에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높이 날에 날따다 새로운 기적과 변혁이 창조되는 속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5돐을 맞으며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는 전국문학축전을 진행하였다.

전국문학축전에 입선된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 △소설문학부문

#### —단편소설

《태일과의 상봉》 정영종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밝은 미래》 리라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고향의 미소》 김하늘 4.15문학창작단 작가

《맑은 시내 흐르는 곳》 강철 조선인민군 문예창작사 작가

《봄》 리명 조선작가동맹 함경북도위원회 작가

《진주 아버지》 박성진 황해남도 은률과수농장 노동자

#### —과학환상소설

《새날이 밝는다》 신승구 평양시 락랑구역 락랑2동

#### —실화문학

《가꾸어가는 마음들》 리룡운 조선작가동맹 평안북도위원회 작가

#### —수필

《당기발과 우리 가정》 강혜옥 황해북도 사리원시 철산동

### △시문학부문

#### —서사시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선언한다》 백의선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인민의 그리움은 영원하리라》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시문학분과위원회

#### —장시

《위대한 조선의 2012년이여!》 리창식, 김남호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선군절찬가》 김만영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 —시조

《어머니는 당원이다》 럽형미 조선작가동맹 평안남도위원회 작가

#### —서정시

《영생의 품》 박현철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어머니는 안고왔다》 로옥선 량강도 혜산시 탑성동

《해방에 대한 추억》 리영철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태양의 집뜨락에서》 정두국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 강좌장

#### —가사

《운명도 미래도 말긴분》 리명근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뜨거운 정》 채동규 조선작가동맹 황해남도위원회 노동자

《승리에 대한 추억》 황성하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불타는 삶을 우린 사랑해》 류동호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내 마음의 푸른 신호등》 리동수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전호가의 피꿀새》 박정애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 △아동문학부문

#### —서사시

《해빛밝아라 우리의 앞날》 박향희, 김정연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 —단편소설

《약속》 민경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꽃밭》 손형호 금성청년출판사 주필

《우리 나라 기발》 김정희 자강도 강계시 연석동

#### —동화

《행복한 농부》 황령아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 —동시

《달도장 꼭꼭》 백광명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 교원

### △극문학부문

#### —단막희곡

《생일날》 고철만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종막희곡

《억센 뿌리》 안정렬 철도방송위원회 작가

△평론, 사화

—평론

《시대의 정서와 〈처녀〉의 이름》 권선철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인민이 사랑하는 참된 작가의 노래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박춘택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사화

《립제와 화전놀이》 리빈 조선작가동맹 황해북도위원회 작가

상 식

까마귀는 어느 정도 령리한가

동물계에는 검은성성이, 큰성성이, 곱둥어를 비롯하여 령리한것들이 많은데 그속에 까마귀도 넣어보자. 우선 한가지 실례를 들겠다.

자동차와 사람들이 봄비는 어느 한 도시의 네 거리에 붉은 신호등이 켜졌다. 그러자 달려오던 자동차들이 모두 섰는데 난데없이 부리가 뿔족한 까마귀 한마리가 통통 뛰면서 길복판에 나타났다. 그 까마귀란 놈이 무엇을 하려고 나타났는가. 운전사들이 모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까마귀는 입에 물었던 복숭아씨를 자동차의 앞바퀴 앞에 정확히 가져다놓는것이였다. 그리고는 통통 뛰여 길옆에 가있었다. 눈깜박할 사이에 푸른 신호등이 켜지고 자동차들이 달리자 복숭아씨가 깨졌다. 그러자 다시 붉은 신호등이 켜진 사이에 까마귀가 내려와 날썰게 살속을 쪼아먹었다.

사실 까마귀는 비교적 굳은 먹이감들을 얻었을 때 한가지 방법을 쓰는데 조개같이 굳은것은 물

고 높이 올라가 딱딱한 곳에 떨어준다. 그래도 깨지지 않으면 다시 떨어군 한다. 앞에서 본 까마귀와 복숭아씨이야기 즉 달리는 차바퀴밑에 복숭아씨를 넣었다가 깨진 알속을 먹는다는것은 여러 나라들에서 관찰한 기록들에 발표되였다.

그럼 까마귀는 어떻게 되여 이런 묘한 행동을 할수 있었겠는가. 과학자들의 추리에 의하면 어떤 도로옆의 과수원에서 익은 복숭아가 길가에 떨어지면 지나가던 자동차바퀴에 눌리어 씨가 깨지게 된다. 이것을 본 《령리한》한마리의 까마귀가 그대로 했는데 다른 까마귀들도 그것을 본받아 그렇게 했다는것이다.

까마귀는 또한 물속의 물고기도 《머리를 써서》잡아먹는다. 까마귀는 물속의 물고기를 잡을 때 먼저 나무잎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거기로 물고기들이 다가오면 재빨리 잡아먹는다. 이것은 사실 까마귀가 먹이잡이에 간단한 도구를 리용하는것과 같다.

조선문학 주체103(2014)년 제2호 (루계 제796호)

편 집 위 원 회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3(2014)년 2월 1일

발 행 주체103(2014)년 2월 5일

7-36949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4

D P R Korea

ISSN 1727-9437